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36 No. 3

라틴아메리카연구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23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Editor

Soon-Joo Lee (Department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University of Ulsan)

Managing Editor

Bradley Tatar (Division of General Studies,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young-Mo Gu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e-Soon Kim (Institute of Hispanic Studies, Korea University)

Editorial Board

Gian Luca Gardini (School of Business, Economics and Society,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Gioconda Herrera (Departamento de Sociología y Estudios de Género, FLACSO Ecuador)

Guillermo Salas-Carreño (Departamento Académico de Ciencias Sociales- Sección Antropologí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Hae-Sung Choe (Institute of Hispanic Studies, Korea University)

Jie Guo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Jonathan Brown (Department of History,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Junyoung Veronica Kim (Department of Hispanic Languages & Literatures, Univ. of Pittsburgh)

Koo-Byoung Park (Department of History, Ajou University)

Kyung-Hee Ka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Jeju National University)

Mi-Jung Lee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Nobuaki Hamaguchi (Research Institute for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Kobe)

Sam-Gyo Oh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Uiduk University)

Sang-Sub Ha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u-Jin Lim (Facult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Colima)

Suk-Kyun Woo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ae-Kyoon Lim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g-Seok Noh (Division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Young-Seok Kim (Department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 라틴아메리카연구 -

Vol. 36 No. 3

2023

Contents

Articles

- 001 21세기 브라질-중국 관계의 국제정치경제: 기회와 도전
정호윤
- 029 Derechos de la Infancia y Felicidad;
Un estudio para el caso de una zona marginada en México
Leonardo Gatica Arreola / Patricia Murrieta-Cummings
- 061 메소아메리카의 시 · 공간 융합 개념:
나와틀 전통의 내재적 이원론과 우주론적 4분법 모델을 중심으로
권봉철
- 089 연대기 문학의 시기별 특성과 변화
-아메리카와 원주민, 정복사를 중심으로-
이종득

Articles

21세기 브라질-중국 관계의 국제정치경제: 기회와 도전*

정호윤**

국립부경대학교

ABSTRACT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Brazil-China Relation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ver the past 30 years, the relationship between Brazil and China has undergone significant development, expanding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including trade, economy, culture, and science and technology. This collaboration plays a crucial role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both countries. However, this development has complex characteristics, characterized by mutual complementarity and asymmetry in Brazil-China relations. Mutual complementarity between the two nations reflects the fact that they provide each other with the necessary resources and markets. China imports key raw materials like iron ore, soybeans, and oil from Brazil, while Brazil imports high-value-added products from China. This economic exchange has been driving economic growth in both countries, increasing their interdependence. Still, it poses challenges for the future due to its asymmetrical nature. Brazil relies on China's demand for raw materials, making it vulnerable to fluctuations in China's raw material market. Moreover, Chinese state-owned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investments in Brazil, which has raised concerns and strengthened China's negotiating power. Nevertheless, the

* 이 논문은 2023년 10월 20일 개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C2A02093112).

** Hoyoon Jung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Division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and Department of Global and Area Studies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hoyoon@pknu.ac.kr).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tinues to move in a positive direction. Recently, cooperation between Brazil and China has expanded into trade, culture, and science and technology, playing a crucial role in enhancing mutual complementarity. This collabor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uilding sustainable cooperation based on interdependence. Therefore, the Brazil-China relationship has the potential to continue developing positively in the future, but both countries need to plan and coordinate their future cooperation, considering the asymmetry and interdependence. This will allow Brazil-China relations to prepare for their impact on the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address domestic priorities, and meet the challeng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ltimately achieving a more sustainable relationship.

Keywords: China, Brazil, Cooperation, Interdependence, Asymmetry, 중국, 브라질, 협력, 상호의존성, 비대칭성

들어가며

1993년 장쩌민(江泽民) 중국 국가주석은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정의했다. 이후 브라질-중국 관계는 21세기에 접어들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1990년대 중국의 기록적인 경제발전과 이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 그리고 2003년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이하 룰라) 대통령 집권(2003~2010) 이후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브라질의 존재감 확장 등이 맞물리는 동학 속에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틀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강화되었다. 중국은 2009년 마침내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제1의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기에 이른다.

사실 브라질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보우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 이하 보우소나루) 정권(2019~2022)에는 중국과 브라질 사이의 관계가 다소 소원했다. 21세기 브라질 신(新)좌파세력의 중심축으로 기능했던 룰라와 후세피(Dilma Rousseff, 이하 후세피)를 위시한 노동자

당(Partido dos Trabalhadores, PT) 정부의 외교전략의 핵심기치는 ‘다변화 자주외교(autonomia pela diversificação)’였다(Vigevani and Cepaluni 2007; Choi 2019). 따라서 룰라와 후세피 외교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환경’과 ‘인권’ 등의 분야에서 브라질의 주도적 아젠다 설정,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emerging powers)들과의 남남협력 강화, 다자주의 옹호 등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지역강국(regional power)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화하는 것이었다. 반면, 2019년 보우소나루 집권 이래 브라질은 급격한 외교노선의 선회를 목도하게 된다. 보우소나루 정부 외교정책의 주요 특징은 ‘이념외교’를 기반으로한 친미·친서방외교라는 점에서 기존 정부의 그것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특히 보우소나루는 취임 전, 그리고 취임 후에도 공공연히 반(反)중국 레토릭을 노골적으로 부각시켰다(Jung 2021).

이러한 브라질-중국 관계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10월 대선을 통해 다시금 브라질 대통령으로 집권하게 된 룰라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확대하는 외교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양국은 달러패권에 반기를 들며 양국 간 교역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지난 4월 중국-브라질 정상회담을 통해 ‘ 전면적 전략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천명했다.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미중갈등, COVID-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심화되고 있으며, 진영간 블록화 현상이 뚜렷이 관찰되고 있는 형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21세기에 접어들며 극적인 진화를 경험한 중국-브라질 관계를 국제정치경제적(IPE) 렌즈를 통해 심층 분석하고, 양자관계의 기회와 도전 측면을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자관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브라질-중국 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 연구의 독창성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양국관계의 주요 역사적 발전과정을 고찰하며, 이어지는 제4장에서는 21세기 양자관계의 비약적 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중국-브라질 협력관계를 중국의 글로벌전략의 맥락과 브라질의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각각 살펴보면 양자 파트너십의 범위와 이익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브라질-중국 관계의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도출하여 경제안보시대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브라질 관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요약 제시하고, 후속연구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선행연구 분석과 본 연구의 접근법

브라질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나, 해외의 경우 학술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우선 국내의 경우 최금좌(Choi, 2019)의 논문 “브라질-중국 관계 변화”가 브라질-중국 관계에 대한 포괄적 고찰을 시도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19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중국인들의 브라질 이주를 시작으로, 20세기 전반에 걸친 양국 관계와 보우소나루의 집권에 따른 양국 관계의 미세한 변화에 대한 통찰력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브라질과 중국 사이의 대두 무역과 관련된 두 편의 논문(Kim, Y. S. 2020; Jang, S., Jun J. and Yu, W. J. 2018) 등이 존재한다.

해외의 선행연구는 크게 양국 사이의 정치적·경제적(무역)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는 가운데, 주로 경제적 관계 및 양국 관계 발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관련된 분석이 지배적이다. Whalley and Medianu(2012)의 연구는 브라질과 중국 사이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관계,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 및 양국 간 무역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다. 저자들은 2001년 이후 브라질의 대미 무역 점유율은 상당히 감소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며 브라질의 제1의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한 경로를 추적하며 향후 중국이 브라질의 더욱 지배적인 무역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Klinger(2015)의 연구는 21세기에 접어들며 국가 주도의 투자로 특징지어지는 중국의 대외활동을 분석하면서, 브라질의 광물 부문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존재감과 세분화된 전략의 주요 특징을 검토하고 있다. Renato(2009) 또한 브라질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가 전례 없는 속도로 심화되고 있음을 밝히며,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중국의 원자재 수요로 인해 브라질 기업이 큰 이익을 얻은 바, 이는 브라질에게

새로운 시나리오의 주요 사례임을 밝히고 있다.

브라질-중국 관계의 경제적 측면을 고찰한 주요 선행연구 가운데, 양국 간의 증대되는 경제적 밀착이 브라질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학자도 다수 존재한다(e.g. Oliveira 2019). 대표적으로 Jenkins(2012)는 양국 간 투자 및 무역의 흐름 측면에서 중국이 브라질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저자는 중국의 대브라질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경제관계의 주요 동력은 무역임을 제시하며, 양국 간 무역이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브라질의 수출은 소수의 1차산품에 집중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기술집약적 공산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Melo and Filho(2015)는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한 브라질-중국 무역이 브라질 경제에 초래한 결과로서 브라질 제조업체의 수출 다변화 전략이 희석됨과 동시에 1차산품 생산 구조로의 회귀로 특징지을 수 있음을 제시했다.

한편, 브라질-중국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주로 양국 관계의 심화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브라질의 밀월관계는 양국의 전략적 선택의 일환으로 바라보며, 이는 특히 브라질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보다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음을 제시한다(Barbosa and Mendes 2006). Haibin(2010)은 룰라 시대에 접어들며 브라질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를 목도했으며, 양국 간 상호작용이 더욱 실질적이고 포괄적이며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밝히며 이는 중국과 브라질에게 윈-윈(win-win)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ardoso(2013)는 브라질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함과 동시에 정치적 측면에서 고위급 양자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정치적 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했음을 제시하며, 이러한 일련의 파트너십은 적극적이며 보다 글로벌 수준에서 영향력 있는 외교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브라질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strategic interest)이 수렴된 결과라 분석했다.

앞서 살펴본 국내외 선행연구는 브라질-중국 관계에 대한 공시적·통시적 분석을 시도하여 동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공헌하였으나, 양국 사이의 특정 분야(경제적 혹은 정치적)만을 단편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세계정치경제구조의 재편과 국제질서의 변화과정의 맥락에서 양국관계의 진화에 대한 설명과 상호작용의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칠레와 중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Bernal-Meza and Xing(2020)이 제시한 ‘세계질서 변환의 일부로서의 중국-중남미 관계(China-Latin America Relations as Part of the Transition of the World Order)’의 접근법을 바탕으로 브라질-중국 관계를 ‘진화하는 구조(evolutionizing structure)’적 관점을 통해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며, 브라질-중국 관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오늘날 국제정치경제의 새로운 북반구-남반구 축(North-South Axis)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중국의 글로벌전략과 브라질의 대외전략의 범위와 이익을 양국의 심화하는 협력관계와 국제정치경제 구조의 변화의 연관적인 맥락에서 검토하며, 향후 브라질-중국 관계의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는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20세기 브라질-중국 관계의 역사적 발전 과정

20세기 이전 중국인의 브라질 이주

브라질-중국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20세기 후반부이나, 중국인의 브라질 이주는 20세기 이전인 19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다.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브라질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약 30만 명이나, 비공식적으로 약 2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최금좌 2019).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중국인의 브라질 이주는 1812년 혹은 1814년 최초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19세기 전체에 걸쳐 중국인의 공식 이민자 수는 약 3,000명에 불과했다. 그들은 상파울루(São Paulo),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 헤시페(Recife) 등지에 정착했다. 이처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소수의 이민자들이 브라질로 유입되었지만, 1949년 이후 약 10년 동안 주로 자본가들과 그 가족들로 구성된 30여만 명 가량의 중국인 이민자들이 마오쩌둥(Mao Zedong)의 중국공산당이 주도한 혁명을 피해 대거 유입되며 오늘날 브라질 내 대규모 중국인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였다(Stenberg 2012). 이어 1960년대에 접어들며 가족단위의 중국인들이 가난에서 탈피하고자 브라질로 이주하여 소상공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21세기 들어 브라질-중국 사이의 관계, 특히 경제적 관계가 심화·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의 기업과 자본에 편승해 대거 브라질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Choi 2019). 이처럼 중국과 브라질의 경제교류가 강화되자 다양한 무역 및 투자관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브라질에서 비즈니스 기회 및 투자를 모색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중국인들의 이주가 21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표 1).

표 1. 중국인의 브라질 이주 시기별 특징

시기	주요 특징
19세기	1812년 혹은 1814년 약 200여 명의 중국 농민들이 리우데자네이루 식물원 및 산타크루즈(Santa Cruz) 황실 농장으로 이주
1900~1940년대	1900년 8월 15일 약 200여 명의 중국인들이 브라질로 이주 브라질의 백인화(embraquecimento) 정책으로 이주 단절
1940년대 후반~ 1950년대	10년 동안 약 30만 명의 중국인이 브라질로 이주했으며, 마오쩌둥(Mao Zedong)의 중국공산당이 주도한 혁명을 피해온 자본가들로 구성
1960년대	기근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단위의 중국인들이 브라질로 이주하여 소상공인으로 활동
21세기	브라질과 중국간의 관계가 밀접해 짐에 따라 중국인들이 중국의 자본 및 기업과 함께 대거 브라질로 이주

출처: 최금좌(2019, 5)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처럼 19~20세기, 특히 1974년 브라질-중국 수교 이전의 양자관계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주로 국제 이주적 측면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이주는 또한 중국인들의 브라질 이주에 천착한 ‘일방향성’ 및 ‘비대칭성’의 특징을 가진다.

수교부터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까지

이처럼 20세기 중반까지 양국 간의 접촉이 제한적이었으며, 중국인들의 브라질 이주를 중심으로 한 일방향적·비대칭적 특성을 보이던 브라질-중국 관계는 1974년 양국 수교 이래 쌍방향적 ‘교류’의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다. 1974년 당시 브라질의 에르네스토 가이젤(Ernesto Geisel) 대통령이 취임하며 실용외교 기조를 강화하고 있었으며, 동년 8월 15일 브라질과 중국은 공식적인 대사급 외교관계를 체결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지속되고 있었던 십년 동안, 즉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브라질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완전한 신뢰는 보내지 않았다(Jung, T.Y. 2023). 그러나 1974년 브라질-중국 수교는 1949년 이래로 브라질이 고수해온 공산주의 국가의 국제적 고립에 대한 지지 입장과 의 단절을 의미했다(Lessa 2010). 문화혁명이 종료된 이후 1978년 덩샤오핑(Deng Xiaoping)이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등극하며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브라질과 중국 간 문화교류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1978년, 중국의 우한 서커스단이 브라질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등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1985년 양국 정부가 주축이 되어 문화교육 협력 협정서를 체결하고, 중국-브라질 문화혼합위원회(中国巴西文化混合委员会)가 창설되는 등 문화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Jung, T.Y. 2023).

이듬해인 1979년 브라질과 중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교역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8년 양국은 무역, 경제, 문화, 교육, 해상운송 및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29개의 주요 프로젝트가 성과를 이루며 양자관계가 한층 성숙해 지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1993년 장쩌민(Jiang Zemin) 중국 국가주석이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브라질을 전략적 동반자로 칭하며 마침내 양국 사이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수립되었다. 이는 중국 역사상 개발도상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

계를 수립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Choi, 2019).

1990년대에 접어들며 양국은 문화교류 측면에서 협력이 보다 심화되었다. 1991년 중국-브라질 문화혼합위원회 회의가 처음으로 브라질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를 통해 양국은 중국-브라질 문화교육협력 시행계획(中巴文化教育合作执行计划)을 체결하여 문화교류 부문을 서커스, 음악, 영화, 도서출판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영역까지 확대하였다. 여러 예술전시회 개최뿐 아니라 양국 내 상대국 언어 교육의 확대 및 문화에 대한 관심도 증대 등 브라질-중국 사이의 문화적 교류가 확대·심화되었으며, 이로써 199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가운데 브라질은 중국과 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가 되었다(Jung, T.Y. 2023).

요컨대 제3장에서 제시한 20세기 브라질-중국 관계는 중국인의 브라질 이주를 위시한 인적 이동과 더불어 1974년 양국 수교 이래 문화 부문에서의 교류와 협력에 국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비록 1979년 양자간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1993년 브라질과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는 등 협력관계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20세기에 걸쳐 정치·경제적 영역에서의 양자 간 협력은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며 브라질-중국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정치외교·경제·사회 및 문화 영역에서의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제4장에서 다룬다.

21세기 브라질-중국 관계의 진화

세계질서의 변환과 중국 및 브라질의 부상

Keohane and Nye(1977), 그리고 Gilpin(1987)은 냉전시대에 팽배했던 정치적·이념적·전략적 경쟁의 시대는 무대의 서막으로 사라지고 경제적 경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주장했다. 즉 냉전 질서의 종말과 함께 자본주의 축적양식의 틀 속에서 국제적 경쟁의 장이 펼쳐질 것라는 것이 주요 골자로, Fukuyama(1992) 또한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는 ‘안보’에 방점을 두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붕괴(1945-1991) 사이에 국제질서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국제관계학(IR)의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국

제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경제적 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렌즈로의 전환을 더욱 부추기는데 일조했다.

20세기 후반 덩샤오핑에 의한 중국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이 다소 늦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소위 ‘무역 국가’로서의 권력을 획득하기에 이른다. 탈냉전 초기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하는 이른바 삼국(Triad)이 국제 경제를 주도했으나(Hirst and Thompson 1996), 열린 세계화(Open Globalization) 현상이 가속화되며 글로벌 남반구, 혹은 신흥국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등 세계 경제 구조의 재편을 목도하게 된다. 따라서 냉전의 동-서 분열에서 20세기 후반 파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중심으로 북반구-남반구 축(North-South Axis)이 구축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광범위한 과정에서 중국의 부상은 당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였다(Bernal-Meza 2020).

덩샤오핑은 1970년대 후반부터 마오쩌둥의 전쟁불가피론을 폐기하고, 근대화를 위한 개혁개방전략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설정하였다. 더 이상 전쟁과 혁명보다는 평화와 발전이 중요하다는 새로운 국제정세 인식을 기반으로 중국은 보다 평화로운 주변 정세를 조성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근대화의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Park 2013). 이후 중국의 지속적 경제 성장, 전 세계를 잇는 수출지향적 산업화 모델의 확립, 그리고 일련의 근대화 과정의 열매를 기반으로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중국은 중심부, 주변부 및 반주변부를 포괄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제2의 리더자격을 획득하게 됨과 동시에 G2 국가로 부상하며 대외적으로 책임대국 역할을 부여받았다(Bernal-Meza 2020; Kim 2020).

한편, 남미의 대국 브라질 또한 2003년 룰라 대통령 집권 이래 국제정치 경제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브라질은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보다 GDP 규모가 큰 국가였으며, 풍부한 자원과 넓은 국토를 배경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브라질의 잠재력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한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룰라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였다. 노동자당(PT) 출신에 강성 좌파 이미지가 깊게 각인되어 있었던 룰라 대통령은 당시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월가 출신의 인물을 중앙 은행 총재로 임명하는 등 신자유주의를 적극 도입하며 브라질을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깊숙이 편입시켰으며, 자본시장 및 외환의 자유화를 더욱 심화

시켰다. 이러한 물라에 의한 신자유주의 내부화 과정은 시장근본주의를 핵심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국가의 개입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주의(developmentalism)라는 다소 상호 모순적 경제원리가 혼합되어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의 특성을 보였다. 이와 동시에 브라질은 중국의 급속 성장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해 물라 집권 시기 연평균 4.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또한 물라가 추구한 신자유주의는 함께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포미 제로(Fome Zero) 등과 같은 빈곤층 생계지원 및 빈곤 퇴치 사회정책 확대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에 사회정책의 위상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신자유주의’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었다(Yoon 2013).

경제 성장을 통해 이전과는 달라진 브라질의 위상을 바탕으로 물라 정부는 다변화 자주외교(Autonomia pela Diversificação)을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로 설정하게 된다. Vigevani and Cepaluni(2007)는 다변화 자주외교를 글로벌 북반구(Global North)와의 전통적 관계에서 벗어나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강조하는 기조를 통해 서구 강대국과의 대외관계에서 발생하는 비대칭성을 줄이고 국가의 레버리지를 증대시키는 것이라 칭했다. 이처럼 물라 대통령 시기 브라질은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구조의 재편 속에서 남남협력에 전력투구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반기를 들며 다극적 세계질서와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등 국내외적 성공으로 더욱 공고화된 브라질의 위상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Jung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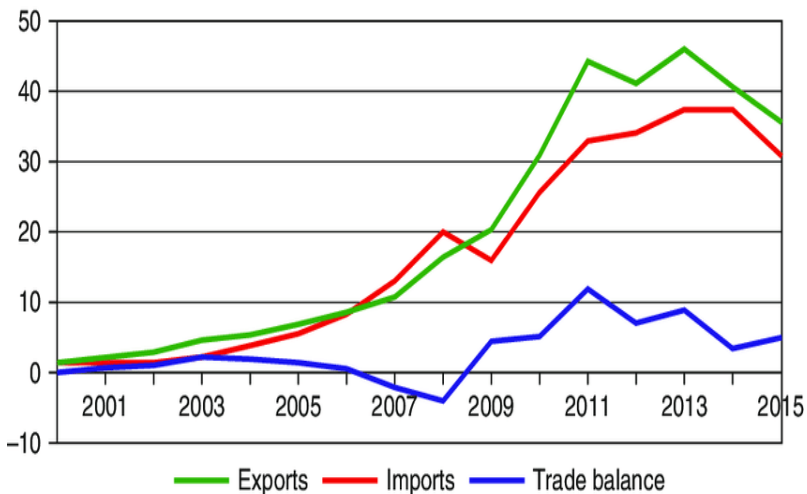
21세기 브라질-중국 관계의 발전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된 중국의 발전은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이라는 현상을 상징한다. 더 나아가 오늘날 중국은 브라질을 위시하여 중남미 국가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국가(indispensable country)’로 자리매김 했다(Xing 2010).

비약적인 브라질과 중국 관계 발전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2004년 브라질 물라 대통령의 중국 국민 방문이었다. 당시 대규모의 브라질 기업인 수행단을 꾸리고 중국을 방문한 것이다. 이후 브라질은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

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것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세계 무역시스템 강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했다(Oliveira 2004). 이후 양국 사이의 정치적·경제적 밀착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갈망했던 브라질에 우호적 제스처를 보내기 시작했으며, 21세기의 다양한 문제와 협상과 관련된 국제 의제에서 지속적으로 브라질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국제정치적 측면뿐 아니라 21세기 들어 관찰할 수 있는 브라질-중국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주지하다시피 양국 간의 무역의 기록적 증가라 할 수 있다. 브라질의 전통적인 무역 파트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었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며 브라질-중국 간의 무역 흐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0년 4월,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브라질 제1의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즉, 마침내 브라질은 환대서양(Trans-Atlantic) 적 정치경제의 역동성에 더해 환태평양(Trans-Pacific)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출처: Ruiz and Molina-Medina (2020)

그림 1.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액, 수입액 및 무역수지(10억달러), 2000-2015

양국간의 무역관계의 증가와 여러 정치적 협력의 동학이 맞물리며 중국

의 대브라질 투자 또한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최금좌에 따르면, 21세기 중국의 대브라질 투자는 크게 네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Choi 2019).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21세기 중국의 대브라질 투자: 시기 및 주요 투자 분야

시기적 구분	투자 분야
2007-2010년	원자재 분야(곡물, 광물, 석유 등)
2011-2012년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조업분야(전기·전자 및 자동차 등)
2013-2014년	서비스분야(금융 및 IT 등)
2015년 이후	에너지·인프라 분야

출처: Alvarenga (2018), 최금좌(2019)에서 인용

2004년 톨라 대통령의 중국 국민 방문 이후 정치·경제적 밀월관계를 보이던 양국은 활발한 정상외교가 지속·유지되며 협력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게 된다. 2009년 5월 톨라 대통령의 국민 방문, 2011년 후세피 대통령의 방문 등이 있었으며, 후진타오 주석의 2004년, 2012년 브라질 방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후진타오 주석이 후세피 대통령과 함께 2012년 양국 관계를 “전면적 전략동반자관계”로 재정의하며 국제체제 개혁을 위한 양국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기로 합의했다.

2015년은 브라질-중국 관계의 큰 전환점이 되는 해였다. 양국 간 협력의 주요 제도적 장치로 제4차 중국-브라질 고위급 협정 및 협력위원회(China-Brazil High Level Commission of Agreement and Cooperation, COSBAN) 회의가 동년 개최되었으며, 회의에서 35개의 양자 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2015-21년 공동행동 계획, 중국-브라질 지구자원위성(CBERS) 공동개발을 위한 보완 의정서, 은행 간 자금조달 협정, 동물보존 협력협정,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오데브레시(Odebrecht)에 대한 운영 협정 등을 들 수 있다. 톨라의 취임 이후 브라질-중국 관계의 전환과 비약적 진화는 양자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보다 글로벌 수준에서의 지위로 상승하면서 BRICS와 함께 표면화되었으며,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와 후세피 대통령이 체결한 공동성명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보다 국제적 수준에서 양자 협력이 표면화되었다(Revez and Raggio 2020).

증대되는 중국의 힘의 증가는 2014년 브라질리아(Brasilia)에서 개최된 BRICS 제6차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대중남미 협력정책인 ‘1+3+6 기본협력틀(Cooperation Framework)’이 추동하는 글로벌 전략으로 운명공동체를 건설하자는 시진핑 주석의 제안을 통해 중남미지역에서 표출되었다. 이는 2015년 중국과 중남미지역의 협력 창구인 중국-중남미·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 포럼 1차 회의에서 공식화되었다. 이 기본 협력틀에는 1대 계획, 3대 성장동력(무역, 투자, 금융) 및 6대 협력분야(에너지 및 자원, 농업, 인프라, 제조업, 과학기술 혁신 및 통신기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중국과 중남미지역 국가들 간의 의지가 반영되었다(홍성우 등, 2020).

21세기 들어 순항하던 브라질-중국 관계는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우파 포퓰리스트 보우소나루는 이념 외교를 전면에 내세우며 브라질 외교사에서 전례없는 친미·반중 레토릭을 구사했다. 보우소나루는 취임 전인 2018년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 대만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그가 브라질이 그간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고수해 온 이래 사상 최초로 대만을 방문한 대통령 후보자였다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보우소나루는 중국을 브라질의 주요 산업을 장악하는데 혈안이 된 포식자로 인식해 왔으며, 대통령 선거 유세 도중 중국은 브라질에서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을 사들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측에서는 보우소나루 당시 대통령 후보자가 2018년 9월 기준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표출한 반중국 정서에 우려를 표했으나, 중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과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우소나루 선거단 고문들과 만남을 가져 양국간 이어져온 협력을 강조하며 그의 당선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앞친데 앞친 격으로 2020년 이후 브라질을 강타한 COVID-19 팬데믹의 여파로 보우소나루의 반중 레토릭은 한층 강화되었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COVID-19으로 인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반중국 발언을 지속해 나갔다(Jung 2021).

이처럼 보우소나루 집권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브라질과 중국의 밀월관계는 2022년 룰라가 대선에서 승리하며 2023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재점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2023년 4월 룰라 대통령은 240명의 기업인과 39명의 국회의원이 동행한 279명의 메머드급 동행단을 꾸려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양국은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확대·심화를 천명했다. 중국 방문 도중 룰라는 “왜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나?”라고 언급하며 미국 달러가 지배하는 세계무역 질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침 룰라의 방중에 앞서 브라질과 중국은 양국의 금융 거래 및 수출입 결제에서 달러를 대신해 자국 통화를 사용기로 합의했다(Shin 2023). 이는 미중 경쟁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세계의 진영화·블록화의 흐름과 맞물려 중국과 브라질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과 다름 없다. 룰라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고립에 나선 미국을 아랑곳하지 않는 친중적 광폭 외교 행보를 보여주며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브라질의 양자관계는 다자외교 협력 분야에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반헤게모니적 대안을 지향하고 있는 BRICS를 통해 다자 협력이 공고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브릭스는 지난 2023년 8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창립 14년 만에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연합, 사우디아라비아 6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며 중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들 6개국은 국제정치에서 일정 수준의 존재감을 보이는 중견국(Middle Power)으로,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진영 혹은 블록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온 국가들이다. 이러한 브릭스의 확대재편은 단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지가 컸으며, 룰라 대통령은 이를 두고 경제적 차원에서의 협력 확대이지 G7이나 미국과 경쟁할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처럼 브라질-중국 관계는 21세기 들어 결정적 변곡점을 거쳐 계속 진화해 오고 있다. 단순히 무역 및 투자부문을 넘어서 문화, 교육, 사회, 그리고 국제정치적 영역에서까지 양국의 밀착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21세기 브라질-중국 관계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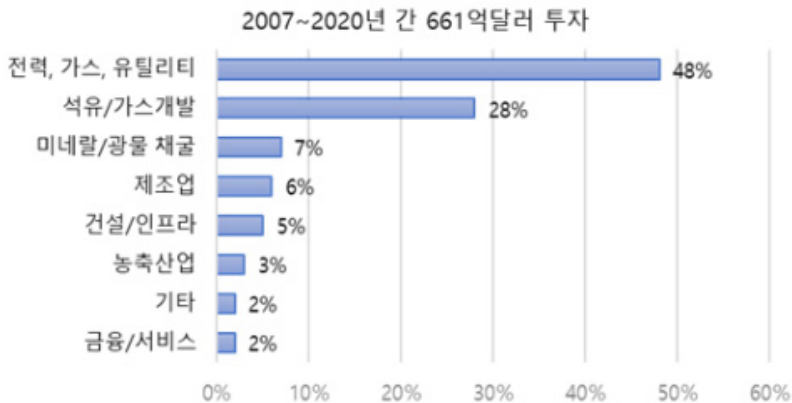
브라질-중국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의 국제정치경제

21세기 들어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공고해지자, 중국은 ‘저우추취(走出去, Going global)’를 위시하여 세계정치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해 왔다. 특히 중국은 근대화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요소인 기술, 에너지, 원자재 등의 확보를 위해 외교정책의 노선과 전략을 재설정했으며, 중남미 지역을 자신들의 글로벌 전략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Becard 2017).

중국의 대중남미 협력 초기에는 원자재 및 에너지에 접근하였으며, 그 이후 국영기업을 활용해 인프라 부문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중남미 대륙에서 자신들의 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구현해 나가고 있다. 2003년부터 브라질의 추출 및 에너지부문은 중국의 대브라질 전략 목표의 중심축이 되었으며, 2008년부터 중국의 기업들은 브라질의 전력회사를 적극적으로 인수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브라질이 중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와의 관련성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브라질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계획 및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지역적 통합을 위한 움직임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브라질 프로젝트는 중국이 다른 지역에서 활발히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력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국영기업의 투자 및 육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Becard, Lessa and Silveira 2020).

2014년 이후, 브라질 내부에서 정치적 격동이 계속되면서 많은 현지 기업들이 전력 부문에 투자를 중단하고 자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은행들은 브라질에서의 중국 기업 프로젝트를 금융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는 가용 자금, 초과 외환보유고, 유리한 환율 등의 이점을 통해 가능했다. 브라질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여러 기업이 전력 부문에서의 투자를 어렵게 여겼지만, 중국 기업들은 브라질의 전력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프로젝트에 금융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중국은 경제가 둔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러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중국 국가전망공사(State Grid)는 브라질 전력 부문에 중국 기업의 투자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며,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냈다. 예를 들어, 중국 국가전망공사는 벨로몬치(Belo Monte)댐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브라질 남동부 지역으로 운송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

을 주도했는데, 프로젝트는 서구 선진국 기업이 아닌 중국의 기업이 브라질 전기 부문에 새로운 투자 사이클을 가져온 사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 삼협총공사(China Three Gorges) 역시 브라질 전력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2018년까지 약 230억 헤알을 투자해 인수 및 자산 개선에 사용했다. 중국 삼협총공사는 특히 2013년 EDP(Energia de Portugal), 2014년 브라질 파라주의 산투 안토니우 두 자리(Santo Antonio do Jari) 수력발전소, 2015년 일라 솔테이라 브라질 에너지(Ilha Solteira Brazil Energy) 등을 인수하며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에너지 발전 회사로 자리매김했다(Becard, Lessa and Silveira 2020; KOTRA 2021).



출처: KOTRA(2021)

그림 2. 중국의 대브라질 투자 부문별 비율, 2007-2020

앞서 살펴본 제3장과 제4장의 내용을 통해 브라질-중국 관계에 있어 다양한 협력의제와 무역의 증가, 그리고 브라질 내 인프라 투자의 확대를 고찰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국의 이익 범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첫째, 중국은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국제체제 내에서 브라질의 위치와 전략적 관점에서 수행가능한 브라질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측면에서의 ‘상호보완성’을 기반으로 국제체제의 개혁을 위한 브라질과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파트너십의 질적 수준을 격상하게 되었다. 아울러 중국의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해외 확장을 도모할 때 브라질은 중국과 유사한 대륙지형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KOTRA 2021).

중국의 대브라질 투자 측면에서는 중국의 국내적 요인과 경제적 이익이 주된 결정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이 발표한 13차 에너지 개발 5개년 계획(2016-2020)은 에너지 소비 및 생산의 개혁 촉진 및 중국의 연결성을 통한 에너지 협력사업을 가속화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의 연계성 촉진을 위해 국제 에너지 프로젝트를 부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브라질 전력 부문에의 투자도 이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이 가진 기술적 역량과 전문성이 질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이것이 브라질의 에너지 부문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중반 이후 브라질이 겪었던 경제위기와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브라질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등이 중국의 투자 자금 조달 능력과 맞물리며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출현하게 되었다(Becard, Lessa and Silveira 2020).

무역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국내의 수요 측면과 이익이 브라질과 중국 사이의 지속적 무역량 증가의 핵심 요인이다. 중국은 증가하는 농산물 수요와 경제발전을 지탱하기 위해 브라질로부터 곡물, 원유, 철광석 등과 같은 1차 산품의 확보가 핵심 이익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중국이 기간 순조로운 원자재 공급을 위해 브라질에 많은 외교적·경제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더욱이 중국이 서방국가로부터 대두, 옥수수, 철광석 등 다양한 원자재를 수입해 오지만 이들과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브라질은 중국에 매우 중요한 나라이다(KOTRA 2021).

한편, 그간의 선행연구에서는 양국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중국의 전략과 입장, 그리고 그 결정요인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브라질-중국 관계의 역동성을 보다 심도있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브라질의 관점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국가 이익은 당이 제시한 정의에 의거해 전략적 연속성이 나타나는 반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브라질의 경우 영구적이고 구조적인 틀 속에서의 국익과는 별도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국익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존재한다. 그러나 여러 옵션과 상관없이 브라질-중국 관계에 있어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국익에 대한 관점으로 크게 국내 경제적 요인과 국제정치적 요인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요인들은 브라질과 중국 간 체계적-구조적 상호보완성에 의거한다. 주지하다시피 양국 경제는 ‘악어’와 ‘악어새’에 비유할 수 있다. 무역 부문에서 브라질은 중국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한편, 중국은 브라질에 값싼 공산품을 공급하며, 브라질의 고질적인 인프라 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중국은 브라질에 수많은 제조원가가 낮은 공산품을 저렴하게 수출하고 있으며, 관세, 유통세, 공업세가 높은 브라질에 일종의 물가 관리의 역할도 하는 등 브라질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브라질이 더욱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 브라질의 존재감(presence)을 확장하기 위함이었다. 2003년 룰라의 취임에 따른 양국 관계의 비약적 진화는 양자 사이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글로벌 지위로 상승함에 따라 브릭스를 위시한 국제적 수준에서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특히 브라질의 입장에서는 양자 관계의 진화, 특히 중국과의 글로벌 전략대화(Global Strategic Dialogue)는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함에 따라 자신들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을뿐 아니라 중국의 중남미지역의 주요 대화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함으로써 글로벌 의제에 보다 깊이 있게 관여한다는 브라질의 국제정치적 목표를 구현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와 동시에 브라질은 중국과의 관계 심화에 따라 지역 내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자율성(autonomy) 확보를 위한 일정 공간을 창출해 내며 브라질 대외정책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velez and Raggio 2020).

양자관계의 미래: 기회와 도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라질-중국 관계의 중심축은 체계적-구조적 상호 보완성에 의거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무역, 경제협력, 투자 및 인프라 개발뿐 아니라 문화교류, 그리고 남남협력의 틀에 의거한 BRICS를 위시한 다자간 협력까지 상호보완적 관계를 바탕으로한 협력의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양자관계의 미래는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특히 정무외교, 경제

통상외교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교류가 중심이 되는 공공외교의 영역에서도 양국간의 교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또한 브라질-중국 관계의 협력 확장과 다양화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다.

중국-브라질 고위급 협정 및 협력위원회(COSBAN)는 양국 사이의 관계를 관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그간 경제 및 금융, 무역, 정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위원회 설립을 통해 양자간 협력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특히 문화협력 분야에서도 양국은 공동 출판물 제작, 문화행사 개최, 언어 교육 및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세종학당에 해당하는 중국의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이 브라질에 무려 11개가 설립되며 양국 사이의 문화적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중국이 2006년 멕시코 시티에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공자학원을 설립한 이래 오늘날까지 29개의 공자학원이 동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브라질에는(2022년 10월 기준) 2013년 페르남부쿠 연방대학교에 최초로 개설된 이래 11개의 공자학원과 1개의 공자학습실(Confucius Room)이 설립되며 라틴아메리카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브라질-중국 관계에 있어 그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우주 및 과학 기술 협력 또한 물밑에서 활발히 진행중이다. 2013년 및 2015년 중국-브라질 지구자원위성(CBERS)의 발사가 상징하는 양국간 우주 협력 프로그램의 발전은 중국과 브라질의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여러 이점과 기회를 가져오고 있다. 아울러 중국-브라질 고위급 협정 및 협력위원회 과학기술 혁신분과위원회의 공동 노력으로 브라질-중국 혁신나노기술연구센터가 설립되었으며, 기상 위성 연구개발센터, 바이오 기술센터, 농업연구를 위한 가상 실험실(LABEX-EMBRAPA), 기후변화 및 혁신기술을 위한 연구센터 등이 잇달아 만들어 지는 등 경제, 정치, 문화 영역을 넘어 양국 사이의 협력 의제가 전례없이 확장되고 있다(Revez and Raggio 2020). 이는 양국이 가진 상호보완성과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 관계 심화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양자관계의 특징과 그 미래를 규명하고 진단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는 브라질-중국 관계가 상호 보완성의 틀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문에서의 상호 비대칭성 또한 뚜렷히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남남협력의 틀에서 관찰되던 양국 관계가 북남관계(North-South

Relations)의 틀 속에서도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브라질-중국 관계가 새로운 중심부-주변부(Core-Periphery)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지하다시피 브라질과 중국의 무역관계에 강력한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액은 1995년 13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883억 달러를 기록하며 약 68배 가량 성장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2007년, 2008년을 제외하고 브라질이 대중국 무역 흑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양국간 교역 상품의 구성이다. 중국은 브라질로부터 1차산품의 수입을 대폭 확대해온 반면 브라질은 중국으로부터 고부가가치 공산품 수입을 극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1년 기준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액 883억 달러 가운데, 철광석(289억 달러), 대두(272억 달러), 원유(142억 달러)의 비중이 약 79.6%에 달하며 상위 3개 품목의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4년 기준 이 세 가지 상품이 대중국 수출의 70%를 차지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철광석, 대두 및 원유를 중심으로 한 대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중국은 대브라질 수출 상품 집중도가 매우 낮다. 중국은 2021년 538억 달러의 대브라질 수출액을 기록했는데, 상위 세 개의 품목은 반도체 소자(30억 달러), 사무기계 부품(15.7억 달러), 휴대전화(14억 달러)로, 그 비중은 11%에 불과하다(OEC, n.d.).

아울러 중국과 브라질 사이의 도전요인은 브라질 내 전력과 같은 특정 전략적 부문에 대한 불균형적 투자의 패턴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브라질 정부는 경제위기의 상황 속에서 중국의 투자를 공공회계의 취약성에 대한 단기적 구제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브라질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결국 이들 기업의 협상력이 극대화되며 중국의 국익을 위한 중국의 사업 기회의 극대화로 귀결될 것이고 이는 양국의 전략적 관계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양자관계에 있어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의 강력한 비대칭성은 실제로 브라질 내부에서 여러 논란을 야기했는데, 특히 브라질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브라질이 전통적 파트너인 미국과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지 못하고, 브라질 상품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높았다(Revez

and Raggio 2020).

종합하면, 브라질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의 틀은 21세기에 접어들며 급속히 발전했지만, 이와 동시에 브라질의 대중국 원자재 수출에 대한 고도의 집중도는 양국 무역 및 경제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위협을 초래한다. 이러한 무역 비대칭성은 브라질 경제발전과 산업부문 생산성을 둘러싼 선순환 구조 창출에 강력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Revelez and Raggio 2020). 이는 궁극적으로 양국 관계의 미래에 걸림돌 중 하나이자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나가며

브라질과 중국 간의 관계는 과거 3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양국 간의 협력은 무역,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상호보완성과 비대칭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양국 관계의 미래에 도전적인 측면을 제시한다. 양국 간의 상호보완성은 경제적으로 브라질과 중국이 서로에게 필요한 자원과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브라질의 철광석, 대두, 원유 등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중국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제품과 기술을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양국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브라질의 대중국 원자재 의존도와 같은 비대칭성은 지속가능한 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양국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투자 및 전력 부문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브라질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동안, 이러한 투자는 브라질 내부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중국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양국 관계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관계는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국 간의 협력이 무역, 문화, 과학기술 협력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상호보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이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협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브라질과 중국 간의 관계는 미래에도 긍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양국은 비대칭성과 상호의

존성을 고려하여 미래 협력을 계획하고 조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브라질-중국 관계가 글로벌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양국의 국내 우선주의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도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견고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본 연구는 브라질-중국 관계에 대한 국제정치경제적 접근을 통해 양자 관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뤘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브라질-중국 관계의 변화와 진화는 미중관계 및 브라질-미국관계의 맥락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둘째, 브라질-중국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중국 입장에서보다 세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Alvarenga, Bianca(2018), “O Apetite Chinês por Negócios no Brasil,”
<https://veja.abril.com.br/economia/o-apetite-chines-por-negocios-no-brasil/>
- Barbosa, Alexandre de Freitas and Ricardo Camargo Mendes(2006),
 “Economic Relations between Brazil and China: A Difficult Partnership,” Dialogue on Globalization, Friedrich Ebert Stiftung Briefing Paper, 1-10.
- Becard, Danielly(2017), “China y Brasil: modelo de relaciones Sur-Sur?”
 In Eduardo Buelvas and Hubert Gehring(ed.), *La proyección de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Bogotá: Editorial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 Fundación Konrad Adenauer, pp. 387-408.
- Becard, Danieally, Antonio C. Lessa and Laura Urrejola Silveira(2020),
 “One Step Closer: The Politics and the Economics of China’s Strategy in Brazil and the Case of the Electric Power Sector,” in Raul Bernal-Meza and Li Xing (ed.), *China-Latin Americ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The Dual Complexities of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 Bernal-Meza, Raul(2020), “Introduction: Understanding China-Latin America Relations as Part of the Transition of the World Order,”
 in Raul Bernal-Meza and Li Xing (ed.), *China-Latin Americ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The Dual Complexities of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 Bernal-Meza, Raúl and Li Xing(2020), *China–Latin Americ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The Dual Complexities of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 Cardoso, Daniel(2013), “China-Brazil: A Strategic Partnership in an Evolving World Order,” *East Asia*, Vol. 30, pp. 35-51.
- Choi, Keumjoa(2019), “The Changes of Brazil-China Relations,” *Korean Journal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Vol. 38, No. 1, pp. 1-38.
- Fukuyama, Francis(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Macmillan.
- Gilpin, Robert(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ibin, Niu(2010), "Emerging Global Partnership: Brazil and China," *Revista Brasileira de Política Internacional*, Vol. 53, pp. 183-192.
- Hirst, Paul and Grahame Thompson(1996), *Globalization in Question*, Cambridge: Polity Press.
- Hong, Sung-Woo, et al.(2020),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US-China Competition on the Economy of Central and South America," *Global Regional Strategies Review* 20-01,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Jang, Suhwan, Jun Joram and Yu Woon Jang(2018), "The Trend and the Prediction of Soybean Trade between China and Brazil," *Journal of Lusophone Area Studies*, Vol. 15, No. 1, pp. 147-170.
- Jenkins, Rhys(2012), "China and Brazil: Economic Impacts of a Growing Relationship,"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Vol. 41, No. 1, pp. 21-47.
- Jung, Hoyoon(2021),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he Bolsonaro Administration's Pro-U.S. and Anti-China Diplomacy: Focusing on Political Leader's Pers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Vol. 23, No. 2, pp. 93-134.
- _____(2023), "A Study on the Central Value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Brazilian President Lula's Presidential Speech (2003-2010),"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4, No. 3, pp. 6105-6120.
- Jung, Tae-Yo(2023), "A Study of the Evolution of China-Brazil Relations with a Focus on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 CSF China Expert Foru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Keohane, Robert and Joseph Nye(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 Kim, Ae Kyung(2020), "The Rise of China, a Responsible Great Power and the Perception of Sovereignty,"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Vol. 21, No. 4, pp. 1-32.
- Kim, Young Seok(2020), "A study 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Brazilian Soybean Industry in the China Market," *Journal of Lusophone Area Studies*, Vol. 17, No. 2, pp. 7-37.
- Klinger, Julie Michelle(2015), "Rescaling China-Brazil Investment Relations in the Strategic Minerals Sector," *Journal of Chinese*

- Political Science*, Vol. 20, pp. 227-242.
- KOTRA(2021), "Deepening Chinese Influence Within Brazi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CONTENTS_NO=2&bbsGb=242&bbsSn=242&pNttSn=191418
- Lessa, Antonio Carlos(2010), "Brazil's strategic partnerships: an assessment of the Lula era (2003-2010)," *Revista Brasileira de Política Internacional*, Vol. 53, pp. 115-131.
- Melo, Maria Cristina and Jair do Amaral Filho(2015), "The Political Economy of Brazil-China Trade Relations, 2000-2010,"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42, No. 6, pp. 64-87.
- OECD.(n.d.), <https://oec.world/en/profile/bilateral-country/bra/partner/chn>
- Oliveira, Henrique(2004), "Brasil-China: Trinta Anos de Uma Parceria Estratégica," *Revista Brasileira de Política Internacional*, Vol. 47, No. 1, pp. 7-30.
- Oliveira, Gustavo(2019), "Chinese Land Grabs in Brazil? Sinophobia and Foreign Investments in Brazilian Soybean Agribusiness," in Cousins, Ben et al. (ed.), *BRICS and MICs: Implications for Global Agrarian Transformation*, London: Routledge.
- Park, Byungkwan(2013), "China's New Leadership and Xi Jinping's Foreign Policy : Focused on the Continuity and Changes," *Strategic Studies*, Vol. 60, pp. 139-170.
- Renato, Baumann(2009), "Some Recent Features of Brazil-China Economic Relations," Digital Repository,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Revelez, Lincoln B. and Andres Raggio(2020), "Cooperative Relations with China in Brazil's International Politics: Scope and Interests of the Global Strategic Partnership." in Bernal-Meza, Raul and Li Xing (ed.), *China-Latin Americ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The Dual Complexities of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pp. 83-110.
- Ruiz, Jose Briceno and Norberto Molina-Medina(2020), "China-Venezuela Relations in a Context of Change," in Bernal-Meza, Raul and Li Xing (ed.), *China-Latin Americ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The Dual Complexities of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Cham, Switzerland: Palgrave

- Macmillan, pp. 147-168.
- Shin, Kyoung Jin(2023), "Longtime Friend from China: President Lula of Brazil Visits... Discusses Ukraine Solution and More,"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4197#home>
- Stenberg, Josh(2012), "The Chinese of Sao Paulo: A Case Study," *Journal of Chinese Overseas*, Vol. 8, pp. 105-122.
- Vigevani, Tullo and Gabriel Cepaluni(2007), "A Política Externa de Lula da Silva: A Estratégia da Autonomia pela Diversificação," *Contexto Internacional*, Vol. 29, No. 2, pp. 273-335.
- Whalley, John and Dana Medianu(2013), "The Deepening China-Brazil Economic Relationship," *CESifo Economic Studies*, Vol. 59, No. 4, pp. 707-730.
- Xing, Li(2010), *The Rise of China and the Capitalist World Order*. Farnham and Ashgate: Routledge.
- Yoon, Sang Woo(2013), "A Comparative Study on Internalization of Neoliberalism in Korea and Brazil,"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56, No. 3, pp. 358-391.

Article Received: 2023. 10. 24

Revised: 2023. 12. 09

Accepted: 2023. 12. 19

Derechos de la Infancia y Felicidad; Un estudio para el caso de una zona marginada en México*

Leonardo Gatica Arreola**

Universidad de Guadalajara

Patricia Murrieta-Cummings***

Universidad de Guadalajara

ABSTRACT

Children's Rights and Happiness; A study for a marginalized area in Mexic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ims to guarantee the full development of minors. Despite its importance, in many places protecting it has been especially difficult and, in some cases, even considered unnecessary.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that lack of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has on the feelings that generate positive emotions, social interaction, and happiness, from a gender perspective. We use a sample of 171 school-aged minors. The results demonstrate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analyzed, which allows us to argue that—despite new theoretical approaches—respect for the rights of boys and girls continues to be important as a basis for their development.

Key Words: Children's Rights, Happiness, Social Interaction, Positive Emotions

* Este artículo de investigación científica y tecnológica se deriva de la evaluación del programa Comunidades Amigas de la Infancia implementado de agosto a diciembre del 2014, Coordinado e implementado por la Dra. Murrieta con recursos del Programa Habitat. Municipio de Zapopan, Jalisco, México. 2014. Ciencias Sociales, Sociología, psicología social (Temas especiales).

** Profesor investigador de la Universidad de Guadalajara.
leonardo.gatica@academicos.udg.mx

*** Profesora investigadora de la Universidad de Guadalajara.
patricia.murrieta@utexas.edu

INTRODUCCIÓN

La violencia pone en riesgo la integridad y salud física y emocional de los niños (Sandier 1960; Sroufe 1996; Diener y Lucas 1999; Twemlow 2000) e incrementa la probabilidad de comportamientos agresivos, antisociales y violentos (Orpinas, Murray y Kelder 1999; Pinheiro 2006; UNESCO 2009; Weissberg et al. 2003). La falta de recursos materiales facilita los conflictos y la agresión tanto en el hogar como en las colonias; dificulta el aprendizaje, su capacidad cognitiva y aumenta la deserción escolar (Al-Yasin 2001; Badri et al. 2018; Datu et al. 2017; Frey y Stutzer 2002; Moos et al. 2005; Oreopoulos 2007; Ruvalcaba, Murrieta, Rayón, y Pimentel, 2015; Ruvalcaba-Romero, Murrieta-Cummings, y Arteaga-Velázquez 2016; Soleimani y Tebyanian 2011; UNICEF 2009). Estas condiciones tienen efectos importantes en la percepción de seguridad de los niños e impactan negativamente en su comportamiento y desenvolvimiento social, en su desempeño cognitivo y escolar, en su bienestar emocional su salud mental y en su satisfacción de vida y su sentimiento de felicidad (Twemlow et al. 2001; Twemlow, Fonagy y Sacco, 2002; Newton 2015; Côté-Lussier y Fitzpatrick 2016; Varela et al. 2022). No obstante, la relación entre estos factores y el bienestar de los niños no es directa; dichos efectos están mediados por la manera en que los niños perciben las situaciones que viven (Sroufe 1996; Baker et al. 2003; Chafouleas and Bray 2004). Baker et al. 1997). De esta forma, la percepción que tienen los niños y niñas sobre el cumplimiento o el incumplimiento y el descuido de sus derechos en el entorno donde se desenvuelven, es lo que finalmente afecta su bienestar y su felicidad, tanto de manera contemporánea como en el futuro. El no garantizar estos derechos tiene consecuencias negativas durante la infancia y en edad adulta. Por ejemplo, los trastornos cognitivos y el bajo rendimiento generados por la falta de una educación de calidad, dan lugar a menores niveles de competencias y expectativas en edad adulta; lo cual se traduce en menor productividad e ingreso, en mayor dependencia de la seguridad social y en

desempleo (UNICEF 2013).

Sabemos que el desarrollo pleno de los niños y su bienestar no solo depende la situación material en la que viven; también depende de forma importante en la manera en como los niños perciben su relación con el entorno en el que se desenvuelven (Baker et al. 1997; Baker et al. 2003; Chafouleas and Bray 2004); las acciones encaminadas hacia el cumplimiento de los derechos de la infancia buscan no solo garantizar las buenas condiciones materiales de los menores sino proveerles de condiciones que les permitan desarrollarse plenamente, individual y socialmente, viviendo sentimientos de seguridad, protección, de ser tomado en cuenta y de felicidad. En este artículo analizamos cómo el cumplimiento o incumplimiento de los derechos de la infancia, desde la percepción de los niños, afectan estos sentimientos.

El estudio se llevó a cabo entre un grupo de 171 niños, de entre 7 y 13 años, de zonas marginadas en la ciudad de Guadalajara, México. Para ello se aplicaron una serie de reactivos con los que se construyeron indicadores para medir la percepción de los niños sobre el grado de cumplimiento de derechos de la infancia, la calidad de su interacción social, así como de emociones positivas y de la felicidad, que pudieran estar influenciadas por los niveles de cumplimiento de los derechos. Las variables utilizadas en el análisis se construyeron a partir de la literatura sobre derechos de los niños, emociones positivas y felicidad. Los resultados confirman que la falta de cumplimiento y respeto de los derechos de los niños y niñas, genera sensaciones de inseguridad, promueve actitudes y sentimientos que limitan su desarrollo y que provocan reacciones interpersonales que deterioran su interacción con los demás, e incide negativamente en su felicidad.

El artículo está organizado de la siguiente manera: en la primera parte se retoma la literatura que justifica la relación entre las variables construidas y los derechos de la infancia. Posteriormente se describe el método utilizado. En esta sección además de explicar la conformación de la muestra, se plantean los conceptos principales y los instrumentos a partir de los cuales se construyen las variables. Finalmente presentamos los resultados y la discusión de los mismos.

REVISIÓN DE LA LITERATURA

Los esfuerzos a nivel global que se han realizado para mejorar la situación de la infancia, consideran en sus propuestas de acción no solo mejorar las condiciones materiales sino la procuración de entornos que permitan un buen desarrollo emocional; este es el caso de los principios y derechos propuestos en la Convención de los Derechos de la Infancia. El objetivo de los derechos de los niños y las niñas es permitir su desarrollo, asegurar su supervivencia y protegerlos contra el abandono, la explotación y los malos tratos (UNICEF 2016). Así, lo esperado es que el cumplimiento y respeto de los derechos de la infancia tengan efectos positivos en el bienestar emocional de los niños. Las situaciones de violencia y las carencias económicas que desafortunadamente enfrentan muchas comunidades en el caso de México, imposibilitan el cumplimiento y el respeto de muchos de los derechos de los niños y niñas. Estas situaciones tienen como consecuencia un deterioro en la calidad de vida de los niños, en su bienestar presente y futuro, así como en su desarrollo emocional y cognitivo.

Cuando un derecho no es respetado, generalmente incide de manera negativa en el respeto de los demás derechos. El derecho a una educación de calidad tiene como objetivo facilitar el desarrollo del potencial del niño y enriquecer su vida(UNESCO 2009); cuando las condiciones en las escuelas no son las adecuadas, el aprendizaje tampoco es el adecuado. El niño ve limitada la posibilidad de desarrollar todo su potencial, aumentando la frustración, la baja autoestima y, eventualmente, la deserción escolar. La baja autoestima dificulta la interacción social, la convivencia y la capacidad de realizar actividades cotidianas (McKay y Fanning 1991), dificultando el respeto a una vida libre de violencia, por ejemplo. Esta situación se agrava cuando reciben poca atención por parte de los maestros y se utiliza el castigo físico(Cava y Musitu 2001),o cuando se da la violencia por género o entre pares.

Cuando los niños viven en zonas de alto riesgo por contaminación,

violencia y/o exceso de tráfico, no pueden socializar de manera libre con sus pares (Riggio 2002); lo que disminuye la probabilidad de tener un desarrollo socioemocional pleno y una adaptación social adecuada (Oros 2009; Murrieta y Gatica 2015). La falta de socialización y el no moverse libremente en las calles incide en la capacidad de lidiar con el contexto social, lo que pone en riesgo su integridad física (Kegerreis 1993; UNESCO 2009; UNICEF Centro de Investigaciones Innocenti 2002) y emocional (Malone 2007). La violencia genera sufrimiento y lesiones físicas y emocionales, produce ansiedad, depresión y problemas de conducta (Duncan, Telle, Ziol-Guest, y Kalil 2009; Johnson y Schoeni 2007).

La importancia del respeto del derecho a jugar es mayor cuando se piensa en relación a los espacios abiertos y compartidos con otros niños. Tener experiencias ricas sensorialmente da seguridad y autonomía y ayuda en la construcción de relaciones sociales (Blades 1989; Korpela, Kyttä y Hartig 2002; Moore 1996; D'Aloisio 2017). El juego en espacios públicos ayuda a promover la actividad física (Tucker, Gilliland, e Irwin 2007) y facilita el desarrollo de habilidades sociales y de resiliencia (Fjortoft y Sageie 2000; Kegerreis 1993; Malone 2007; Tranter y Doyle 1996). Al reducir las oportunidades de jugar en la calle se reduce también la posibilidad de que se dé el juego espontáneo y el contacto físico con el medio ambiente y con otros niños.

De esta forma, el cumplimiento de los derechos provee de oportunidades para que los niños vivan en situaciones que generen emociones positivas, que son aquellas que generan placer o bienestar (Lucas, Diener y Larcen 2003, citado por Oros, et al. 2011) y que dan lugar a pensamientos y acciones que favorecen un desarrollo “sano y adaptativo en las distintas etapas de la vida” (Fredrickson y Joiner 2002, citado por Oros, et al. 2011, 495). La felicidad o alegría es una de las cinco emociones positivas identificadas por Oros, et al. (2011). La felicidad, al igual que la serenidad, la gratitud, la satisfacción personal y la simpatía, permite afrontar la vida cotidiana, ayuda a sobreponerse a la diversidad y facilita la interacción social.

De igual forma, una buena capacidad para relacionarnos con los demás es un elemento que determina nuestro bienestar y felicidad, y al igual que con las emociones positivas, el cumplimiento de los derechos de la infancia buscan promover una buena calidad de interacción social para los niños. La interacción social se da cuando un individuo determina sus acciones en función de otro individuo o grupo. Esta determinación está dada en función de construcciones sociales que, desde una perspectiva sociohermenéutica, “articulan elementos estructurales (relativos a sus condiciones de vida y escolarización), aspectos intersubjetivos (experiencias y discursos de referentes significativos) y de la dimensión biográfica presente y por-venir” (D’Aloisio 2017, 103). Desde la psicología humanista (Ball 1975) cuando un individuo puede relacionarse con los demás de manera flexible, hábil y responsable, sin sacrificar necesidades propias e integridad, e independientemente de cómo se hayan dado dichas construcciones, ha desarrollado la interacción social. Esta habilidad se puede observar en la capacidad de no agredir o victimizar a los demás y de generar buen trato; permite darse cuenta de que nuestras acciones afectan a los otros y, por lo tanto, responder de manera adecuada; facilita la asertividad y disminuye la agresión (Oros et al. 2011). Cuando los niños no desarrollan ésta habilidad o cuando no aprenden a proteger sus necesidades, la victimización aumenta (Ball 1975). De manera similar, el enfrentar situaciones sociales ante las cuales no se sabe reaccionar aumenta la probabilidad de reaccionar de manera agresiva o violenta (Pepler y Slaby 1994; Baranowski et al. 1997). La interacción social influye de manera significativa en la felicidad de las personas (Jackins 1972; Oros et al. 2011) ya que influye de manera significativa en el concepto que construyen sobre sí mismos (NSW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2007).

Una buen calidad de interacción social y una presencia consistente de emociones positivas, son fundamentales para tres elementos que son clave para el bienestar emocional de los menores: (1) la capacidad de actuar (de ejercer cierto grado de control en sus decisiones y de actuar de manera independiente), (2) el sentirse seguros de que pueden comprometerse

completamente con la vida y hacer las cosas que necesitan hacer (los padres, la existencia de un lugar seguro y la confianza en personas a su alrededor, les ayuda a sentirse seguros) y (3) un sentido positivo de sí mismos (sentir que es una persona buena o que está bien y ser reconocido como tal por él mismo y por los demás (NSW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2007). El respeto a los derechos del niño permite garantizar esos tres elementos; es decir, en la capacidad de relacionarse con los demás, de sentirse seguros y de ser felices.

Este trabajo se inserta en la literatura que ha estudiado los efectos que tienen las condiciones socioeconómicas, de seguridad y de buen trato que viven los niños y jóvenes, tanto en sus familias, como en la escuela y en su comunidad, sobre su desarrollo y su bienestar. Hay un gran número de estudios que analizan en el impacto que tienen estas condiciones sobre variables como el rendimiento académico, la asistencia escolar o la salud de los niños (Votruba-Drzal2006; Milligan y Stabile 2009;Duncan et. al 2010; Locken et al 2012; Duncan et al 2014). Sin embargo, nuestro análisis se relaciona con una literatura menos abundante que se han enfocado en la relación de los niños con su entorno y los efectos que esto tiene sobre su bienestar subjetivo y sobre el desarrollo de sus capacidades de interacción social. En general, estos trabajos relacionan, medidas de felicidad y bienestar subjetivo, con las condiciones materiales en las que habitan los niños, así como con su interacción con otras personas en su entorno familiar, escolar y en sus vecindarios. En general, la información con la que se llevan a cabo estos estudios se construye a partir de lo encuestas y cuestionarios autoreportados por los niños. Al igual que estos estudios, en nuestro análisis consideramos información similar en cuanto a las condiciones del entorno de los niños, sin embargo utilizamos información a partir del levantamiento de un cuestionario basado en el proyecto de Ciudades Amigas de los Niños de UNICEF. El cuestionario se enfoca en condiciones materiales en el entorno de los niños, su relación con diferentes miembros de su comunidad y su familia, así como la percepción de los niños con relación a su seguridad,

al buen trato y respeto para con ellos, pero estructura y organiza esta información en torno a los derechos de la infancia (Murrieta et al. 2011). De esta forma, en contraste con análisis previos, en este trabajo relacionamos el cumplimiento de diferencias derechos de la infancia, desde la misma perspectiva de los niños, con una medida de felicidad y tres variables que reflejan su capacidad de interacción social. El buscar la relación del cumplimiento de los derechos con el bienestar y el buen desarrollo de los niños, y el considerar el grado de cumplimiento como variable explicativa, hasta donde sabemos, no había sido explorado hasta la fecha.

La literatura enfocada en los factores que afectan el desarrollo de las capacidades sociales de los niños y adolescentes, así como su relación con el bienestar y la felicidad, es también abumundante. Al igual que una parte de los análisis de bienestar, esta literatura se enfoca principalmente en las relaciones personales de los niños y adolescentes a lo largo de su desarrollo, tanto en el entorno familiar (Fabes et al. 2006; O'Brien Caughy et al. 2012; Eisemberg et al. 2015), en el entorno escolar (Werthamer-Larsson et al. 1991; Domitrovich et al. 2017, Rubin et al. 1998; Bukowski et al. 2018) y en sus comunidades y vecindarios (Vanderbilt-Adriance et al. 2006; Murrieta et al. 2014; Bukowski et al. 2018; Eisemberg et al. 2015). Sin embargo, son escasos los trabajos que se enfocan en la percepción de los niños sobre las condiciones materiales y las relaciones sociales y personales en su entorno como determinante de sus capacidades de relacionarse con otros. Si bien existe evidencia de una relación positiva entre la felicidad de los niños y adolescentes y sus habilidades de interacción social (Holder y Klassen 2010; Salavera 2021), no encontramos estudios que analicen conjuntamente los determinantes de estas dos variables, así como tampoco encontramos algún estudio que relacione el cumplimiento de los derechos con las habilidades sociales de los niños.

Si bien una de las limitaciones de este estudio es que se elaboró en un contexto muy particular. Sin embargo, trabajos como el de Moreno(2019) y González Carrasco et al. (2018), que comparan los efectos las condiciones

de seguridad que viven los niños y de relaciones en el entorno familiar y escolar, sobre el bienestar subjetivo en diferentes países, argumentan que las diferencias que encuentran en los niveles de bienestar se deben a variaciones en las condiciones en las que viven los niños, y no necesariamente en diferencias culturales.

Sin embargo, todos estos trabajos coinciden en concluir que el sentido de la correlación entre los factores determinantes y los niveles de bienestar, son invariantes. Esto es consistente con las posiciones que argumentan que se el bienestar subjetivo de los niños ve afectado principalmente por el microcontexto en el que viven, y en menor grado por condiciones macrosociales (Holder and Coleman 2009; Lee and Yoo 2015). No obstante, Murrieta et al. (2014), encuentran evidencia que sugiere como la normalización de puntos de referencia distintos en las condiciones que viven los niños, aún cuando las condiciones del entorno permanezcan constantes, pueden afectar su percepción sobre sus niveles de bienestar.

Una segunda limitación se refiere al posible problema de sesgo que puede ocurrir en el caso de encuestas autoreportadas (Bound et al. 2001; Bauhoff 2014). En nuestro caso consideramos que los efectos de sesgo pueden deberse particularmente a las preguntas referentes a dos temas, el de victimización y de comportamiento agresivo, en donde los niños podrían haber subreportado, debido a la valoración negativa que tienen los comportamientos agresivos y hacia la retracción de expresar situaciones de victimización. En el resto de las preguntas, si bien siempre puede haber algún sesgo en alguno de los individuos, no esperaríamos un sesgo generalizado. Esto implicaría que los parametros estimados con respecto a estas dos variables dependientes estuvieran sesgados a la baja, sin embargo no esperaríamos que afectan el signo de los parámetros.

A pesar de estas limitaciones, consideramos que este trabajo abona a esta literatura y en particular provee de nueva evidencia que de manera novedosa, y provee evidencia de la relación positiva entre el cumplimiento de los derechos de la infancia con el desarrollo de capacidades para relacionarse

socialmente y la felicidad de los niños, y si bien se centra en un caso muy específico, en términos generales es consistente con evidencia en otros contextos sociales y culturales.

METODOLOGÍA

Muestra

Se utilizó una muestra de 161 niños de primaria, que habitan en zonas urbanas de alta marginación. El tamaño de la muestra está determinada por la participación en un programa de prevención de la violencia, lo que limitó la muestra a los niños que asisten a las escuelas en las cuales se aplicó el programa. El 50.31% de los encuestados fueron hombres y el 49.69% mujeres, de entre 7 y 13 años de edad. La Tabla 1 muestra la distribución de hombres y mujeres por edad.

La escuela a partir de la cual se tomó la muestra fue elegida al azar de entre el total de escuelas públicas de las 29 colonias de mayor vulnerabilidad y peligrosidad del municipio de Zapopan, en Guadalajara, México. Para determinar la vulnerabilidad se utilizó un índice que toma en cuenta cuatro factores: densidad de población, población joven, niveles de pobreza y nivel de marginación (según lo define el INEGI¹). La peligrosidad se mide en función de el origen de las personas detenidas por diversos delitos. La colonia seleccionada ocupa el lugar 17 en cuanto a nivel de peligrosidad y es considerada con un grado de vulnerabilidad de 13 (según datos del INEGI). Los principales factores de riesgo identificados son: altos índices de violencia en las calles y presencia de crimen organizado (Dirección de Desarrollo Social y Humano 2013).

1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Geografía e Informática.

Tabla 1. Número de niñas y niños por edad en la muestra.

Edad	Mujer	Hombre	Total
7	2	2	4
8	19	21	40
9	17	29	46
10	14	12	26
11	22	16	38
12	5	1	6
13	1	0	1
Total	80	81	161

Instrumentos

Este estudio busca determinar el efecto que tiene el grado de cumplimiento o de respeto de los derechos, de acuerdo con la percepción de los niños, sobre la sensación de cuatro emociones positivas (sentirse protegido, sentirse seguro, sentirse tomado en cuenta y sentir que es bien tratado por los demás). También investigamos el efecto que tiene el cumplimiento de los derechos sobre otras tres variables relacionadas con la capacidad de tener una buena interacción social. Estas tres variables fueron la autopercepción de los niños sobre su buen trato hacia los demás, la frecuencia de tener conductas agresivas y la frecuencia de haber sido receptores de agresiones.

Para medir el cumplimiento y respeto a los derechos humanos utilizamos la encuesta del proyecto Ciudades Amigas de la Infancia (UNICEF Centro de Investigaciones Innocenti 2002) que consiste en un instrumento de 65 ítems que evalúa la percepción del niño en cinco aspectos de su vida cotidiana: (1) Juego y recreación, (2) lugar de residencia, (3) seguridad y protección, (4) escuela y (5) vida personal. Contiene preguntas dicotómicas y otras con estructura tipo Likert que indica la frecuencia con la que el niño percibe que son respetados sus derechos (donde 1 es nunca y 5 siempre). A partir de estos ítems se construyeron siete indicadores de cumplimiento para cada una de los derechos que consideramos: derecho a jugar, derecho a participar,

derecho a un mínimo de bienestar, derecho a recibir educación de calidad, derecho a recibir un trato equitativo y derecho a una vida libre de violencia en la colonia y en la escuela. Estos indicadores son puramente normativos y consideramos su medida como el promedio simple de las respuestas a los ítems correspondientes a cada derecho. En el caso de las preguntas dicotómicas se consideraron valores 1 y 5 para el cumplimiento o no cumplimiento de las condiciones que garanticen los derechos. Así, para cada persona, se calculó el valor para cada uno de los siete indicadores como una medida de la percepción del cumplimiento de cada derecho. Estos siete indicadores constituyen las siete variables dependientes que se analizaron.

Como ya se mencionó, para el caso de las variables independientes utilizamos indicadores tanto para cuatro emociones positivas, como tres indicadores de calidad y capacidad de interacción social.

Para la construcción de los indicadores de emociones positivas, partimos de la definición general de Fredrickson y Joiner (2002) e incorporamos la perspectiva de derechos humanos antes descrita. Para ello se tomaron en cuenta cuatro variables generadoras de emociones positiva: (1) sentirse protegido, (2) seguro, (3) tomado en cuenta y (4) receptor de buen trato (ver Tabla 2). Las primeras tres se construyeron a partir de la encuesta de derechos humanos y la cuarta se obtuvo de la *Escala de conductas positivas* (Orpinas 2009). Esta escala consta de 20 reactivos (evaluados a través de una escala que va de 0 a 6 veces o más), a partir de los cuales se obtienen las dimensiones analizadas utilizando un análisis factorial; el alfa de Cronbach resultante en este estudio fue de $\alpha = .875$ para la percepción de ser receptor de buen trato. Aunque algunos autores consideran otras emociones positivas, como podrían ser la alegría, la serenidad, la gratitud, la satisfacción personal y la simpatía (Oros, et al. 2011), otros autores y estudios han abordado el tema desde una perspectiva de derechos humanos y argumentan que el sentirse seguro, protegido y tomado en cuenta genera bienestar, por lo que dichas sensaciones pueden utilizarse como generadoras de emociones positivas (NSW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2007).

Tabla 2. Variables Dependientes y sus Medias
(Desviación estándar entre paréntesis).

Descripción	Descripción de la variable y Componentes	Media
Generadores de emociones positivas		
Protegido ^a	El niño confía en que alguien va a ayudarlo si le pasa algo en la colonia y sabe en dónde pedir ayuda si se sienten en peligro. Los valores pueden ir de 0 a 2.	0.67 (0.026)
Seguro ^a	El niño se siente seguro en distintos contextos (casa, escuela y/o colonia al caminar o jugar, sólo o acompañado). Los valores pueden ir de 1 a 5.	3.421 (0.0566)
Tomado en cuenta ^a	Los niños sienten que su opinión es tomada en cuenta, los maestros escuchan sus ideas y ayudan a decidir cosas en la escuela. Los valores pueden ir de 1 a 5.	3.321 (0.0772)
Receptor de buen trato	Frecuencia auto-reportada de comportamiento positivo recibido durante los últimos 30 días previos a la encuesta. La escala es aditiva; los valores pueden ir de 0 a 60.	27.33 (1.145)
Interacción Social		
Generador de buen trato	Frecuencia auto-reportada de comportamiento positivo generado durante los últimos 30 días previos a la encuesta. La escala es aditiva; los valores pueden ir de 0 a 30.	35.30 (1.175)
Agresor	Comportamiento agresivo auto-reportado. La escala es aditiva, los valores pueden estar entre 0 y 36 puntos.	2.06
Victimización	Victimización auto-reportada. La escala es aditiva, los valores pueden estar entre 0 y 36 puntos.	5.34 (0.480)
Felicidad		
	Se centra en los sentimientos de respeto y aceptación de sí mismo/a. El puntaje máximo posible es 20.	15.65

^a Se obtuvo un promedio de todas las respuestas. Valor mínimo 0 (no percibe que se cumpla su derecho), valor máximo 5 (percibe que siempre se respeta dicho derecho).

Fuente: Elaboración propia

Para aproximar la capacidad y calidad de la interacción social, consideramos tres indicadores: (1) la autopercepción de los niños sobre su capacidad de generar un buen trato hacia los demás, (2) de la manifestación de conductas agresivas y de (3) victimización. Para el construir el primer indicador se utilizó

la *Escala de conductas positivas*(Orpinas, 2009) y para los otros dos se utilizó la *Escala Reducida de Agresión y Victimización*(Orpinas y Frankowski 2001 y Orpinas 2009). La primera es una escala de 10 ítems de tipo Linkert que evalúa la frecuencia con la que los niños han hecho algo positivo para sus compañeros durante el último mes. La segunda reporta la frecuencia con la que el niño fue víctima de violencia y la frecuencia con la cual cometió conductas agresivas hacia sus compañeros. Los índices de consistencia interna obtenidos en este estudio mediante alfa de Cronbach son de $\alpha=.745$ para la subescala de victimización y $\alpha=.811$ para el factor de agresión. Para felicidad se utilizó la *Escala Analógica Visual de Alegría/Felicidad*(Oros, 2008). El alfa de Cronbach para felicidad fue de 0.879.

Para el análisis se utilizaron regresiones de mínimos cuadrados ordinarios en diez modelos básicos. En los primeros siete modelos (Tablas 3, 4, 5 y 6) las variables independientes que se utilizaron fueron las variables sobre percepción del respeto a los derechos de los niños. Los primeros tres analizan los efectos que las variables correspondientes a *sentirse protegido*, *seguro*, *tomado en cuenta* y *receptor de buen trato*, tienen sobre el indicador de cumplimiento de cada uno de los derechos. Los tres restantes se analizan el efecto de estas mismas variables sobre los indicadores de interacción social: *generador de buen trato*, *agresor* y *victimización*. Los últimos tres modelos que presentamos consideran la variable dependiente felicidad. En todos los casos, primero utilizamos género como variable de control y después se separó la base de datos para comparar el efecto de las variables en hombres y mujeres. Como variables de control se utilizaron la edad y el género. La variable de género es una variable dicotómica, 0 si es mujer y 1 si es hombre. De igual manera se presentan las regresiones separando entre hombres y mujeres.

RESULTADOS

Estadística descriptiva

Los niños entrevistados viven en colonias con un alto nivel de marginación y sin espacios para jugar. 92 de cada 100 quisieran vivir en una colonia más verde y 89 de cada 100, tener más espacios para jugar. Reportaron la falta de lugares limpios y seguros (47%), de zonas verdes (52%) y de lugares para jugar y practicar deportes (57%). No obstante, aún cuando la mayoría reportó no contar con suficientes espacios para jugar, el 71% mencionó que sí es fácil encontrar amigos con quienes hacerlo.

Según los datos reportados en la encuesta sobre derechos humanos el tener tiempo para descansar, jugar y divertirse no es un problema (m. 4.04, d.e. 1.22)²; muchas veces tienen acceso a internet (m. 3.37, d.e. 1.729) y participan en actividades extracurriculares (m. 3.27, d.e. 1.630). La mayor desventaja se da para los niños con alguna discapacidad, ya que en la mayoría de las colonias donde viven no existen espacios adecuados para el juego (m. 1.8, d.e. 1.417).

Los niños perciben que casi siempre o siempre sus vecinos son amables (m. 4 y d.e. 1.42) a pesar de que sólo a veces se sienten respetados por su color de piel y su cultura (m. 3.84, d.e. 1.63). Los niños no se sienten muy seguros cuando caminan a la escuela; tampoco se sienten seguros con los coches y, por lo tanto, al andar en bicicleta; casi nunca se sienten seguros al estar solos. Aun así, 69 de cada 100 niños reportó que en caso de necesitar ayuda había adultos que los protegiera.

En cuanto al ámbito escolar, los niños reportaron que a veces o casi siempre los maestros prestan la atención requerida, se sienten seguros y sienten que

2 En todos los casos siguientes, la m. es para la media y d.t. desviación típica. De acuerdo a lo presentado en la descripción de los instrumentos, el valor de 4 significa que “casi siempre” sienten que sus derechos son respetados. La desviación típica de 1.22 implica que el 90 por ciento de los niños piensa está entre a veces (3) y siempre (2.82 y 5). Esto mismo aplica en todas las demás variables.

tratan igual a niños y niñas (m. 3.98, 3.98 y 3.80 respectivamente). A veces se sienten escuchados (m. 3.73, d.e. 1.414), respetados (m. 3.57, d.e. 1.53) y que sus maestros preguntan su opinión (m. 3.38, d.e. 1.531); tantas veces como perciben que hay violencia física y verbal entre pares (3.67, d.e. 1.47). No obstante, casi nunca los corrigen con insultos o golpes (m. 2.18, d.e. 1.690). Las dos carencias principales: la disponibilidad de agua potable para beber (m. 2.75, entre casi nunca y a veces, d.e. 1.71) y el uso de una biblioteca escolar (m. 2.62). El 90% reportó contar con suficientes materiales escolares. 88 de cada 100 considera que en la escuela se les ha enseñado a comer sanamente y a cuidar la naturaleza (87 de cada 100).

A pesar del grado de marginación en estas colonias, la mayoría de los niños reporta contar en sus casas con agua para el aseo y para beber (m. 4.67 y 4.64, respectivamente). Esto tiene que ver con el hecho de ser una zona urbana en la cual el principal problema de marginación está vinculado con la violencia. Casi siempre se sienten seguros y con la confianza de poder hablar con sus papás. No obstante, la media en relación a sentirse seguros de que nadie les hará daño fue de 3.49.

Modelo I: Sentirse protegido (Tabla 3)

Los resultados sugieren una relación entre sentirse protegido y los siguientes derechos: a un mínimo de bienestar (0.247, $p > 0.001$), a una educación de calidad (0.198, $p > 0.1$), a ser tratado igual que a los demás (-0.116, $p > 0.05$) y a una vida libre de violencia escolar (0.071, $p > 0.071$). Al separar por género se encontró que para los hombres tanto el derecho a jugar y descansar como el derecho a un mínimo de bienestar tienen una relación positiva (0.202 y 0.237, respectivamente, $p > 0.05$). Sin embargo, para las mujeres la única variable significativa es el respeto a un mínimo de bienestar (ver Tabla 3).

Modelo II: Sentirse seguro (Tabla 3)

Las diferencias por edad y género fueron significativas a usar género como

Tabla 3. Coeficientes de Sensaciones que Generan Emociones Positivas: Sentirse Protegido y Sentirse Seguro, (Desviación estándar entre paréntesis)

Variable	Modelo I Sentirse Protegido			Modelo II Sentirse seguro		
	Niños y niñas	Niños	Niñas	Niños y niñas	Niños	Niñas
Edad	-0.027 (0.021)	-0.046 (0.034)	-0.016 (0.025)	0.072** (0.036)	0.080 (0.054)	0.049 (0.049)
Género	-0.062 (0.055)	-	-	-0.334*** (0.095)	-	-
Derecho a Jugar	0.081 (0.059)	0.202** (0.080)	-0.109 (0.090)	0.141 (0.104)	0.260** (0.126)	-0.001 (0.172)
Derecho a Participar	0.005 (0.059)	-0.079 (0.094)	0.083 (0.076)	0.067 (0.103)	-0.229 (0.149)	0.287* (0.144)
Derecho a un mínimo de Bienestar	0.247*** (0.071)	0.237** (0.091)	0.325** (0.126)	0.382*** (0.124)	0.507*** (0.143)	0.315 (0.235)
Derecho a recibir educación de calidad	0.198* (0.116)	0.252 (0.179)	0.133 (0.159)	0.544*** (0.202)	0.758*** (0.283)	0.515* (0.298)
Derecho a recibir un trato equitativo	-0.116** (0.058)	-0.141 (0.087)	-0.082 (0.082)	-0.094 (0.102)	-0.185 (0.138)	-0.086 (0.156)
Derecho a una vida libre de violencia en la colonia	0.034 (0.036)	0.009 (0.054)	0.062 (0.049)	0.215*** (0.063)	0.322*** (0.085)	0.111 (0.094)
Derecho a una vida libre de violencia escolar	0.071* (0.040)	0.056 (0.055)	0.065 (0.061)	0.008 (0.071)	-0.009 (0.087)	0.059 (0.116)
Constante	-0.301 (0.306)	-0.102 (0.466)	-0.658 (0.462)	-0.106 (0.537)	-0.851 (0.735)	-0.474 (0.882)
R ²	.2511	.3166	.2732	.4216	.5253	.3932
N	159	81	78	160	81	79

Fuente: Elaboración propia a partir de los resultados obtenidos

* p< .1; ** p<.05; *** p<.01

variable de control. A mayor edad mayor sensación de seguridad (.072, p>0.05). El ser mujer disminuye la probabilidad de sentirse seguro (-0.334, p>0.001). Tanto para hombres (p>0.1) como para mujeres (p>0.001) recibir una educación de calidad aumenta la sensación de seguridad. Sin embargo para las mujeres el derecho a jugar (0.260, p>0.05), a un mínimo de bienestar (0.507, p>0.001) y a vivir una vida libre de violencia en la colonia (0.322, p>0.001) son significativos. Para los hombres el único derecho que mantiene una relación significativa, además de educación, es el derecho a participar (0.287, p>0.1).

Modelo III: Sentirse tomado en cuenta (Tabla 4)

Mostró un nivel de asociación más alto. Para los hombres el sentirse tomado en cuenta depende de que se respete su derecho a participar (1.192, $p>0.001$), el resto de las variables no fueron significativas. En contraste, en el caso

Tabla 4. Coeficientes de Sensaciones que Generan Emociones Positivas:
Sentirse Tomado en Cuenta y Sentirse Receptor de Buen Trato
(Desviación estándar entre paréntesis)

	Modelos III Sentirse tomado en cuenta			Modelos IV Sentirse receptor de buen trato		
	Niños y niñas	Niños	Niñas	Niños y niñas	Niños	Niñas
Edad	-0.028 (0.033)	-0.026 (0.052)	-0.027 (0.042)	1.734* (0.912)	1.520 (1.448)	2.064* (1.179)
Género	0.079 (0.086)	-	-	-0.383 (2.399)	-	-
Derecho a Jugar	0.133 (0.094)	0.147 (0.120)	0.164 (0.148)	6.586* (2.617)	9.459*** (3.380)	1.521 (4.158)
Derecho a Participar	1.048*** (0.093)	1.192*** (0.142)	0.977*** (0.125)	0.323 (2.596)	-1.947 (3.987)	3.249 (3.499)
Derecho a un mínimo de Bienestar	0.189* (0.111)	0.130 (0.136)	0.349* (0.203)	1.759 (3.118)	0.360 (3.827)	5.319 (5.692)
Derecho a recibir educación de calidad	0.297 (0.181)	-0.137 (0.270)	0.639** (0.257)	0.074 (5.074)	1.938 (7.578)	-3.989 (7.227)
Derecho a recibir un trato equitativo	-0.173* (0.092)	0.016 (0.132)	-0.340** (0.135)	-0.766 (2.576)	-0.393 (3.695)	0.096 (3.788)
Derecho a una vida libre de violencia en la colonia	0.076 (0.057)	0.038 (0.081)	0.199** (0.081)	2.878* (1.589)	-0.662 (2.280)	6.489*** (2.276)
Derecho a una vida libre de violencia escolar	0.005 (0.064)	0.003 (0.083)	0.050 (0.101)	-2.373 (1.785)	-2.174 (2.336)	-4.128 (2.823)
Constante	0.113 (0.482)	0.178 (0.702)	-0.217 (0.761)	-3.155 (13.502)	5.609 (19.694)	-13.138 (21.375)
R ²	.7506	.5873	.5145	.1091	.1237	.1695
n	160	81	79	160	81	79

Fuente: Elaboración propia a partir de los resultados obtenidos

* $p < .1$; ** $p < .05$; *** $p < .01$

de las niñas son muchos los factores correlacionados con el sentirse tomado en cuenta. La asociación más fuerte se da con la participación (0.977, $p>0.001$); también está correlacionado con el bienestar (0.349, $p>0.1$), la educación de calidad (0.639, $p>0.05$), el trato equitativo (-0.340, $p>0.05$) y el derecho a una vida libre de violencia en la colonia (0.199, $p>0.05$).

Modelo IV: Receptor de buen trato (Tabla 4)

Presenta correlaciones más débiles. Para el caso de las mujeres la edad mantuvo una correlación positiva en el 90% de los casos y el derecho a una vida libre de violencia en la colonia se dio en casi todos (6.489, $p>0.001$). El derecho al juego fue significativo para los niños. Los datos sugieren que la probabilidad de experimentar buen trato es mayor cuando la interacción se da durante el juego (9.459, $p>0.001$). Sin embargo, como los modelos sugieren, estas variables son sólo una pequeña parte de lo que explica el sentir que son tratados bien.

Modelos V, VI y VII: Interacción social (Tabla 5)

Los datos sugieren una correlación del respeto al derecho al juego con la generación de buen trato (7.148, $p>0.001$) y la victimización (2.091, $p>0.1$); en ambos casos la edad es significativa; al aumentar la edad aumenta la posibilidad de ser generadores de buen trato y disminuye la victimización. El ser tomado en cuenta tiene efectos distintos en los niños y en las niñas. Para los hombres disminuye la probabilidad de ser generador de buen trato (-6.428, $p>0.05$); mientras que para las niñas disminuye la probabilidad de ser agresoras (-1.948, $p>0.001$). Un trato equitativo disminuye la probabilidad de ser agresora (-1.530, $p>0.1$) y aumenta la probabilidad de ser víctimas de violencia (2.853, $p>0.1$). La educación de calidad y la no violencia en la colonia son predictores significativos de la victimización. El aumento en el respeto a una educación de calidad aumenta la probabilidad de reducir la victimización en las mujeres (-6.064, $p>0.05$). La disminución de la

violencia en la colonia también disminuye, para el caso de las niñas, la probabilidad de ser víctima de violencia (-2.288, $p>0.05$).

Modelos VIII, IX y X: Felicidad (Tabla 6)

Se presentan los resultados de tres modelos en los que la variable dependiente es el indicador de felicidad. En el primer modelo se incluyen únicamente las variables correspondientes a los derechos de los niños, en el segundo se incluyen tanto los derechos como los sentimientos y finalmente el tercer modelo presenta únicamente la regresión con las variables que resultaron significativas. Los resultados sugieren que la felicidad no depende directamente del respeto a los derechos humanos. La única variable que mostró una correlación con felicidad fue la violencia en la colonia (0.547, $p>0.05$). Al utilizar el método iterativo encontramos que se pierde la relación entre violencia en la colonia y felicidad y se observa como significativa únicamente la correlación que mantiene con la interacción social. La victimización disminuye la probabilidad de percibirse feliz (-0.073, $p>0.1$) y la generación de buen trato la aumenta (0.052, $p>0.05$). En los hombres el buen trato es significativo (0.086, $p>0.1$), y en las mujeres el ser agresoras (-0.231, $p>0.1$).

Este modelo permite confirmar la correlación entre interacción social y felicidad; se observó con mayor claridad el efecto de la victimización (-0.085, $p>0.1$) y del buen trato (0.081, $p>0.001$) para niños y niñas (0.034, $p>0.1$). En todos los modelos de felicidad la constante fue significativa y alta, lo cual sugiere la existencia de una serie de elementos no considerados en el modelo que también inciden, lo que es consistente con la teoría.

Tabla 5. Coeficientes de Interacción Social: Generador de Buen Trato, Agresor y Victimización
(Desviación estándar entre paréntesis)

	Modelo V Generador de Buen Trato			Modelo VI Agresor			Modelo VII, Victimización		
	Niños y niñas	Niños	Niñas	Niños y niñas	Niños	Niñas	Niños y niñas	Niños	Niñas
Edad	1.713* (0.935)	1.096 (1.405)	2.001 (1.262)	0.127 (0.222)	0.087 (0.415)	0.195 (0.235)	-0.587 (0.373)	-1.379** (0.629)	-0.107 (0.468)
Género	3.139 (2.462)	---	---	-1.068* (0.584)	---	---	-0.380 (0.976)	---	---
Derecho Jugar	7.148*** (2.696)	8.684** (3.309)	5.316 (4.478)	0.740 (0.639)	1.006 (0.976)	0.340 (0.833)	2.091* (1.070)	2.177 (1.474)	1.854 (1.662)
Derecho a Participar	1.566 (3.614)	3.807 (5.432)	-1.169 (5.117)	2.088** (0.857)	1.933 (1.603)	2.627*** (0.952)	2.953** (1.438)	2.565 (2.422)	2.818 (1.885)
Derecho a ser tomado en cuenta	-0.632 (2.338)	-6.428** (3.204)	5.756 (3.582)	-1.370** (0.554)	-0.876 (0.945)	-1.948*** (0.667)	-0.121 (0.929)	-0.319 (1.439)	0.095 (1.306)
Derecho a un mínimo de Bienestar	2.794 (3.222)	6.910* (3.732)	-2.805 (6.203)	-0.462 (0.764)	-0.829 (1.101)	-0.012 (1.154)	-0.144 (1.110)	0.624 (1.525)	-1.119 (1.844)
Derecho a recibir educación de calidad	-1.801 (5.238)	0.076 (7.357)	-6.276 (8.048)	-0.466 (1.242)	-1.706 (2.170)	0.215 (1.498)	-5.924*** (2.079)	-5.189 (3.299)	-6.064** (2.973)

	Modelo V Generador de Buen Trato			Modelo VI Agresor			Modelo VII, Victimización		
	Niños y niñas	Niños	Niñas	Niños y niñas	Niños	Niñas	Niños y niñas	Niños	Niñas
Derecho a recibir un trato equitativo	-1.128 (2.666)	-3.108 (3.581)	2.545 (4.223)	-0.666 (0.632)	0.349 (1.057)	-1.530* (0.786)	2.059* (1.081)	0.951 (1.673)	2.853* (1.565)
Derecho a una vida libre de violencia en la colonia	1.839 (1.635)	1.756 (2.213)	3.934 (2.532)	-0.506 (0.388)	-0.837 (0.653)	-0.222 (0.471)	-1.953*** (0.648)	-1.393 (0.989)	-2.288** (0.915)
Derecho a una vida libre de violencia escolar	-2.463 (1.826)	-0.988 (2.264)	-4.656 (3.018)	0.010 (0.433)	-0.049 (0.668)	0.072 (0.562)	-1.263* (0.726)	-1.121 (1.016)	-1.391 (1.125)
Constante	4.585 13.81849	10.059 (19.093)	13.506 (22.831)	7.232** (3.276)	6.655 (5.633)	4.72 (4.249)	19.98*** (5.678)	25.98*** (8.843)	16.814* (8.704)
R ²	.1213	.1827	.1245	.1315	.0670	.2505	.1630	.1687	.1918
N	159	81	78	160	81	79	160	81	79

Fuente: Elaboración propia a partir de los resultados obtenidos

* p< .1; ** p<.05; *** p<.01

DISCUSIÓN

Los resultados sugieren una relación significativa entre respeto a los derechos humanos y sensaciones generadoras de emociones positivas, interacción social y felicidad, aún cuando no es tan clara la relación de dependencia entre felicidad y derechos humanos. La falta de determinación en la relación causal puede ser resultado de la correlación que hay entre interacción social y felicidad: la felicidad facilita la interacción social y las habilidades sociales influyen en la autoestima y la felicidad (Ball, 1975; Jackins, 1972; Diener & Lucas, 1999). Lo mismo sucede con las sensaciones que generan emociones positivas; sentirse protegido, seguro, tomado en cuenta y receptor de buen trato favorecen una autoestima positiva y una autoestima alta favorece el sentirse de esa manera. En ambos casos se presentan problemas de endogeneidad. Como mencionan Pérez y Garaigordobil (2004), los sujetos con buena adaptación social muestran elevados niveles de autoconcepto, son más confiados y seguros de sí mismos; y cuando el niño no está preparado para el intercambio social, argumenta López (2008), se generan emociones negativas que interfieren con su bienestar (Jackins 1972).

Como predice la teoría, el derecho al juego es un predictor importante de la sensación de seguridad y protección para los niños. Los resultados sobre bienestar material también son consistentes con la literatura sobre recursos económicos y costo emocional. En un contexto de pobreza y marginación, las emociones positivas, la autoestima y las competencias sociales fungen como factores protectores. Como argumenta Oros (2009), la marginación aumenta la vulnerabilidad de los niños; no obstante, las emociones positivas ayudan en el desarrollo de habilidades físicas, psicológicas y sociales, en la generación de relaciones de apoyo y ante futuras crisis; enfrentar este tipo de emociones en situaciones adversas contribuye a que la persona genere resiliencia (Vecina 2006).

A pesar de que algunas de las correlaciones son débiles o inexistentes, los resultados no nos permiten negar la importancia del respeto a los derechos

de los niños; éstos son consistentes con la literatura. Algunos mantienen una correlación significativa con la interacción social (por ejemplo el derecho al juego, a participar y a ser tomado en cuenta) y otros con las sensaciones que generan emociones positivas (el tener un mínimo de bienestar, el derecho a una educación de calidad y a una vida libre de violencia). Si bien no podemos decir que las sensaciones analizadas, la interacción social y la felicidad están determinadas por el respeto a los derechos de los niños, si podemos afirmar que hay una relación significativa, con diferencias importantes entre hombres y mujeres.

CONCLUSIONES

El cumplimiento de los derechos de los niños es importante, pero no es posible hacerlo si no tenemos hogares y comunidades más seguras y prósperas (UNICEF Centro de Investigaciones Innocenti 2002). Un derecho está vinculado con otro. En colonias con altos índices de marginación no es sólo el derecho a participar en las decisiones de aquello que les afecta el derecho que está en riesgo; el derecho al juego, a participar en actividades culturales, a un mínimo de bienestar material, a una educación de calidad y a vivir libres de violencia también están en riesgo. Como se observó a partir de este trabajo, no respetarlos incide de manera importante en el desarrollo de los niños.

Sin embargo, es importante profundizar en esta relación. Algunas de las variables observadas tienen que analizarse en otro contexto y a partir de otra definición; los resultados no fueron contundentes. El ser tratado con igualdad dio resultados no esperados; resultados que podrían explicarse por aspectos culturales—resistencias a que los niños y las niñas sean tratados de la misma manera que se manifiestan en agresiones y violencia entre pares—o a problemas de medición. Consideramos que este primer ejercicio nos ayuda a subrayar la importancia del respeto a los derechos de los niños y obliga a considerar las políticas y acciones de protección a la infancia como algo

primordial. Así mismo, creemos que es un punto de partida para ampliar el análisis a zonas no marginadas y de esta manera poder profundizar en la relación entre derechos humanos, sentimientos positivos, interacción social y felicidad.

REFERENCIAS

- Al-Yasin, M. (2001), "Happiness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 Vol. 33, No. 1, pp. 67–87.
- Badri, M., Al Nuaimi, A., Guang, Y. *et al.* (2018), "The effects of home and school on children's happin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 12, No. 17, pp.1-16, <https://ijcccep.springeropen.com/articles/10.1186/s40723-018-0056-z>
- Baker, J. A., Dilly, L. J., Aupperlee, J. L. and Patil, S. A. (2003), "The developmental context of school satisfaction: Schools as psychologically healthy environm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Vol. 18, No. 2, pp. 206–221.
- Baker, J. A., Terry, T., Bridger, R. and Winsor, A. (1997), "Schools as caring communities: A relational approach to school reform," *School Psychology Review*, Vol. 26, pp. 586–602.
- Ball, G. (1975), *Innerchange. A Journey into Self-Learning Through Group Interaction*, San Diego, California: Human Development Training Institute.
- Baranowski T, Perry CL, Parcel GS. (1997), "How Individuals, Environments, and Health Behavior Interact: Social Cognitive Theory," in Glanz K, Lewis FM, Rimer BK(eds),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Bauhoff, S. (2014), "Self-Report Bias in Estimating Cross-Sectional and Treatment Effects." in Michalos, A.C. (ed.) *Encyclopedia of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Research*, Springer, Dordrecht. https://doi.org/10.1007/978-94-007-0753-5_4046
- Blades, M. (1989), "Children's ability to learn about the environment from direct experience and from spatial representations," *Children's Environments Quarterly*, Vol. 6 No. 2/3, pp.4-14.
- Bound, J., Brown, C. and Mathiowetz, N. (2001), "Measurement error in survey data," in J. J. Heckman y E. Leamer (eds.), *Handbook of econometrics*, Vol. 5, pp. 3705–3843. Amsterdam: Elsevier.
- Bukowski, W.B., Laursen, B. and Rubin, K.H., (2018), *Handbook of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Cava, M. and Musitu, G. (2001), "Autoestima y percepción del clima escolar en niños con problemas de integración social en el aula," *Revista de psicología general y aplicada*, Vol.54, No. 2, pp. 297-311.
- Chafouleas, S. M., and Bray, M. A. (2004), "Introducing positive psychology: Finding

- a place within school psychology.2,”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 41, No. 1, pp. 1–5.
- D'Aloisio, F. (2017), “Jóvenes y sociabilidad escolar: Aprendizajes que sostienen un determinado orden social,” *Revista latinoamericana de Ciencias Sociales, Niñez y Juventud*, Vol. 15 No. 1, pp. 101-115.
- Datu, J., King, R. and Valdez, J. (2017), “The academic rewards of socially-oriented happiness: Interdependent happiness promotes academic engage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61, pp.19–31.
- Diener, E., & Lucas, R. (1999),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rección de Desarrollo Social y Humano (2013), *Fichas de colonias. Documento Interno*, Municipio de Zapopan.
- Domitrovich, C.E., Durlak, J.A., Staley, K.C., Weissberg, R.P. (2017), “Social-emotional competence: An essential factor for promoting positive adjustment and reducing risk in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 88, pp. 408–416.
- Duncan G.J., Ziol-Guest, K., y Kalil, A. (2010), “Early Childhood Poverty and Adult Attainment, Behavior, and Health,” *Child Development*, Vol. 81, pp. 306–25, doi: 10.1111/j.1467-8624.2009.01396.x.
- Duncan, G. J., Magnuson, K., y Votruba-Drzal, E. (2014), “Boosting family income to promote child development,” *The Future of Children*, Vol. 24, No. 1, pp. 99–120.
- Duncan, Telle, Ziol-Guest, & Kalil (12-13 de Marzo de 2009), “Long-run impacts of Early Childhood Poverty: Comparative evidence from Norwegian registry data and the U.S.,” Universidad de Michigan, Michigan: National Poverty Center.
- Eisenberg, N., Eggum-Wilkens, N.D., Spinrad, T.L. (2015),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en Schroeder, D.A., Graziano, W.G. (eds.), *The Oxford Handbook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pp. 114–136.
- Fabes, R.A., Gaertner, B.M., Popp, T.K. (2006), “Getting along with others: social competence in early childhood,” *Blackwell handbook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pp. 296–316.
- Fjortoft, I., and Sageie, J. (2000), “The natural environment as a playground for

- children-Landscape description and analyses of a natural playscape,”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Vol. 48, pp. 83-97.
- Frey, B. S., and Stutzer, A. (2002),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human wellbeing*,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onzález-Carrasco, M., Casas, F., Ben-Arieh, A., Savahl, S., y Tiliouine, H. (2018), “Children’s perspectives and evaluations of safety in diverse settings and their subjective well-being: A multi-national approach,”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Vol. 14, No. 1, pp. 309–334.
<https://doi.org/10.1007/s11482-018-9594-3>
- Holder, M. D., y Coleman, B. (2009), “The contribution of social relationships to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10, No. 3, pp. 329–349.
- Holder, M. K., & Klassen, A. (2010), “Temperament and happiness in childre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11, pp. 419–439,
<https://doi.org/10.1007/s10902-009-9149-2>
- Jackins, H. (1972), *The Human Side of Human Beings: The Theory of Re-evaluation Counseling*, Seattle: Rational Island Publishers.
- Johnson, R., & Schoeni, R. (2007), “The Influence of Early-Life Events on Human Capital, Health Status, and Labor Market Outcomes over the Life Course,” *Working Paper Series*. UC Berkeley, Berkeley, California: Instituto de Investigación sobre Trabajo y Empleo.
- Kegerreis, E. (1993), “Independent mobility and children’s ment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M. Hillman, *Children’s transport and the quality of life*,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pp. 28-34.
- Korpela, K., Kyttä, M., and Hartig, T. (2002), “Children’s favorite places: Restorative experience, self-regulation, and children’s place preferenc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 22, pp. 387-398.
- Lee, B. J., y Yoo, M. S. (2015), “Family, school, and community correlates of children’s subjective well- being: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Child Indicators Research*, Vol. 8, No. 1, pp. 151–175.
- Loken, K.V., Mogstad, M., y Wiswall M. (2012), “What Linear Estimators Miss: The Effects of Family Income on Child Outcome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Vol 4, No. 2, pp. 1–35, doi: 10.1257/app.4.2.1.
- López, M. (2008), “La integración de habilidades sociales en la escuela como estrategia para la salud emocional,” *Revista Electrónica de Intervención Psicosocial y Psicología Comunitaria*, Vol. 3, No.1, pp. 16-19.

- Lucas, R. E., Diener, E. and Larsen, R. J. (2003), "Measuring positive emotions," in: S. J. López y C. R. Zinder (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yubomirsky, S., Tkach, C., and Dimatteo (2006),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Happiness and Self-Esteem?"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78, pp. 363–404.
- Malone, K. (2007), "The Bubble-Wrap Generation--Children growing up in walled gardens,"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Vol. 13 No. 4, pp. 513-527.
- McKay, M. y Fanning, P. (1991), *Autoestima: evaluación y mejora*, España: Ediciones Martínez Roca.
- Milligan, K. and Stabile, M. (2009), "Child Benefits,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Health: Evidence from Canadian Child Benefit Expans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9, No. 2, pp. 128-132.
- Moore, R. (1996), "Compact Nature: The Role of Playing and Learning Gardens on Children's Lives," *Journal of Therapeutic Horticulture*, Vol. 8, pp. 72-82.
- Moos, L., Krejsler, J., Kofod, K., and Jensen, B. (2005), "Successful school principal-ship in Danish schools,"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43, No. 6, pp. 563–571.
- Moreno Mínguez, A. (2019), "Children's Relationships and Happiness: The Role of Family, Friends and the School in Four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21, No. 5, pp. 1859-1878.
doi:10.1007/s10902-019-00160-4 .
- Murrieta, P., Ruvalcaba, N., Caballo, V. y Lorenzo, M. (2014), "Cambios en la percepción de la violencia y el comportamiento agresivo entre niños a partir de un programa de habilidades socioemocionales," *Psicología Conductual*, Vol. 22, No. 3, pp. 569-584.
- Murrieta, P., y Gatica, L. (2015), *Marginación, violencia y grupos callejeros. Un primer acercamiento a la dinámica del ciclo de pobreza en los jóvenes de una comunidad urbana*, Guadalajara: Universidad de Guadalajara.
- Murrieta, P., Caro, N., y del Rosario Ruíz, M. (2011), *Evaluación del respeto a los derechos de la Infancia. Una metodología basada en el programa Child Friendly cities de UNICEF*, UNICEF
- NSW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2007), *Ask the children: overview of children's understandings of wellbeing*, Government of New South Wales.
- O'Brien Caughy M., Franzini, L., Windle, M., Dittus, P., Cuccaro, P., Elliott, M.N.

- and Schuster M.A. (2012), "Social Competence in Late Elementary School: Relationships to Parenting and Neighborhood Context,"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Vol. 41, pp. 1613–1627.
- Oficina de Investigación de UNICEF (2013), *Bienestar infantil en los países ricos: un panorama comparativo, Report Card no. 11*. Florencia: Oficina de Investigación de UNICEF.
- Oreopoulos, P. (2007), "Do dropouts drop out too soon? Wealth, health and happiness from compulsory school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91, pp. 2213–2229.
- Oros, L.B., Manucci, V. y Richaud-de Minzi, M.C. (2011), "Desarrollo de emociones positivas en la niñez. Lineamientos para la intervención escolar," *Educ. Educ.* Vol. 14, No. 3, pp. 493-509.
- Oros, L.B. (2009), "El valor adaptativo de las emociones positivas. Una mirada al funcionamiento psicológico de los niños pobres," *Revista Interamericana de Psicología*, Vol. 43, No. 2, pp. 288-296.
- Orpinas, P. (2009), *Measurement manual: aggression, victimization, and social skills scales*, Athens, GA: University of Georgia.
- Orpinas, P. and Frankowski, R. (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21, No. 1, pp. 51-68.
- Orpinas, P., Murray, N., and Kelder, S. (1999), "Parental influences on students' aggressive behavior and weapon-carrying,"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Vol. 26, No. 6, pp. 774-787.
- Pepler, D. and Slaby, R.G. (1994), "Theoret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Youth and Violence," in Eron, LD, Gentry JH, Schlegel P, (ed), *Reason to Hope: A Psychosocial Perspective on Violence and Yout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 27-58.
- Pérez, J., and Garaigordobil, M. (2004), "Relaciones de la socialización con inteligencia, autoconcepto y otros rasgos de la personalidad en niños de 6 años," *Apuntes de psicología*, Vol. 22, No. 2, pp. 153-169.
- Pinheiro, P. (2006), *Acabar con la violencia contra los niños, niñas y adolescentes, Informe del experto independiente para el estudio de las Naciones Unidas sobre la violencia contra los niños*, Nueva York: Naciones Unidas, UNICEF.
- Richaud de Minzi, M. C. and Oros, L. B. (2009), "Emociones positivas, flexibilidad cognitiva y afrontamiento del estrés en niños," in M. V. Mestre Escrivá (Org.), *Simposio presentado en el marco del XXXII Congreso Interamericano de*

Psicología, Guatemala, Guatemala.

- Riggio, E. (2002), "Child friendly cities: good governanc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Vol. 14, No. 45, pp. 45-58.
- Rubin, K.H., Bukowski, W. and Parker, J.G. (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Eisenberg, 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III.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Vol. 3, pp. 619-700.
- Ruvalcaba, N. A., Murrieta, P., Rayón, R. and Pimentel, A. (2015), "Aprobación parental de la violencia y victimización como predictores de la agresión y conductas prosociales," *Tesis Psicológica*, Vol. 10, No. 1, pp. 60-71.
- Ruvalcaba, N., Murrieta, P. and Arteaga, A. (2016), "Competencias socioemocionales y percepción de la comunidad ante la conducta agresiva en adolescentes que viven en entornos de riesgo," *Acción Psicológica*, Vol. 13, no. 2, pp. 79-88. DOI:10.5944/ap.13.2.17816
- Salavera, C. and Usán, P. (2021),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kills and Happiness: Differences by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 18, No. 15. 7929.
[https:// doi.org/10.3390/ijerph18157929](https://doi.org/10.3390/ijerph18157929)
- Soleimani, N. and Tebyanian, E. (2011),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incipals' creativity and degree of environmental happiness in Semnan high schools,"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 29, pp. 1869-1876.
- Tranter, P. and Doyle, J. (1996), "Reclaiming the residential street as playspace," *International Play Journal*, Vol. 4, pp. 81-97.
- Tucker, P., Gilliland, J. and Irwin, J. (2007), "Splashpads, Swings, and Shade: Parents' Preferences for Neighbourhood Park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98, No. 3, pp. 198-203.
- UNESCO (2009), *Poner fin a la violencia en la escuela: Guía para los docentes*, París, Francia: UNESCO, Organización de las Naciones Unidas para la Educación, la Ciencia y la Cultura.
- UNICEF Centro de Investigaciones Innocenti (2002), *Pobreza y exclusión entre niños urbanos (Vol. 10)*, Florencia: Digest Innocenti.
- UNICEF (2004),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UNICEF (2009), *Manual. Escuelas amigas de la infancia*, Nueva York: División de Comunicaciones de UNICEF.
- UNICEF (2016), *UNICEF, Convención sobre los Derechos del Niño*. Recuperado el 10 de Febrero de 2016, de Derechos bajo la Convención sobre los Derechos

- del Niño: http://www.unicef.org/spanish/crc/index_30177.html
- Vanderbilt-Adriance, E. and Shaw, D. S. (2006), "Neighborhood risk and the development of resilienc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Vol.1094, pp. 359–362.
- Vecina, M. (2006), "Emociones positivas," *Papeles del psicólogo*, Vol. 27, No. 1, pp. 9-17.
- Votruba-Drzal, Elizabeth (2006), "Economic Disparities in Middle Childhood: Does Income Matter?"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2, pp. 1154–67.
- Weissberg, R., K and Seligman, M. (2003), "Prevention that works for children and youth: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 58, pp. 425–432.
- Werthamer-Larsson, L., Kellam, S. G. and Wheeler, L. (1991), "Effect of first-grade classroom environment on shy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and concentration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9, No. 4, pp. 585–602.

Article Received: 2023. 11. 06

Revised: 2023. 12. 06

Accepted: 2023. 12. 16

메소아메리카의 시·공간 융합 개념: 나와틀 전통의 내재적 이원론과 우주론적 4분법 모델을 중심으로*

권봉철**

단독/메소아메리카학 박사

ABSTRACT

Mesoamerican convergent space-time concept. Focused on the immanent dualism and cosmological tetralogy model in the Nahuatl tradition: The concept of space-time, which forms a core part of the cosmological worldview in the Mesoamerican civilization, is analyzed through the immanent dualism and the cosmological tetralogy model of the Nahuatl tradition. The knowledge accumulated through years of observation of nature, especially celestial observations centered on the sun, led to the formation of three distinctive calendar systems (*Cempohuallapohualli*, *Tonahpohualli* and *Xiuhpohualli*). This perception of space centered on the four cardinal directions and the unique concept of space-time convergence using a vigesimal system served as the ideal cognitive model for the Mesoamerican tradition. The constant cycle of immanent dualism and the cosmological tetralogy system formed the prototypical model of Mesoamerican culture. This cultural element common to all of Mesoamerica has found concrete examples in the Postclassic Nahuatl tradition, as well as a wealth of Classical Nahuatl sources.

Keywords: Mesoamerica, convergent space-time concept, Nahuatl, immanent dualism, cosmological tetralogy / 메소아메리카, 시·공간 융합 개념, 나와틀, 내재적 이원론, 우주론적 4분법.

* 이 연구는 본인의 박사 학위 논문 제4장 “La observación del Sol en la tradición náhuatl”을 바탕으로 하여 보완한 것임.

** BongCheol Kwon holds a PhD in Mesoamerican Studies from the 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 (mesoamerica@hanmail.net).

들어가는 말

우리 인간이 인지하는 현상 세계는 대상 그 자체라기보다는 대상과 우리가 지각하는 정신 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식은 주체와 객체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각 지역의 문화는 고유한 인식론적 체계를 가지게 되고, 인간은 그 환경 속에서 체득한 지식을 통해 진화해 왔다. 특히 전통 사회에서는 자신의 인식론적 우주 질서 속에서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세계관을 유지해 왔다. 메소아메리카의 전통에서는 이러한 세계관을 코스모비전(Cosmovision), 즉 우주론적 세계관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메소아메리카 ‘문명’에서 우주론적 세계관의 핵심 부분을 이루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나와틀 전통의 내재적 이원론과 우주론적 4분법(cosmological tetralogy) 모델을 통해 분석한다. 메소아메리카 문명권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자체의 분류체계(taxonomy)와 명명법(nomenclature)을 통해 인지하여 개념화했다. 즉, 오랜 기간 자연 관찰, 특히 태양을 중심으로 한 천체 관측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독특한 방식의 3가지 캘린더 체계를 형성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 네 방위 공간 인식과 20진법 체계를 활용한 고유한 시·공간 융합 개념은 메소아메리카 전통의 이상화된 인지모델(Idealized Cognitive Model, ICM: Lakoff 1987, 68-76)로서 작용하였다. 내재적 구도의 이원론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우주론적 4분법은 곧 메소아메리카 문화의 프로토타입(prototype) 모델을 형성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페인인들이 도래하기 이전의 메소아메리카 시·공간 개념이라는 내부 자체 논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한다. 다른 존재 양태를 지니는 고유한 문명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옛 원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고사본들(codices)과 고고학적 유물들을 1차 자료로 분석한다. 나와틀 전통의 명명법을 통한 언어적 표현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고전 나와틀어(Classical Nahuatl)의 어원적 분석과 문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식민지 기간 동안에 복원되거나 제작된 사료들은 부분적으로 참조했다. 식민지 시기의 사료들은 다양한 지역과 상이한 전통의 민족지적 자료가 혼재되어 있고, 가톨릭 세계의 관점과 영향으로 인해 잘못 해석되거나 의도된 서술이 많아 비판적 시각과 취사선택에 체계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원론, 내재적 구조와 초월적 구조

메소아메리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원론이라는 개념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온 문명권 자체의 고유한 논리를 의미한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지역 내에서 상호 역사·문화적 교류를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고유한 논리를 설명하는 우주론으로서 내재적(immanent) 구조의 이원론이다.

지역의 자연환경이라는 주어진 공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옥수수 중심의 농사 체험(體驗)은 시·공간 속에서 변화해 가는 모든 존재자의 모습을 내재적 섭리로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 변화의 원리는 메소아메리카 전통의 우주론적 세계관(cosmological worldview)¹에 내포되어 있다. 끊임없는 이원론적 순환의 과정에서 수렴과 확장, 상호 협력과 적대를 이루는 변화 속에는 내재적 관계의 존재론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²

전통사회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은 각 문화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관점을 넘어 존재하는 다른 가능성을 전제할 때 비로소 그 세계를 이해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재적 이원론이라는 인식론적 관점을 지니는 메소아메리카 문화에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나 일련의 초월적 가정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재적 이원론의 세계에서는, 객관적인 실체가 별도로 존재하여 그 실체를 재현하거나 추상(抽象)하는 초월적 개념보다는 시간과 공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인지 모델에 기초한 개념을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

스페인인들이 현재의 멕시코 땅에 상륙했을 당시 이들이 지니고 있던

1 우주론적 세계관은 코스모비전(Cosmovision)이라는 용어를 어원적 관점에서 의미를 이해한 것이다. Cosmovision이라는 개념 자체가 Cosmos와 Vison이라는 두 단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용어이고, 의미 맥락에서는 전통사회의 한 문화권이 자신의 고유한 우주론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관을 나타낸다. 이러한 입장은 나와틀(Nahuatl, /nawaʎ/) 전통의 코스모비전 연구자인 Johanna Broda 교수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한 것이다(Broda 1996, 453).

2 메소아메리카 전통의 코스모비전에 관해서는 López Austin의 3부작 연구(2016)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최근의 메소아메리카 연구에서 코스모비전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경향은 Gabriel Kruehl(2021, 41-64) “Los caminos olvidados de la cosmovisión mesoamericana” 참조.

사고방식은 르네상스 유럽의 에피스테메, 즉 초월의 에피스테메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Johansson 2019, 13-17).

초월적 인식론은 대상과 주체, 실체와 외관, 신과 인간 등을 날카롭게 구분하여 구별한다. 알아야 할 사실이나 대상과 관련하여 대상은 인식 주체를 초월한다. 초월적 계획에 따르면 그것은 현상 세계에 표현되고 주체는 현실의 본질을 개념적으로 추상화하여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가정은 객관화 및 분석적 개념으로 발전하여 지식의 진보로 이어진다.

정복 전쟁 당시의 서구 초월적 이원론은 고대 그리스 철학 이래 오래된 전통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타자를 판단하고 배제하는 배타적 양분론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Sahagún이 기록한 12명의 프란체스코 사제와 나와를 원로 지식인들과의 대화(Sahagún 1986, 100-205) 내용을 보면 정복 전쟁의 무력 충돌 이상으로 두 개의 상이한 에피스테메가 부딪힌다.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독백에 가까운 강요와 인식론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부 내지는 항변이 이어진다.

존재 자체는 인간의 지각으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통 사회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우주론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세계, 즉 상이한 에피스테메 체계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프로토타입의 개념: 분류체계와 명명법

인간의 인지(cognition) 능력과 언어 사용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다. 한 문화권이나 개인이 지니는 세계관 역시 우리의 인지 작용과 언어생활에 결정적인 프레임으로 작용한다. 인지언어학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는 언어를 형성하고, 또 언어가 인지를 형성한다(Kövecses 2006, 334). 그러나 언어는 그 언어 사용자의 인지에 영향을 주지만 결정짓지는 않는다.

우리의 지각 세계 대부분은 모국어라는 렌즈를 통해 이해되지만, 언어적 필터 없이도 많은 부분을 인지할 수 있다. 언어학자들은 언어와 지각에 대한 ‘전통적인 보편주의 대 상대주의 논쟁’의 틀에 갇히기보다는 언어와 인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gier and Kay 2009,

439).

마찬가지로 개념화는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측면을 구성하지만 ‘관습과 경험 자체에 의해 제약’(Croft and Cruse 2008, 105)을 받기 때문에 문화사적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나아가 관찰자와 대상은 가변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나 인간의 인지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지각된 현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자연계의 현상은 연속적이고 아날로그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 세계를 단순화하고 분류하는 것이 요구된다. 대상과 사건을 분류하고 그룹 짓는 것은 인지하고자 하는 것을 개념화하려는 정신 행위이기도 하다. 범주화할 수 있다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효과적인 인지 능력이다. 효율성을 위해 인지의 복잡성을 줄이고 점점 더 도식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문화적 코드와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인지과학 이론의 발전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유지되어 온 전통적인 개념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범주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프로토타입 이론의 범주화 개념은 1970년대 중반에 Rosch(1978, 27-48)의 심리언어학적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범주는 위계적 등급을 지니고 있다. 중심부에는 이른바 원형(prototype)이 위치하고 그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핵심적 지위가 낮은 등급은 주변부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용어의 전형적인 예시를 분석한 다음 다른 새로운 것의 특징과 비교하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Rosch의 연구에 따르면(1978, 27-48)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물을 분류할 때 모든 사물이 한 범주의 동등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의 기준은 각 문화의 에피스테메(episteme)와 이해를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와 얽혀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Wittgenstein의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에 대한 연구(2017, 65-66)와 함께 원형 이론은 모든 개념이 백과사전적 지식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이상화된 인지 모델’로 발전하게 되었다(Lakoff 1987, 68-76). 언어적 의미와 언어 외적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언어에 대한 지식은 인지 모델에 의해 형성된 세계에 대한 지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메소아메리카의 시·공간 융합이라는 개념은 태양의 움직임을 통해서

변화하는 위치와 공간 이동에 따르는 시간을 범주화한 것이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분류 체계는 캘린더 시스템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각각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표(index)는 고유한 명칭으로 표현된다. 범주화 자체는 메소아메리카 전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명명법은 각자의 지역 생태계와 언어 전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나와틀어 전통에서 형성된 양태를 통해 메소아메리카의 시·공간 융합 개념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20진법과 메소아메리카 캘린더의 체계

20진법이라는 분류체계는 메소아메리카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표기 방식은 점(•)과 가로막대(—)를 이용한 단순한 방식 같지만, 자릿수 개념과 함께 19수 다음에 20에서 단위가 완성됨을 표시하기 위한 빈자리에 해당하는 0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 다섯 수가 한 단위로 분류되어 4그룹으로 구성된 20진법이 기본 구조이다. 이렇게 20진법 단위는 20수의 곱으로 단위가 20, 400, 8000, 16000 같은 방식으로 바뀐다. 하지만 마야의 장주기 달력 체계에서는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 20 다음에 360(20×18개월), 7200처럼 계산했다(Chung 2020, 226).

이러한 방식의 20진법 자릿수 개념을 통한 체계는 이미 메소아메리카의 최초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올메카(Olmeca)의 유물들에서 나타난다. 이후 마야 문명과 사포테카(Zapoteca) 문명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그리고 메소아메리카 달력 체계 중에서 가장 독특한 마야의 장주기(Long count, Cuenta larga)에서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Chung 2020, 223-244). 기원전 3114년 8월 13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모든 합을 적는 방식이다. 과테말라의 키리과(Quirigua) 유적지에 있는 석주(stela C)에는 그 날짜가 13.0.0.0.0이라는 장주기와 4 아하우(Ahau) 8 쿰쿠(Kumku)의 2가지 캘린더 시스템 기록이 있다. 4 아하우는 메소아메리카 고유의 260일 캘린더로 13이라는 주기(일주일에 해당)와 20진법의 20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4는 13이라는 주기의 세 번째 날짜와 20개 기호 중에서 마지막 20번째 아하우 날짜를 의미한다.

명명법은 각각의 언어 전통에 따라 고대 마야어로는 졸킨(*Tzolkin*, /*colkin*/)³이라 하고, 나와틀어로는 토날포왈리(*Tonalpohualli*, /*tonalpowali*/)라고 한다. 마야의 4아하우는 나와틀 캘린더의 4쇼치틀(*Xochitl*, /*šočił*/, 꽃)에 해당한다. 8쿰쿠는 20진법의 20수 중에서 8번째와 18개월 마야 캘린더, 즉 합, 혹은 하압(*Haab*, /*hāb*/)⁴의 18개의 단위 중에서 마지막 18번째를 의미한다. 나와틀 캘린더에서는 쎄포왈라포왈리(*Cempohuallapohualli*, /*sempowalapowali*/) 캘린더의 8이스칼리(*Izcalli*, /*iskali*/)에 해당한다.⁵

고전기 시대 마야 캘린더 체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주기 시스템은 멕시코 치아파스 주에 있는 마야 유적지 토니나(Toniná)에서 발견된 석주에 기록된 날짜, 즉 서기 909년 1월 13일이 마지막이다(Bernal Romero 2012, 30). 이 날짜는 고전기와 후기 고전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며, 이후 메소아메리카 전역에서 장주기는 사용되지 않고 캘린더 바퀴(Calendar Wheel, Rueda calendárica)만 사용된다. 이 캘린더 바퀴 시스템은 태양력 52년을 한 주기로 형성되며, 20진법 체계를 바탕으로 한 메소아메리카의 260일 캘린더(*Tzolkin*, *Tonalpohualli*)와 365일 캘린더(*Haab*, *Cempohuallapohualli*)의 조합(18,980일)⁶으로 구성된다. 이 체계의 태양력 52년 주기는 260일 캘린더에서 각 방위를 나타내는 기호 4개(갈대, 구석, 집, 토끼)와 13수의 조합(4×13)을 통해서 구성된다. 나와틀 전통에서는 이 캘린더를 쉬우포왈리(*Xiuhpohualli*, /*šiwpowali*/)라고 한다.

이렇게 20진법이라는 전통에서 만들어진 캘린더 체계는 4그룹으로 나누어 지는 메소아메리카 20진법 특유의 분류 체계와 함께 네 방위 공간 의식

3 Chung(2020, 227). Tzolkin 20일: 이믹스(Imix), 익(Ik'), 악발(AK'al), 칸(K'an), 칩찬(Chikchan), 끼미(Kimi), 마닉(Manik'), 라마뜨(Lamat), 물룩(Muluk), 옥(Ok), 추엔(Chuen), 엠(Eb), 벤(Ben), 히스(Hix), 멘(Men), 킵(Kib), 까반(Kaban), 에즈납(Ertz'nab), 까왁(Kawak), 아하우(Ajaw).

4 Chung(2020, 227). Haab 18개월과 나머지 5일: 뽕(Pop), 우오(Wo), 십(Sip), 소츠(Sotz'), 섹(Sek), 술(Xul), 약스킨(Yaxk'in), 몰(Mol), 첸(Ch'en), 약스(Yax), 삭(Sak), 께(Keh), 막(Mak), 칸킨(K'ank'in), 무안(Muwan), 빠스(Pax), 까얍(K'ayab), 콤꾸(Kumk'u), 나머지 5일(우아얍 Wayeb).

5 후기 고전기 시대에는 한 해의 시작이 각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명칭도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6 365일 캘린더 52주기(365×52=18,980일)와 260일 캘린더 73주기(260×73=18,980일)의 조합, 즉 18,980일이 지나면 캘린더 바퀴 시스템의 조합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 조합의 태양력 52년 각각의 연도를 표현하는 캘린더가 쉬우포왈리이다.

이 어우러져 우주론적 4분법으로 시·공간 융합 개념이 형성된다.

이 캘린더 시스템의 체계화는 수천 년 이어져 온 메소아메리카 전통의 옥수수 재배 농경 문화 속에서 형성된 내재적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메소아메리카가 지니는 자연환경과 이 지역의 생태계에서 형성된 인간의 시·공간 인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와틀 전통의 태양 관찰을 통한 시·공간 융합 개념의 체계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3가지 캘린더 시스템(*썸포왈라포왈리*, *토날포왈리*, *쉬우포왈리*)을 다음 장에서 하나씩 살펴본다.

태양의 관찰과 캘린더 시스템의 정립

자연환경과 생태계 속에 살면서 인간은 오랜 관찰과 체험을 통해 고유한 인지 모델을 발전시켜 왔다. 자연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오랜 역사의 결실인 자신의 문화 모델 구조를 통해 이해하게 된다.

고대 메소아메리카 전통의 농경 문화에서는 시·공간적 임시성(temporality)과 순환적 개념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자연의 의인화(personification)라는 인지 체계를 통해 천체(天體)를 관찰자 시점에서 구체화된 경험으로 형성화하게 되었다.

아주 예전부터 메소아메리카에서는 천체 관측이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인 활동을 규제할 목적으로 특정한 별들의 주기를 활용해 왔다(Galindo Trejo 1994, 31). 이러한 의미에서 시·공간적 개념, 특히 캘린더 시스템에서는 태양 중심 모델로 집중되었다(Galindo Trejo 1994, 32).⁷ 최소한 나와틀 전통에서는 달의 주기 계산이 캘린더 시스템에 구조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았고 다만 부차적인 기능으로만 작용했다. 이 분야 전문가인 멕시코 국립대 역사연구소의 Johanna Broda는 자신의 연구에서 "히스패닉 이전 멕시코의 고고천문학과 과학의 발전은 ... 순전히 태양을 중심으로 한 체계였다"라고 구체화하고 있다(Broda 1998, 69).

이러한 유기적인 우주에서 원시적 상황은 어둠으로 특징지어지고 문명은 태양의 여명으로 인식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되었다(López Austin

7 이종득은 논문 “마야의 역력”에서 태양 중심의 캘린더 체계 이외에 ‘비 역력’이라는 명칭으로 음력과 금성력을 논하고 있다(Lee 2008, 129-133).

and López Luján 1999, 17-21). 태양의 여명은 문명의 상징이거나 새로운 시대 기호이고, 때로는 특정 가문의 가계나 종족의 ‘진정한’ 역사의 시작으로 표상되기에 이르렀다.

태양의 수직, 수평관찰

메소아메리카 캘린더 체계의 ‘태양 중심적’ 특성은 오랫동안 학자들에 의해 많이 연구되어 왔다(Broda 1998, 69). 특히 나와틀 문화에서는 고대부터 태양 관측을 기반으로 캘린더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면서 하루 동안에 빛과 어둠이 번갈아 지나고 낮과 밤의 주기가 형성된다. 또한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 관찰자 시점에서 태양은 지구의 동지와 하지 두 극점과 춘분과 추분의 두 극점, 즉 네 지점에서 변별점을 지니게 된다.

하루 주기로 관찰할 때 태양은 거의 수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뜰 때와 저녁에 해가 질 때 뚜렷한 변별적 특징을 통해 관측된다. 나와틀 전통에서는 이러한 완전한 하루(밤과 낮)를 토날리(*Tonalli*)라고 한다. 즉, 토날리는 하루의 완전한 태양 운동을 의미한다. 260일의 토날리를 계산하는 나와틀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의 주기가 완성되며, 이 주기는 운명의 날짜를 세는 토날포알리 캘린더의 기본이 된다.

내재적 이원론의 상대성에서는 모든 것이 총체적이며 상대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다. 구조적으로 상대가 있어야 나의 존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인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태양은 남성으로, 달은 여성으로 인식되고, 하루를 기준으로 볼 때 떠오르는 태양은 남성으로, 지는 태양은 여성으로 표현된다. 상대적 관계에서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며, 동시에 하루의 전반부는 양이고 저녁은 음이 된다. 밤은 같은 방식으로 정반대의 상황으로 인식된다.

이런 방식으로 고대 나와틀 인식론에서 시·공간 개념의 이중성이 다시 한번 더 펼쳐질 때 우주론적 4분법이 된다. 이렇게 시·공간에 대한 4분법적 모델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상계에서 인간의 감각으로 변화하는 현상 자체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루 주기에서 정오(正午, *tonalnepantla*)와 자정(子正, *yohualnepantla*)은 쉽게 관찰되지 않기 때

문이다. 즉, 변화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변별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유비적(類比的, analogical) 표현이나 메타포적(metaphorical)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나와틀 전통의 이러한 표현과 개념은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 드러나며, 주어진 관점은 이러한 인식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Kwon 2023, 126-128).

지평선에서 관찰되는 태양이 뜨고 지며 움직이는 일 년 동안의 과정은 선형적, 즉 좌우의 직선적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이 관찰을 통한 개념화는 메소아메리카의 문명 모델에서 수평 개념의 캘린더와 좌선(levorotatory) 방향 의식을 형성하여 1년 365일 태양력, 즉 섴포알라포왈리와 52년 주기 캘린더인 쉬우포왈리의 기반이 되었다(Kwon 2023, 128-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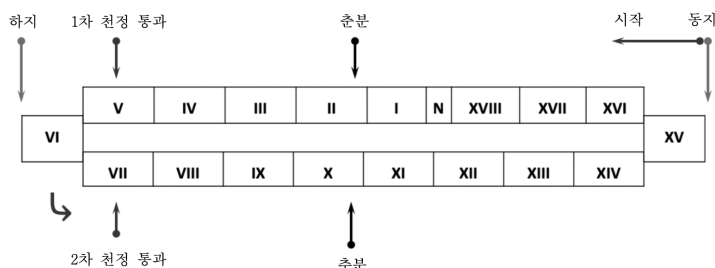
지평선에서 태양이 뜨는 지점은 동지부터 하지까지 직선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하지에서 다시 원래의 동지로 되돌아간다. 춘분과 추분에는 정중앙에서 태양이 떠오르며 일 년 주기의 궤적을 4등분 하게 된다.

나와틀 전통에서 이러한 태양의 지평선 관찰 전통은 멕시코 중앙고원 지대, 특히 테오티와칸의 고대 관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1924년 고고학자 프란스 블롬(Frans Blom)은 마야 유적지 우악삭툰(*Uaxactun*)에서 건물의 천문학적 기능을 처음으로 발견했다(Aveni 2005, 314). 태양은 여름 첫날에는 북쪽 건물 위로, 겨울 첫날에는 남쪽 건물 위로 떠오르고 춘분과 추분에는 중앙에 있는 건물을 통과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명확하게 관찰된다.

나와틀 전통의 대표적인 마지막 도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테노치티틀란(*Tenochtitlan*)의 대신전 템플로 마요르(Templo Mayor) 역시 이러한 태양의 수평 관찰과 태양 정렬 현상을 보인다. 태양의 움직임에 대한 연간 수평 관찰을 기반으로 체계화되고 도식화된 문명의 모델이 건축물로 구체화된 모습이다. 태양의 수직, 수평 관찰, 즉 하루 주기와 일 년 주기 태양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와틀 전통에서 형상화되는지 각각의 캘린더 시스템을 분석해 본다.

365일 캘린더 (셈포왈라포왈리, *Cempohuallapohualli*)

일 년 주기의 태양력은 365일을 기준으로 20진법에 따라 나누게 되면 18개월이 된다. 그리고 5일이 남는다. 20진법에서 숫자 20은 완전체, 완전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나와틀어로 셈포왈리(*cempohualli*)는 완전하다는 의미의 셈(*cem*)과 ‘계산하다’, ‘읽다’라는 동사(*pohua*)의 명사형(*pohualli*)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틀라포왈리(*tlapohualli*)라고 하는 *pohua* 동사의 일반 명사형이 더해져서 *cempohuallapohualli*라는 복합어가 만들어진다.⁸



출처: Kwon 2023, 133.

그림 1. 태양의 관찰과 1년 주기 셈포왈라포왈리 18개월 배치도

셈포왈라포왈리는 고전 나와틀어의 포함어(抱合語, Polysynthetic language) 특성과 음운학적 내부 논리에 따라 명사절을 형성하고, 다시 명사로 전용된 것이다. 나머지 5일은 365일 중에서 20일 단위의 18개월을 구성하고 남는 부분이다. 나와틀어로 네몬테미(*Nemontemi*)라고 하는 데 ‘덧붙여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Johansson 2012, 64-70). 그러나 이 나머지 5일은 3개의 캘린더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8 나와틀 전통의 20일 단위 18개월 캘린더 시스템의 명칭 셈포왈라포왈리(*Cempohuallapohualli*)는 Sahagún의 정보제공자들이 기록한 초기 나와틀 필사본에 기록되어 있다. 나와틀어는 형태론에 따른 언어 유형의 분류로 볼 때 포함어에 속한다. 핵심 단어 앞뒤로 여러 접사나 다른 단어의 어간을 붙여서 한 문장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기본적으로는 명사절이나 동사절을 형성한다(Andrews 2003, 45-49). 특히 고전 나와틀어에서는 다양한 불변화사, 혹은 소사(小辭)와 함께 구문론을 형성한다. 그리고 현대의 여러 나와틀어에는 사라져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상이한 문법 체계가 사용되었다(Kwon 2023, 61-86).

하게 된다.

이 캘린더 설펜왈라포왈리 시스템은 1부터 20까지가 첫째 날부터 스무 번째의 날을 의미하게 된다. 토날포왈리의 260일 캘린더에서 20일이 각각 고유한 이름을 지니는 것과 비교가 된다. 둘 다 20일을 단위로 하므로 주의 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5일은 18번째 개월 마지막에 위치한다. <표 1>을 참조하면 토날포왈리와의 구분이 명확해진다.

표 1. 설펜왈라포왈리(Cempohuallapohualli) 캘린더 18개월의 명칭과 날짜

순서	이름 (나와틀어, 음가)	날짜
1	<i>Atl Cahualo</i> , /āłkāwalo/	3월01일- 3월20일
2	<i>Tlacaxipehualizli</i> , /ł ākašipēwalisł i/	3월21일- 4월09일
3	<i>Tozoztontli</i> , /tosostōnł i/	4월10일- 4월29일
4	<i>Huey Tozoztli</i> , /wēyitososł i/	4월30일- 5월19일
5	<i>Toxcatl</i> , /toškał /	5월20일- 6월08일
6	<i>Etzalcualiztli</i> , /ečalk*ālisł i/	6월09일- 6월28일
7	<i>Tecuilhuitontli</i> , /tēk*ilwitōnł i/	6월29일- 7월18일
8	<i>Huey Tecuilhuitl</i> , /wēyitēk*ilwił /	7월19일- 8월07일
9	<i>Tlcaxochimaco</i> , /ł ašōčimako/	8월08일- 8월27일
10	<i>Xocotlhuetzi</i> , /šokoł weči/	8월28일- 9월16일
11	<i>Ochpaniztli</i> , /očpanisł i/	9월17일-10월06일
12	<i>Teotleco</i> , /teōł eɾko/	10월07일-10월26일
13	<i>Tepeilhuitl</i> , /tepēilwił /	10월27일-11월15일
14	<i>Quecholli</i> , /kečōli/	11월16일-12월05일
15	<i>Panquetzaliztli</i> , /pankečalisł i/	12월06일-12월25일
16	<i>Atemoztli</i> , /ātemōsł i/	12월26일- 1월14일
17	<i>Tititl</i> , /titił /	1월15일- 2월03일
18	<i>Izcalli</i> , /iskali/	2월04일- 2월23일
N	<i>Nemontemi</i> , /nemontemi/	2월24일- 2월28일

출처: Kwon 2023, 133.

주: 날짜는 Sahagún 자료를 바탕으로 그레고리안 캘린더 체계와 비교해 재구성하고, 나와틀 이름의 의미는 주석 9에 고전 나와틀어의 포함어 성격을 고려하여 명사 형태로 표현했음.

18개의 20일 단위는 각각 고유한 이름을 지니고 있다.⁹ 그러나 각 하루 문화권이나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날짜와 순서도 상당

9 설펜왈라포왈리의 18개월 명칭은 나와틀 전통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이름이 발견되지만, Sahagún의 자료에 따른 이름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잔류, 2. 사람 가죽 벗기기, 3. 작은 경계, 철야, 4. 큰 경계, 철야, 5. 기뻐, 6. 강낭콩 타말 먹기, 7. 군주의 작은 축제, 8. 군주의 큰 축제, 9. 만물에 환화하기, 10. 열매가 떨어짐, 11. 길 쓸기, 12. 신의 강림, 13. 산악 축제, 14. 저어새, 15. 깃발 세우기, 16. 물 내리기, 17. 팽팽히 당김, 18. 자라남, 성장

히 다른 경우가 있다. 메소아메리카의 20진법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전기 마야 시대의 장주기 전통이 없어지면서 후기 고전기에는 메소아메리카 전역에서 캘린더 바퀴 시스템만 사용되었다. 당연히 지역마다 시기에 따라 시스템의 일관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표1은 섴포알라포왈리 캘린더의 이름과 날짜를 Sahagún(2000, 135-175)의 기록에 따라 현대의 그레고리안 달력에 상응해 표시한 것이다.

260일 캘린더 (토날포왈리, *Tonalpohualli*)

260일 캘린더의 특징은 각각의 날짜가 고유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이름은 고전 나와틀(Classical Nahuatl)¹⁰로 표기되며, 현대 나와틀어로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다. 마야 쏘킨의 20개 기호와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20개의 이름을 가진 날짜는 각각의 아이콘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정복 전쟁과 기독교 전파 과정을 거치며 옛 고사본들이 파괴되거나 분실됨에 따라 다양하게 유럽식으로 새로운 아이콘이나 픽토그램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토날포왈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60일이 13이라는 숫자 단위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즉, 13x20일로 구성된다. 13일의 단위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7일의 일주일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7이나 13이라는 단위는 자연환경에서 현상적으로 쉽게 나타나는 구분 단위가 아니다. 즉, 이것은 고도의 문화적 상징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한 사회의 관습을 나타내는 고유한 문화적 특징이기도 하다.

Sahagún과 나와틀 원주민 귀족 자제들로 구성된 정보제공자들이 16세기 중반에 나와틀어와 스페인어를 병기해서 작성한 피렌체 고사본에는 260일 토날포왈리 시스템이 천연색 그림과 함께 표현되어 있어 이해에 도움이

10 고전 나와틀어는 스페인과의 정복 전쟁 당시 멕시코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쓰였던 나와틀어를 지칭한다. 15개 자음 음소 /*n m s ſ y w p t k kʷ λ ʔ ɕ ʧ*/ 와 4개의 단모음 /*a e i o*/과 4개의 장모음 /*a ē ī ō*/으로 구별하여 8개 모음이 쓰였다. 그리고, 당시의 스페인어에 없었던 음가를 표현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알파벳을 겹쳐서 나와틀어 음소를 표현했다. 다음의 알파벳 조합 *ch*, *cu* (*cuh*)/*uc* (*cuh*), *hu*/*uh*, *cu*, *tz*, *tl* 은 그 음가가 /*ʧ kʷ w k ɕ λ*/로 나타난다. 특히 고전 나와틀어는 이중, 삼중 모음이 없어 각각의 모음이 한 음절을 형성한다. 나와틀어는 스페인어와는 전혀 별개의 언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Kwon 2023, 22-25).

된다(*Códice Florentino* 1979, Vol.4, Fol.34).

표 2. 토날포왈리(*Tonalpohualli*) 캘린더의 20일 명칭

순서	이름 (나와틀어, 음가)	이름(한국어 표기, 의미)
1	<i>cipactli</i> /sipakʌ i/	시팍틀리, 악어
2	<i>ehecatl</i> /eʔekaʌ /	에헤텔, 바람
3	<i>calli</i> /kali/	칼리, 집
4	<i>cuetzpalin</i> /kʷeʔpalin/	퀘쓰팔린, 도마뱀
5	<i>coatl</i> /kōāʌ /	코아틀, 뱀
6	<i>miquiztli</i> /mikiʌ i/	미키스틀리, 죽음
7	<i>mazatl</i> /masāʌ /	마사틀, 사슴
8	<i>tochtli</i> /tōčʌ i/	토츠틀리, 토끼
9	<i>atl</i> /āʌ /	아틀, 물
10	<i>itzcuintli</i> /iʔkʷinʌi/	이쓰퀀틀리, 개
11	<i>ozomatli</i> /osomazʌ i/	오소마틀리, 원숭이
12	<i>malinalli</i> /malinali/	말리날리, 꼬인 줄(풀)
13	<i>acatl</i> /ākaʌ /	아카틀, 갈대
14	<i>ocelotl</i> /ōsēlōʌ/	오셀로틀, 재규어
15	<i>cuauhtli</i> /kʷāwʌi/	콰우틀리, 독수리
16	<i>cozcacuauhtli</i> /kōskakʷāwʌi/	코스카콰우틀리, 소필로테
17	<i>olin</i> /olin/	올린, 움직임
18	<i>tecpatl</i> /tepaʌ/	텍파틀, 규석
19	<i>quiyahuilit</i> /kiyawʌiʌ/	키야위를, 비
20	<i>xochitl</i> /šočiʌ/	쇼치틀, 꽃

출처: Kwon 2023, 138.-139. 20개

주: 날짜 각각의 이름은 한국어에 없는 음가(각주 10)와 음절 구조를 고려해 최대한 비슷하게 표기했고, 의미는 고전 나와틀어 기준임.

언급한 Sahagún의 그림에는 1부터 13까지 숫자가 적혀있고, 같은 방식으로 20번이 반복되어 있다. 스페인어로 쓰인 식민지 시기 사료들에서 첫 번째 줄(종종 *casa*로 표현) 몇 번째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많은 경우 잘못 이해되고 있다.

이 토날포왈리 시스템은 메소아메리카 문화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가장 독특하고 독자적인 것이다. 마야 문화에서는 쓸킨 캘린더에 해당하는 것이다. 독일의 메소아메리카 학자인 Eduard Seler는 토날포왈리 캘린더의 대표적인 고사본인 *Codex Vaticanus* No. 3773을 연구하면서 토날포왈리는 종교적 지식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표현했다 (Seler 1903, 3). 토날포왈

리는 태어나는 아기의 운명을 가늠하고 신이나 영웅의 상징적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다.

메소아메리카 연구 분야에서도 토날포왈리의 내재적 원리 자체를 이해하기가 가장 어렵다. 고도로 상징화된 의미를 지나다 보니 맥락이 다른 시각이나 외부인이 보기에는 난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같은 원주민 후손이라 할지라도 시간적 격차가 있고, 언어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에피스테메 층위에 있기 때문에 난해하고 이해를 못 하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렇게 시·공간을 범주화하고 기호를 통해서 고도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면서 인간의 운명과 다가오지 않은 미래까지 범주 틀을 통해 이해하고자 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계일 수밖에 없다. 메소아메리카 문화에서는 13수 단위와 20진법을 통해 260가지 기본 범주 틀을 만들어 냈고, 3가지 캘린더 시스템의 조합으로 18,980일이라는 각각의 시간과 공간의 기호를 통해 시·공간의 한계 지워진 틀 속에 사는 인간의 운명을 가늠하고자 했던 것이다.

전통사회의 동북아 문화권도 비슷한 발상으로 음양 이원론에서 출발해 4상과 8괘, 그리고 나아가 64괘로 주역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384 효에 이르러서는 384개의 범주 틀을 통해 고도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주역이 신탁받는 데서 시작해서 인간의 운명을 점치고자 하는데 이르면 세계를 범주화해서 이해해 보고자 하는 미래학이 되는 것이다 (Bang 2010, 107-133).



출처: Códice Borbónico, 1993, fol.4.

그림 2. 토날포왈리(Tonalpohualli) 캘린더의 13일 주기

<그림 2>는 대표적인 원본 토날포왈리인 보르보니쿠스 고사본의 한 페이지이다. 내용을 보면 1쇼치틀부터 13말리날리가 표시된 것으로 볼 때 4번째 13수 단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된 20개의 13주 단위는 주마다 대표하는 내용이 있다. 그림 왼쪽 윗부분의 제일 큰 사각형 안에는 해당 내용이 픽토그램(pictogram)과 기호들로 표현되어 있다. 왼쪽 인물이 원주민 북(huehuetl)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입에서 나오는 고리 모양은 말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도상학적 표현이다. 그 위에 꽃이 얹혀있으니, 꽃과 노래(Xochitl Cuicatl)라는 나와틀 메타포가 시적인 것을 상징하므로 이것은 곧 노래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시나, 음악 등 예술적인 표현에 이 그림이 많이 인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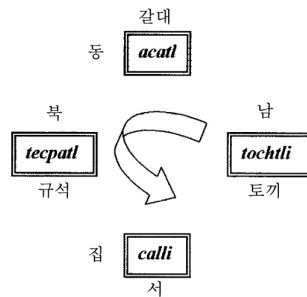
52년 캘린더 (쉬우포왈리, *Xiuhpohualli*)

연도를 계산하는 캘린더는 고전 나와틀어로 쉬우포왈리라고 한다. 한 해, 두 해라고 할 때 연도를 나타내는 의미의 쉬위틀(*Xihuitl* /*šiwil*)과 ‘계산하다’, ‘읽다’라는 동사 *pohua*의 명사형 *pohualli* 라는 두 개의 명사가 합해서 복합명사를 만들게 된다.

나와틀 전통의 연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토날포왈리의 20개 기호 중에서 4개, 즉 토끼(*Tochtli*, 토츠틀리), 갈대(*Acatl*, 아카틀), 규석(*Tecpatl*, 텍파틀), 집(*Calli*, 칼리)과 1부터 13까지 숫자를 차례로 대응(4×13)시켜



a



b

출처: Kwon 2023, 140; Durán 1995, Vol.2, Lám.36.

그림 3. 쉬우포왈리 캘린더의 좌회전과 52년의 4방위 배치도.

총 52개의 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이때 토끼, 갈대, 구석, 집은 각각의 연도, 즉 시간을 표상하는 기호이지만 동시에 남쪽, 동쪽, 북쪽, 서쪽을 좌선하는 순서대로 돌아가며 공간을 대표하게 된다.

<그림 3>은 Durán(1995, Vol.2, Lam. 36)의 자료에 있는 내용을 해석한 것이다. 각 방위 별로 갈대, 구석, 집, 토끼가 도상과 숫자를 표현하는 둥근 점으로 표현되어 있다. 붉은색의 아라비아 숫자와 좌선하는 점선의 표시는 이해를 위해서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Kwon 2023, 140-143). 중앙에서부터 시작해 1 *acatl* (1), 2 *tecpatl* (2), 3 *calli* (3), 4 *tochtli* (4) 순서로 한 바퀴 회전하면, 다음 칸의 5 *acatl* (5), 6 *tecpatl* (6), 7 *calli* (7), 8 *tochtli* (8), 또 한 바퀴가 다 돌면 그다음 칸, 또 그다음 칸으로 이동해서 결국 10 *acatl* (49), 11 *tecpatl* (50), 12 *calli* (51), 13 *tochtli* (52)에 이르러 한 사이클을 완성하게 된다.

쉬우포왈리는 연도만 계산하는 캘린더이므로 연대기 기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특히 정복 전쟁 이후, 즉 식민지 초기인 16, 7세기에 옛 고사본들을 복제하거나 복원한 것들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림 4는 멘도사 고사본(*Códice Mendoza*)의 한 부분으로 쉬우포왈리 캘린더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식민지 시기에 만들어진 연대기 기록을



출처: *Códice Mendoza*, 1985, lám. 2r.

그림 4. 멕시코 테노치틀란의 1325-1375년을 나타내는 쉬우포왈리 고사본

나타낸다. 누에바 에스파냐 초대 부왕(Virrey)이었던 Mendoza의 명령으로 제작되어서 이름이 이렇게 붙었다. 책의 전반부는 연대기식으로 연도를 옛 방식, 즉 사각형의 푸른색 (하늘색, 터키석 색깔) 모양 안에다 연도와 방위를 표시하는 갈대, 규석, 집, 토끼 중에서 하나의 기호와 1부터 13까지의 숫자 조합으로 이루어진 연도 표시에 따라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림 왼쪽 위의 연도는 2칼리(*calli*, 집)의 해로 1325년을 나타낸다.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 멕시코-테노치티틀란(Mexico Tenochtitlan)에 정착한 해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13쇼치틀까지 51년간의 연도가 차례로 그려져 있다. 이 기간은 초대 틀라토아니(*tlahtoani*)인 아카마피츠틀리(*Acamapichtli*)가 등극하기 전까지 멕시코의 건립과 초기 정복 등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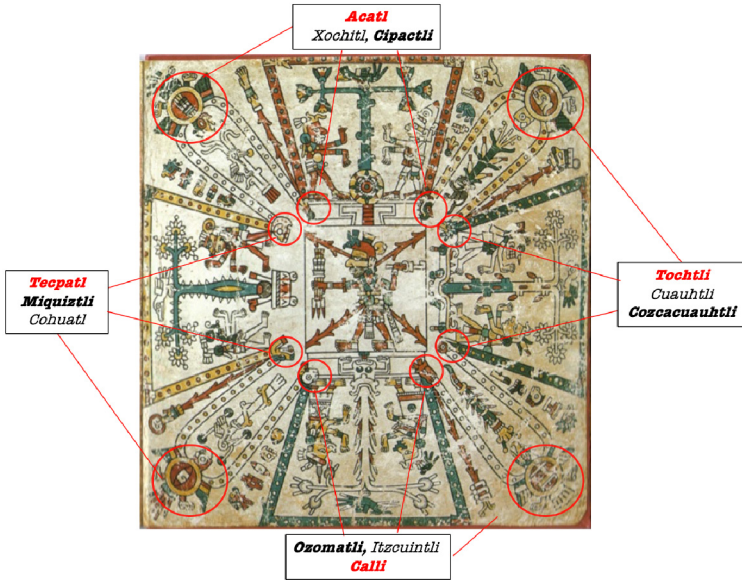
중앙에는 독수리가 선인장 위에 앉아 있고, 4방위와 중앙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짝을 지어 표현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역사·신화적인 인물들로 나와틀 전통의 역사의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식민지 시대 고사본이다.

시 · 공간의 융합 모델

이제까지 살펴본 나와틀 전통의 3가지 캘린더 시스템(*Cempohuallapohualli*, *Tonalpohualli*, *Xiuhpohualli*)은 아래의 그림 5, 페제르바리-마에르 고사본(*Códice Fejérváry-Mayer*, 2005, fol.1)에 잘 표현되어 있다. 글자와 색깔로 표시가 된 부분들은 필자가 해석을 위해 설명을 추가한 내용이다(Kwon 2023, 147).

우선 먼저 네 모퉁이에 있는 4개의 기호는 연도와 방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쉬우포왈리 캘린더와 연관이 있다. 붉은 글씨로 갈대(*Acatl*), 규석(*Tecpatl*), 집(*Calli*), 토끼(*Tochtli*)라고 표시했다. 이 고사본에 그려진 내용은 기본적으로 20개의 토날리 기호가 13수 단위의 묶음 20개로 나뉘어 4방위에 배치된 260일을 나타낸다. 중앙에는 불과 시간의 신인 쉬우테욱틀리(*Xiuhteuctli*)가 4방위로 분할되어 있는 밤의 신 테스카틀리포카(*Tezcatlipoca*)와 연결되어 있다. 4정방위에는 각각의 우주 나무를 좌우한 쌍의 신들이 마주 보고 있으며, 독자적인 우주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즉, 이 복잡한 그림은 우주 시작의 시·공간 설계도면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 Kwon 2023, 147; *Códice Fejérváry-Mayer*, fol. 1

그림 5. 나와틀 전통의 3가지 캘린더가 서로 맞물려 하나로 작동하는
우주론적 4분법 모델

맨 위의 사각형에서 나무의 뿌리 부분에 신전이 보이고 그 위에 태양이 얹혀 있으니 동쪽을 나타낸다. 연도와 방위를 상징하는 갈대는 왼쪽 모퉁이 동그라미 속에 위치해 역시 동쪽을 표현한다. 토날포왈리 시스템 전체의 260개 기호가 따라가며 그려져 있어 차례로 읽으면 된다. 시·공간을 융합해서 우주의 네 방위로 나누어 배분되므로, 차례로 좌회전하면서 하나씩 짚어 가다 보면 3개의 캘린더 시스템이 서로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되어있다. 그러나 3가지 캘린더 조합의 총수는 18,980일이나 되므로 이것을 일일이 다 표현할 수는 없다. 그래서 13이라는 단위는 각을 이루며 한 마디씩 그려져 있고, 그 시작과 끝에는 토날리 기호가 알아볼 수 있게 그려져 있다.

여기에서 순서를 따라가며 계산을 해 보면 365일의 캘린더에서 20일 단

위로 시작되고 끝나는 날짜와 260일의 날짜 기호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게 된다. 365일에서 360일 (20×18) 지나고 나머지 5일은 각각의 방위에 5일씩 배속이 되고 4년이 지나서 원래 시스템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4가지 연도마다 배속되는 나머지 일수의 날짜 기호는 변함없이 일정한 패턴을 지니고 예측이 가능해진다. 붉은 글자와 함께 쓰인 날짜 기호는 켐포왈라포왈리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고, 좀 더 진하게 쓰인 날짜는 해당 연도에 배속되는 나머지 5일의 첫째 날짜와 항상 동일하게 된다. 물론 토날포왈리의 13수와 켐포왈라포왈리의 20수는 그림을 따라가며 하나씩 계산해야 한다. 이 복잡한 시스템은 18,980일의 태양력 52주기와 260일 캘린더 73주기, 연도를 표시하는 52개의 기호 조합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조합된 각각의 날짜들은 고유한 기호, 즉 도상과 숫자라는 지표를 획득하게 되어 고도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각각의 고유하게 범주화된 시·공간의 융합 모델들은 신성한 의미를 지니는 우주의 신성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켐포왈라포왈리의 52주기, 토날포왈리의 73주기를 돌게 되면 4년마다 늘어나는 하루(leap day)가 합해져서 13수를 이루게 된다.¹¹ 끝없는 순한 우주의 내재적 이원론에서 외부는 상정되지 않으므로 이 각각의 숫자와 기호는 신성 자체를 존재자로 표현되는 것이다.

마야의 마드리드 고사본(*Códice Madrid*) 75-76 페이지에는 앞에서 분석했던 나와틀 전통과 거의 동일한 캘린더 구도가 있다(Paxton 2000, 259). 위쪽이 동쪽으로 되어 있으며 화살표 방향에서 시작하는 마야의 쏘킨 캘린더와 토날포왈리 캘린더가 동일하다. 즉, <그림 5>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마드리드 고사본은 후기 고전기에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고전기의 장주기가 사라지고 나타난 캘린더 바퀴에 바탕을 두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시·공간 융합 개념을 통한 캘린더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문명의 모델로 작용하지만, 그 구체적 적용과 방법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다. 메소아메리카의 태양력 연구에서 Edmonson은 마야 문명권에서 적어도 세 가지 유형의 연도 표기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Edmonson 1995, 351-370). 그러므로 이상적 인지모델로서 문명의 모델을 얘기하는 것이다.

11 이 부분을 정해주는 또 다른 의미 해석이 기능함을 제시하고 있다(Chung 2020),.

이렇게 끊임없는 움직임에 따라 공간이 변하고, 그 변하는 공간에 맞춰 시간이 바뀐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 또한 세계내존재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메소아메리카 문화에서는 시간의 영원성이나 영생을 말하지 않는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변수를 제외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메소아메리카 전통에서 시간과 공간은 항상 융합되어 있다.

문명의 모델과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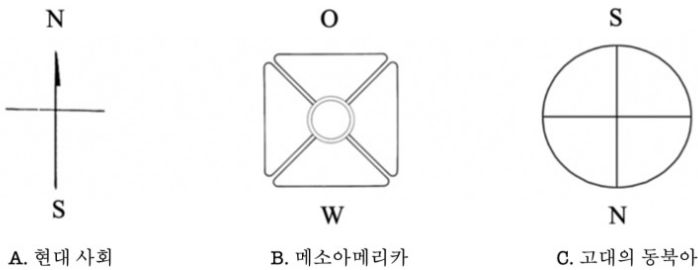
시간과 공간을 범주화하고 각각의 범주를 기호(sign)를 통해 재현한 대표적인 프레임이 나와틀 전통의 3가지 캘린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각 기호 자체는 모델(Model, *Machiyotl*)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은 문명권 별로 다르게 인식되고, 또한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다.

<그림 6>의 A는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도의 방위나 아날로그 시계에서 시간을 시각화할 때 사용한다. 북쪽이 항상 위를 향하고 있다. 물론 관습적인 문화이다. 그러나 예전 전통사회의 동북아 문화권에서 서구의 영향을 받기 전에는 C와 같이 인식하고 표현했다. 고대 주역의 체계에서 복희팔괘(伏羲八卦)와 문왕팔괘(文王八卦)가 그려진 모습과 오행(五行)의 상생, 상극도(相生, 相剋圖) 및 하도, 낙서(河圖, 洛書)의 구도가 이러했다(Zhu 1994, 35-85). 남좌북면(南坐北面)하는 원리는 이후 일상생활과 언어 사용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너무나 당연한 문화의 프레임이 되었다. 따라서 관찰자의 정면에 보이는 산은 통상 남산이 되고, 동궁(東宮)은 왼쪽의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으로 후계자인 왕세자의 거처를 지칭했다. 한 문화권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경제적 효율을 따르게 된다. 누구나 공감하고, 명시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을 굳이 언어로 재삼 표현하는 것은 도리어 소통의 방해 요소가 된다.

시간과 공간의 범주는 기호화를 통한 각각의 모델이 된다. 유한한 시·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자인 인간은 이러한 범주라는 틀 속에서 어느 특정 좌표에 속할 수밖에 없다. 나와틀 전통에서는 토날포왈리라는 캘린더 체계의 260(13×20)개 범주를 통해 인간의 운명을 점치곤 했다. 이 메소아메리카의 기호체계와 패러다임은 고대 동북아의 주역 체계가 64괘와 384효라는 범주와 기호체계를 통해서 우주와 인간의 미래를 점치고자 했던

것과 맥락이 상통한다. 물론 구체적인 범주화 과정과 그 표현 양태는 상당히 상이 하지만 시·공간의 융합 개념을 통해 음양이라는 내재적 이원론, 즉 천지 코스모로지라는 체계 내에서 상호의존하고 보완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승부 작용을 하는 모습은 유사한 양태를 보인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문명 간의 관점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특징은 태양을 관찰하면서 캘린더 시스템 자체가 태양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는 인식 모델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 전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나아가 태양을 의인화해서 개념화했다. 이것은 “인간적 특성을 비인격적 실재들에 할당”(Kim 2007, 95) 하는 것이다.



출처: Kwon 2023, 148.

그림 6. 각 문명간 시·공간 의식에 관한 모델의 비교

우주의 왼편이나 오른편을 사람처럼 인격화된 태양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표현했다. 태양이 춘분과 추분에 정중앙에서 떠오르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지 쪽으로 치우쳐 뜨는 태양은 왼쪽, 즉 남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반면에 여름에는 북쪽으로 높게 떠오르며 천정(Zenith)을 지나게 된다. 이러한 개념은 마야 금석학 학자들에 의해 잘 표현된다. 미국의 마야 문자 해석 학자인 Stuart는 그의 연구에서 태양의 왼손과 태양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해석해 냈다(Stuart 2002, 3-4). 멕시코의 에피그라피스트인 Velásquez García 교수 역시 그의 최근 저서에서, “왼손, 혹은 왼팔(*z'üik ka'*)에 해당하는 것은 남쪽(*noohol*)이고, 오른손 혹은 오른팔(*no'oh k'ab*)은 북쪽(*xaman*)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Velásquez García 2023, 92).

우주나 세계 자체를 인격화하고 인간처럼 태양의 왼손이나 오른손으로 표현하거나 구체적인 체화된 개념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메소아메리카 문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우주론적 질서에서 나와틀어로 왼쪽은 *Opochtli* 이다. 아스테카의 부족 신이 *Huitzil+Opochtli*인 이유이기도 하다. 시·공간의 지배자인 태양이 동지 때 우주의 왼쪽에서 부활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태양은 유비적 표현으로 어린아이로 표시되거나 독수리 대신 연약하고 작은 벌새로 상징된다. 벌새(*Huitzilin*)와 나와틀 우주 질서의 왼쪽(*Opochtli*)으로 구체화된 개념이기도 하다.

나가는 말

메소아메리카의 20진법을 바탕으로 한 숫자 체계는 메소아메리카라는 넓고 다양한 지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요소이다. 내재적 이원론에 기반한 시·공간 융합 개념은 우주론적 4분법을 통해 3가지 캘린더 시스템(*Cempohuallapohualli*, *Tonalpohualli*, *Xiuhpohualli*)을 형성했다. 메소아메리카 전역에서 다양하게 변주되고 응용되었던 캘린더 시스템은 각 하위 문화권의 정치·역사적 상황과 그들의 고유한 언어로 표현되었다.

나와틀 전통의 시·공간 융합 개념은 고고학 자료나 스페인과의 접촉 이전의 원주민 문헌 자료인 고사본들(Codices)을 통해서 직접 이해해 볼 수 있다. 정복 이후 원주민 정보제공자들의 모국어 증언 자료들과 Sahagún이나 Durán 같은 식민지 시기의 사료들은 부분적으로 고대 나와틀 전통의 내부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각각의 민족지 자료의 출처와 맥락이 다르고 당시의 가톨릭 세계관에 입각한 원주민 문화의 이해는 종종 잘못된 해석을 도출하기도 한다.

1년 365일을 20일 단위로 나누었을 때 18개월을 구성하는 캘린더(셈포알라포왈리)의 나머지 5일(*Nemontem*)은 불필요한 존재이지만, 다른 두 개의 캘린더 시스템(260일과 52년 캘린더)과 맞물리며 우주론적 4분법 모델을 형성할 때에는 켜기돌(Key stone) 역할을 한다. 즉, 셈포알라포왈리 캘린더의 52주기($365 \times 52 = 18,980$ 일)와 토날포왈리의 73주기($260 \times 73 = 18,980$)를 돌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쉬우포왈리 캘린더가 4방위로 나뉘지며 1년마다 나며지 5일이 배속되고, 4년마다 각 방위별로 다시 시작해서 13바퀴를 돌면서 메소아메리카의 3가지 캘린더 시스템은 새롭게 부팅된다. 따라서 이 52년 주기마다 새로운 불(Fuego Nuevo)을 점화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3개의 캘린더가 서로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우주론적 4분법, 즉 중앙과 4방위를 나타내는 ‘5점 4각형 형태(Quincunx)’는 나와틀 전통의 문화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아스테카·메시카 문화의 태양의 돌(Piedra del Sol)에서부터 멀리는 테오티와칸(Teotihuacan) 유적지의 토기 파편과 돌기둥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도상으로 자주 등장한다.

이렇게 나와틀 전통의 3가지 캘린더 시스템은 시간과 공간의 융합 개념을 통해 독자적인 우주론의 모델로 형성된 것이다.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류가 오랜 기간 자연환경을 관찰하면서 체득한 인지 모델이다. 즉, 하루의 밤과 낮, 자정(*yohualnepantla*)과 정오(*tonalnepantla*)의 구분을 비롯해서 일년 주기의 동지와 하지, 춘분과 추분을 구분해서 도식화하고 모델(model, *machiyotl*)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우주 자체를 의인화한 메타포 개념(metaphorical concept)을 통해 일상생활과 언어에 스며들게 되었다. 모든 과정은 내재적 이원론에 바탕한 시·공간의 융합적 개념이 4분법적 우주론이라는 원형(prototype)으로 표현된 것이다. 스페인 탐험대가 아스테카 제국에 발을 딛기 전에 제작된 고사본인 페제르바리·마예르(*Fejérváry-Mayer*)와 마드리드 고사본(*Códice Madrid*)에 나타나는 도식화된 기호체계는 메소아메리카 사람들의 고유한 우주 인식 체계이자 독자의 논리를 통한 우주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주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태양의 모델 프로토타입은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모델을 나와틀 전통에서 이해한 것이다. 문명의 모델은 그 문화 속에 있는 각 존재자가 가지는 프레임이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메타포 속에 스며있는 구체적인 표현은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내부 논리 또한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논리는 스페인 식민지 기간 이전에는 ‘태양의 돌’에서 원주민 전통 자체의 도상학적 표현을 통해 나타나기도 했고, 식민지 기간 초기에는 ‘태양의 전설(Leyenda de los soles)’이라는 라틴 알파벳 표기를 통해 언어적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표현들은 그 역사·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해석자(interpretante)의 자의적 해석이 더해지거나 번역자의 언어 논리를 따른다면 번역의 환상(mirrorism of translation)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문명은 인간이 고도의 상징 체계를 통해 이룩해 낸 정교한 구조물이다. 전통 사회에서 하나의 문명은 주어진 자연환경과 생태계 내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체화해 낸 역사적이고 또한 정치적인 체험의 산물이다. 따라서 각 문명의 모델을 이해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기호화 되어가는 과정을 그들 자신의 내부 논리, 즉 그들의 주체적 관점에서 이해해 보는 것이다.

참고문헌

- Andrews, J. Richard(2003), *Introduction to Classical Nahuatl*,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Aveni, Anthoy F.(2005), *Observadores del cielo en el México Antiguo*, Mexico: FCE.
- Bang, In(2010), "The Semiotics of the Zhouyi: The Semiotic Character of the Zhouyi seen from a Peircean Approach," *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No.115, pp.107-133.
- Bernal Romero, Guillermo(2012), "La cuenta larga y la máquina del tiempo", *Arqueología Mexicana*, Vol.19, No.118, pp.30-37.
- Broda, Johanna(1996), "Calendarios, cosmovisión y observación de la naturaleza", in S. Lombardo and E. Nalda(ed.), *Temas mesoamericanos*, Mexico: INAH, pp.471-507,
- (1998). "Arqueoastronomía y desarrollo de las ciencias en el México prehispánico", in Marco Moreno C.(ed.), *Historia de la astronomía en México*, Mexico: FCE, pp.64-101,
- Chung, Hae-Joo(2020), "The Meaning of 13.0.0.0.0 in Mayan Cosmovision",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Vol.39, No.2, pp.223-244.
- Códice Borbónico*(1993), *Descripción, historia y exposición del código borbónico*, Mexico: Siglo XXI.
- Códice Fejérváry-Mayer*(2005), *Arqueología Mexicana, Spacial edition*, No.18.
- Códice Florentino*(1979), Mexico: Gobierno de la República.
- Códice Mendoza*(1985), Barcelona: Círculo de Lectores.
- Croft, William and D. Alan Cruse(2008), *Lingüística cognitiva*, Madrid: Ediciones Akal.
- Duran, Diego(1995), *Historia de las Indias de Nueva España e Isla de la Tierra Firme*(2 Vol.), Mexico: Conaculta.
- Edmonson, Munro S.(1995), *Sistemas calendáricos mesoamericanos. El libro del año solar*. Mexico: UNAM.
- Galindo Trejo, Jesús(1994), *Arqueoastronomía en la América Latina*, Madrid: Editorial Equipo Sirius.
- Johansson, Patrick(2012), "Nemontemi, 'días baldíos'. Abismos periódicos del tiempo indígena," *Arqueología Mexicana*, Vol.19, No. 118, pp.

- 64-70.
- _____(2019), “Año 1 ácarl, 1 caña (1519). Un encuentro de dos epistemes,” *Arqueología Mexicana*, Vol.27, No.159, pp.13-17.
- Kim, Sung-Do(2007), *Guiho, Rideum, Wooju (Symbols, Rhythm, Universe. For Semiotic Imagination)*, Seoul: Ingansarang.
- Kövecses, Zoltán(2006), *Language, Mind, and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uell, Gabriel(2021), “Los caminos olvidados de la cosmovisión mesoamericana”, in Johannes Neurath(et al.), *Cosmopolítica y cosmohistoricidad, una anti-síntesis*, Buenos Aires: SB, pp.41-64.
- Kwon, Bong Cheol(2023), *El saber y el modelo cultural. Una aproximación a la episteme náhuatl prehispánica* (Tesis doctoral), Mexico: UNAM.
- Lakoff, George(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e, Jong-Deuk(2008), “Mayan Calendars”,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Vol.26, No.2, pp.107-138.
- López Austin, Alfredo(2016), *La cosmovisión de la tradición mesoamericana* (3 Vol.), *Arqueología Mexicana*, Special edition, Vol.68, 69, 70.
- López Austin, Alfredo and Leonardo López Luján(1999), *Mito y realidad de Zuyuatán*, Mexico: FCE.
- Paxton, Meredith(2000), “Páginas 75 y 76 del Códice Madrid y el simbolismo del *tzolkin* y del *haab*”, in Constanza Vega Sosa(ed.), *Códices y Documentos sobre México. Tercer Simposio Internacional*, Mexico: INAH, pp.257-269.
- Regier, Terry and Paul Kay(2009), “Language, Thought, and Color: Whorf was half right”, *Trends in Cognitive Science*, Vol.13, No.10, pp.439-446.
- Rosch, Eleanor(1978), “Principles of Categorization”, in Eleanor Rosch and Barbara B. Lloyd (ed.),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Hillsdale: Lawrence Erlbaum, pp. 27-48.
- Sahagún, Bernardino de(2000), *Historia general de las cosas de Nueva España*, Mexico: Conaculta.
- _____(1986), *Coloquios y doctrina cristiana (Los diálogos de 1524)*,

- Mexico: UNAM.
- Seler, Eduard(1903), *Codex Vaticanus No. 3773 (Codex Vaticanus B). An Old Mexican Pictorial Manuscript in the Vatican Library*. Londres: Edinburgh University Press.
- Stuart, David(2002), “Glyphs for ‘Right’ and ‘Left?’”, *Mesoweb*, <http://mesoweb.com/stuart/notes/rightleft.pdf>
- Velásquez García, Erik(2023), *Morada de dioses. Los componentes anímicos del cuerpo humano entre los mayas clásicos*, Mexico: FCE.
- Wittgenstein, Ludwig(2017), *Investigaciones filosóficas*. Mexico: UNAM.
- Zhu, Xi(1994), *Yekhakgyemong (Yi Xue Qi Meng and Commentary)*, Seoul: Yemunseowon.

Article Received: 2023. 11. 30

Revised: 2023. 12. 14

Accepted: 2023. 12. 20

연대기 문학의 시기별 특성과 변화 - 아메리카와 원주민, 정복사를 중심으로 - *

이종득**

단독/덕성여자대학교

ABSTRACT

Periodic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Chronological Literature: Centering on America, Indigenous Peoples, and History of Conquest.

This study divided the various chronicles of Nueva España into two periods (the conquest period, the mexican colonial period),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each period, focusing on three themes (America, indigenous peoples, and history of conquest). The chronology of the first period began from the perspective of european supremacy based on christian centralism. The Americas were the object of conquest and looting under the pretext of christian propagation, and the natives were merely inferior species object to labor exploitation. Some chronicles took the lead in protecting indigenous peoples by informing the outside world of this reality. However, entering the second period, chronology became a tool of colonial authorities to redefine theological and legal status of indigenous peoples and justify spanish conquest and domination. Chronicles from mestizo also appeared, but they could not break away from the mainstream tone centered on christian denominations.

Keywords: Chronological Literature, Periodic Characteristics of Chronicles, America, Indigenous People, History of Conquest/ 연대기 문학, 연대기의 시기별 특성, 아메리카, 원주민, 정복사

* 본 연구는 2022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Jong-Deuk Le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panish at Duksung Women's University, Korea (leejong@duksung.ac.kr).

서문

아메리카 발견과 정복, 그리고 식민 초기의 다양한 상황을 기록한 연대기들이 라틴아메리카에서 하나의 문학사조(연대기 문학)로 자리 잡고, 그 개념과 영역이 확립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콜럼버스 이전의 원주민 문학(literatura precolombina)’이 20세기 전반기에 새롭게 확립되면서, 연대기 문학은 원주민 문학과 바로크 문학 사이에 위치한 하나의 사조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유럽 문학사의 흐름에 끼워 맞추며 문학사적 공백을 메꾼 사조라는 비판도 있었다.

연대기 문학은,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이하 콜럼버스)의 『항해일지 *Diario de a bordo*』를 시작으로 정복시기와 식민 초기의 기록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원주민 신화와 역사까지 포함하면서, 그 영역이 방대해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역사학과 중첩되고, 원주민과 관련된 기록은 메소아메리카학과 겹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연대기가 문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초기부터 여러 문학 비평가들(Carlos Monsiváis, Pedro Henríquez Ureña 등)은 연대기의 소설적 허구성을 부각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도 아메리카의 현실과 유럽적 상상 간의 차이는, ‘경이로운 현실’과 ‘마술적 사실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되기도 했고, 문학과 저널리즘 간의 관계와 비교되며 재조명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대기 문학에 대한 개념이 더 선명해졌고, 그 영역 또한 확대되었다. 기독교 교단 사제들의 다양한 기록은 물론이고, 식민 관리들의 보고서와 메스티조들이 남긴 저서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의 꿈과 환상이 투사된 이상향으로 여기거나, 원주민은 선한 야만인이라는 초기 인식이 현재까지도 연대기 전체를 대변하는 특징으로 남아 있다. 사실, 이런 형태의 인식은 에스파냐로 섬의 식민시기에 크게 퇴조했고, 선한 야만인이라는 이미지조차 Las Casas 이후에는 연대기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 게다가, 연대기의 주요 관심사가 탐험과 정복사를 중심으로 특정 작가들의 주위만을 맴돌고 있다. 메스티조 출신의 작가들이 집필한 다양한 기록도 연대기 문학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용과 특성은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대기의 시기별 구분과, 그 특성을 주제 별로 비교·종합하는 연구는 오랫동안 정체되어 왔다.

테노초티틀란 정복사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코르테스(Hernán Cortés, 1485-1547, 이하 코르테스)의 『보고 서한 *Cartas de Relación*』과, 테노초티틀란 정복사를 다룬 후기 연대기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며 하나의 몸체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후기 연대기의 이런 특징을 모두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진실 왜곡과 은폐를 통해 정복을 합리화하고, 스페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내재해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기획되었다. 먼저, 연대기 문학을 크게 2개 시기(정복시기, 멕시코 식민시기)로 구분하고, 멕시코 식민시기는 연대기 작가의 집필 시기를 고려해 총 3기로 세분화했다. 연구 주제는 3개(아메리카, 원주민, 정복사)로 한정하고, 이를 시기별로 비교하며 연대기의 특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탐색했다. 3개 주제와 관련된 시기별 논의는, 교황청과 스페인 왕실에서 공포한 주요 칙령의 내용과도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연대기의 시기별 특징이 새롭게 규명되고, 스페인 왕실과 식민 당국의 정책 방향에 따른 조직적인 왜곡과 은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연대기는 멕시코에서 작성된 것으로 제한했고, 정복의 경우는 테노초티틀란 정복으로 한정했다.¹

정복시기(1492-1521)

아메리카

콜럼버스는 1차 항해에서 발견한 에스파놀라 섬(현재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과 인근 지역을 인도로 추정했다. 원주민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가 몽골 제국과 근접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먼저, 원주민 추장의 말이었다. 원주민들이 카미(Cami)라 불리는 몽골의

1 정복사와 관련해, 본 연구는 연대기 간의 차이와 관계에 주안점을 두었다. 정복사의 내용은 필자의 기존 논문 참조(이종득(2015), “메쉬꼬-테노초티틀란 정복의 또 다른 실체”, 『중남미연구』, Vol. 34, No. 1, pp. 233-276). 그리고 연대기의 시기 구분과 범주와 관련해서도 필자의 기존 논문 참조(이종득(2021), “연대기와 고문서에 나타난 서술 형태의 시대적 변화”, 『중남미연구』, Vol. 40, No. 1, pp. 401-432).

칸과 전쟁 중이라고 말을 해주었다는 것이다(Columbus 2004, 79). 그리고 콜럼버스(2004, 180-181)는, 원주민들이 시바오(Cibao)라 부르는 섬(에스와 놀라 섬)을 『동방견문록』에 등장하는 시팡고(Cipango, 일본) 섬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지구 구형설과 Toscanelli의 지도를 바탕으로 콜럼버스는 자신이 발견한 지역이 몽골 제국에 가까운 인도라는 결론을 내렸다: “내 생각으로, 이 섬들은 세계 지도상에서 가장 멀리 있는 동양으로 묘사된 무수한 섬들임에 틀림없다”(Columbus 2004, 99); “킨사이(Quinsay) 도시로 가서 두 분 폐하의 친서를 그레이트 칸에게 전하고, 그의 답신을 받은 후에 돌아간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Columbus 2004, 69).

더 나아가 콜럼버스(2004, 223)는, 『동방견문록』에 등장하는 여자들만 사는 섬(Polo 2000, 490)이 존재한다는 것을 원주민을 통해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코가 개처럼 생긴 식인종을 비롯해, 이마에 외눈이 달린 식인종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원주민들로부터 들었다고 기록했다(Columbus 2004, 86; 105). 이처럼 아메리카는, 당시 유럽의 지도가 보여주는 지리적인 개념과 마르코 폴로의 저서를 비롯해, 유럽의 다양한 신화와 전설, 그리고 동양에 대한 막연한 환상 등이 유기적으로 조합된 상상 속에 존재했다. 따라서 콜럼버스가 예찬한 아메리카는, 유럽 사람들의 꿈과 환상이 투사된 이상향처럼 보인다. 더 나아가 콜럼버스는 자신이 발견한 지역을 인간이 병들지 않는 신화적인 공간처럼 기록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는 두통을 호소한 사람도 없었고 질병으로 앓아 누운 사람도 없습니다. 평생 동안 결석으로 시달려 온 노인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틀을 보낸 후에 모두 나았습니다”(Columbus 2004, 116).

콜럼버스(2004, 148-149)는 자신이 발견한 지역을 스페인 국왕 부처의 영지이며 식민 대상지로 인식했다. 이런 배경은 산타 페 협약(Capitulaciones de Santa Fe)²에 근거해 있다. 당시 스페인 국왕 부처는 콜럼버스에게, 발견할 지역과, 이후 생을 다할 때까지 발견할 지역의 총독 직위(virrey y gobernador general)를 부여했다. 교황의 대리인이며 기독교 수호자인 국왕 부처가, 이교도의 땅과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기독교 중심주의 사상에 기초한 협약이었다.

콜럼버스는 새로운 지역을 발견해 스페인 국왕 부처의 영지를 넓혔고,

2 “Capitulaciones de Santa Fe,” https://capitulacionessantafoficial.es/?page_id=377

신화된 입장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으며, 자신의 충성심 또한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이런 유형의 환심성 서술 형태에는 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고, 식민사업을 독점하려는 콜럼버스의 의도(Columbus 2004, 117)가 강하게 내재해 있다.

반면에, Cabeza(Alvar Núñez Cabeza de Vaca, 1488 o 1490-1559)가 기록한 멕시코 북부 지역은 척박하고 건조해 사람이 살기에 부적당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산재해 살아가는 원주민들은 야만과 무지의 종족들이었다. 8년(1528-1536)에 걸친 Cabeza의 수난이 테노초티틀란 정복(1521) 이후에 발생했지만, 탐험과 정복의 숨겨진 이면을 생생히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기록이다.³ 폭풍우로 배가 좌초되어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사망했고, 원주민들의 공격과 굶주림 등으로도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감 없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콜럼버스의 1차 항해 이후, 아메리카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이미지는 연대기에서 자취를 감췄다. 에스파놀라 섬과 인근 지역이 기독교 전파라는 대의 명분 하에 정복과 약탈의 대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연대기는, 1502년부터 현지에서 봉사했던, 도미니크 교단 소속의 Las Casas(Bartolomé de Las Casas, 1474 o 1484-1566)의 보고서이다. Las Casas(2001, 21-22; 27-32)에 따르면, 에스파놀라 섬을 비롯한 인근 지역이 스페인 사람들의 탐욕과 만행으로 원주민 공동체가 파괴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지역으로 변했다. 정복과 식민 과정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저지른 다양한 형태의 약탈과 학살로 인해, 원주민들이 산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였다.

에스파놀라 섬의 식민체제는 오반도(Ovando) 총독 시기(1501-1508)에 레파르티미엔토(repartimiento) 제도가 공식 허가(1503년)되면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 1503년 칙령(Real provisión)에 따르면, 원주민 마을을 건설하고, 각 마을마다 사제 1명과 “선량한 스페인 사람” 1명을 배정해야 했다. 이들은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전교 사업을 담당하며, 원주민 공동체를 보호·유지해야 했다.⁴ 하지만 식민 사업은 스페인 왕실의 칙령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

3 탐험과 정복을 비롯해, 식민 과정이 지역별로 시기적 편차가 크다. 따라서 연대기 간에 존재하는 차이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일부 연대기의 내용을 인용했다.

4 “El sistema de repartimientos y encomiendas durante el reinado,”

<https://library.co/article/sistema-repartimientos-encomiendas-reinado.yng3wgm1>

에스파뇰라 섬과 쿠바 섬에서 14년간 식민사업의 경험이 있었던 코르테스 또한, 테노치티틀란을 환상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계로 인식하지 않았다. 자신의 정복지는 약탈과 식민사업을 통해 수익을 남겨야 할 현실적인 공간이었다. 이는 정복 초기부터 확인할 수 있다. 코르테스(1992, 45-46)는 출룰라(Cholula)에 도착해 땅이 비옥하고 넓으며, 관개수로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원주민이 거주하고 순종적이어서 스페인 사람들이 정주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원주민

도착 초기부터 콜럼버스(2004, 148-149)는 원주민을 스페인 국왕 부처의 신민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거 형태와 생활수준 등을 바탕으로 미개한 상태의 야만인으로 규정했고, 인디오(indio)라 명명했다(Columbus 2004, 57). 그리고 원주민의 성격이 온순하고 겁이 많아 노예에 적합하고, 쉽게 기독교로 개종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Columbus 2004, 44; 56). 이처럼 콜럼버스는 유럽의 인종·문화적인 우월감을 바탕으로 원주민을 쉽게 지배하고 부려먹을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열등한 존재로 인식했다.

Cabeza의 기록(*Nafragios y Comentarios*) 또한, 원주민을 야만인으로 기술했다. 무엇보다도 거짓말과 도둑질을 잘하는 술주정뱅이었다. 하지만 순종적이며 착해서 기독교로 쉽게 개종될 수 있고, 기독교인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기록했다(Cabeza 1998, 37; 64; 69). 이처럼 Cabeza 또한, 기독교 중심의 유럽 우월주의적인 시각에서 원주민을 열등 종족으로 판단했다.

당시 스페인 사람들이 원주민을 노예와 같은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데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당시 교황(Alejandro VI)의 교서(Breve Inter Caetera, 1493)와 무관치는 않다. 당시 스페인 국왕 부처에게 발견된 지역의 법적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원주민을 “벌거벗고 살며 육류를 먹지 않는 야만인”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⁵

에스파뇰라 섬에서의 식민사업은 스페인 왕실이 공포한 법령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레파르티미엔토는 약간의 임금을 주는 대신에,

5 “Breve Inter Caetera de 1493,” <http://www.artic.ua.es/biblioteca/u85/documentos/1572.pdf>.

원주민들에게 노동을 합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전락했다.⁶ 당시 실태는 Las Casas의 기록에 잘 드러난다. 쿠바 섬에서 300명을 배분했는데, 과중한 노역과 굶주림으로 3개월 만에 270명이 사망했다(Las Casas 2001, 37). 레파르티미엔토의 다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원주민을 배분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아서 2-3만 명의 원주민이 굶주림으로 사망했고,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태까지 발생했다(Las Casas 2001, 46). 스페인 사람들이 강제하는 노동을 원주민들이 거부하면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태였다. 상황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식민자들의 통제 또한 어려워지자 스페인 왕실은 레파르티미엔토를 1505년에 엔코미엔다(encomienda)로 대체했다.⁷ 하지만 법률적인 내용의 미비(특히, 노역 기간과 공물 비율 세칙)로 인해, 엔코미엔다 또한 원주민들을 노예 상태로 내몬 것은 레파르티미엔토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물론, 스페인 왕실도 에스파냐라 섬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수수방관하지는 않았다. 먼저, 1500년의 칙령(Real Provisión Isabel la Católica)을 통해 원주민을 노예로 삼는 것을 금지했다.⁸

그러나 원주민들에 대한 약탈과 학대, 그리고 지속적인 노예화로 많은 원주민들이 사망했다. Las Casas(2001, 30-31; 71)는 스페인 사람들의 다양한 악행(원주민 교살, 산채로 화형, 과중한 노역과 굶주림으로 원주민 사망 등)을 낱알이 고발하고, 원주민을 개 먹이로 주었던 사실까지도 기록했다. 더 나아가, 원주민의 신학·법적 지위를 거론하며 그들의 인권을 옹호했다. Las Casas(2001, 150)에 따르면, 하느님은 원주민을 어디에도 예측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했다. 그리고 원주민은 자신의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기독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Las Casas 2001, 20). 이처럼, Las Casas는 노예와 같은 열등 종족으로 고착화된 원주민의 지위를, 당시 칙령과 구약성서에 의거해 문제 삼으며 스페인 식민자들과 정면으로 맞섰다. 무엇보다도 스페인 사람들을 환대하고 도움을 주었다는

6 식민 초기부터 스페인 사람들은 레파르티미엔토를 암묵적으로 실행했다. 원주민들이 소유한 재산이 거의 없었고, 지속적인 노동활동을 하는 경우도 적어서 스페인의 조세체제를 안착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7 이 시기에 통상원(Casa de contratación)이 세비야에 설치(1503)되었다. 에스파냐라 섬에는 아우디엔시아(Audiencia)가 설치(1511)되었지만, 디에고 콜론과 아우디엔시아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8 “Real Provisión Isabel la Católica,” <https://www.historia.com/magazine/20-junio-1500-mediante-una-real-provision-prohibe-la-esclavitud/>

사실을 강조하며 원주민 옹호에 앞장섰다.

Las Casas의 당시 주장은 많은 경우, 현재까지도 혁신적인 주장처럼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교황의 교서와 스페인 왕실의 칙령뿐만 아니라, 당시 식민 체제의 법령 내에서 이루어졌다.⁹ 그리고 Las Casas는 당시 실상을 기록한 보고서(*Memorial de agravios*)를 1516년에 추기경(Cisneros)에게 전달하고, 원주민과 스페인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식민화 방식을 제안했다(Cugajo 2001, 5). 이처럼 당시 연대기는 원주민들의 실상을 기록하고, 정책 대안을 스페인 왕실에 제안하며 법 제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고 통로였다.

반면에, 테노치티틀란을 정복한 코르테스는 틀라스칼라(Tlaxcala) 지역에서 처음으로 원주민 사회체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된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북부의 이슬람과 비교하며 열등한 문명에 불과하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진 못했다(Cortés 1992, 41). 그리고 에스파놀라 섬에서처럼 원주민은 노동력 착취의 대상이거나, 노예로 팔아 넘겨도 되는 열등 종족에 불과했다. 사실, 코르테스(1992, 88; 162; 178)는 생포한 원주민들에게 낙인을 찍어 노예로 팔아버리는 행태를 반복했다. 특이한 점은, 자신의 행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화했다는 사실이다. 원주민들이 인육을 먹었고, 스페인 국왕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저항했으며 스페인 사람들까지 죽였기 때문이었다(Cortés 1992, 88). 이처럼 코르테스는 스페인 왕에 대한 저항과, 인육을 먹는 풍습을 원주민 학살과 노예로 팔아버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구실로 내세웠다. 그런데 정복 과정에서 코르테스는 원주민들에게 식인을 허락하는(Cortés 1992, 154)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코르테스의 이런 행태가 많은 경우, 개인적인 불법 이탈행위가 아니었다. 1513년에 제정된 레케리미엔토(requerimiento)¹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보면, 원주민의 법적 지위는 스페인 국왕의 신민이었다.¹¹ 따라서 국왕의 신하이며 대리인인, 스페인 정복자의 명령에

9 Las Casas의 초기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다. 원주민 학살과 약탈, 그리고 노예화의 문제를 지적하며 처음으로 원주민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Montesinos(1475-1540)이다. Montesinos의 헌신적인 노력은, 35개 조항으로 구성된 부르고스 법(Las Leyes de Burgos)의 제정(1512년)으로 이어졌다. 엔코미엔다 체제 안에서 전교와 교육활동을 비롯해, 원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노동과 처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10 “Requerimiento,” <https://www.worldhistory.org/trans/es/1-20977/el-requerimiento-espanol/>

저항하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 정당하고, 생포한 원주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 또한 불법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지역을 탐사·정복하며 국왕의 영지를 넓히고, 기독교 전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발생한 이런 행위들은 저항한 원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었다.

정복사

당시 에스파놀라 섬의 참상에 분노한 Las Casas(2001, 25)는 원주민 100명을 죽였던, 한 스페인 사람을 원주민들이 죽인 사건을 언급하고, 그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에스파놀라 섬에서 약탈한 재화를 선적한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하자 하느님의 응징으로 기록했다(Las Casas 2001, 28-29). Las Casas의 이런 생각은 이후에, Vitoria(Francisco de Vitoria, 1483-1546)의 영향을 받으며 혁신적인 사상(정당한 전쟁/ 부당한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반면에, 코르테스는 테노치티틀란으로 가는 과정에 당시의 정복 규정을 충실히 이행했다. 먼저, 포톤찬(Potonchan)과 산 후안 데 울루아(San Juan de Ulua)에서 원주민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레케리미엔토를 낭독했다(Cortés 1992, 15; 18). 이런 의례적인 행위는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었다. 더 나아가, 항복하고 동맹을 맺은 원주민 도시국가들에서는 이런 사실을 문서로 작성해 공증하고, 스페인 왕의 신민임을 공포했다(Cortés 1992, 43).

관심을 끄는 것은, 정복 초기부터 코르테스가 정복의 정당성을 명시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원주민들의 인신공양과 동성애를 정복의 구실로 내세웠다(Cortés 1992, 21-22). 그런데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였다. 이어 Cortés는 원주민을 우상숭배와 인신공양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종족으로 규정하고, 이런 악습으로부터 선량한 원주민을 구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논리를 찾아냈다. 이런 변화는 토토나카(totonaca)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지만, 슬픈 밤(Noche Triste) 이후에 테페아카(Tepeaca) 지역을 정복하면서부터 구체화되었다. 당시는 트라스칼라 지역의 도시국가들을 중심으로 반 삼각동맹체(Triple Alianza) 세력이

11 이사벨 여왕이 1504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후 칙령부터는 스페인 국왕으로 표기된다.

형성되면서, 전체 원주민 사회가 양분되는 초기였다. 당시 코르테스는 패권과 예측에 기초한 원주민들의 정치체제를 간파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코르테스(1992, 106)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정복 전쟁의 정당성을 체계화해 적시했다. 먼저, 코르테스는 자신의 정복 행위를 기독교 전교, 그리고 국왕에 대한 충성과 예측지 확대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웠다. 모두 레케리미엔토의 법령에 근거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동맹군이 된 원주민 도시국가들을 해방시킨다는 구호를 정복의 주요 대의명분으로 추가했다. 하지만 코르테스(1992, 120; 158; 160-161)는 정복 중에 발생한 대량 학살의 책임은, 동맹을 맺은 원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반복했다.

반면에, Las Casas(2001, 40-41)는 정복 과정에서 요식적인 절차로 전락한 레케리미엔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주민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주민들이 잠자고 있는 한 밤중에 스페인 정복자들끼리 레케리미엔토를 읽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Las Casas는, 테노치티틀란 정복 과정에 코르테스가 일으킨 대학살 사건들(Cholula, Templo Mayor, Tepeaca)을 고발하며 정복 전쟁의 이면을 들추어냈다. 흥미로운 것은, 원주민들이 코르테스 일행을 테노치티틀란에서 몰아낸 사건(Noche Triste)을 “정당하며 성스러운 전쟁(judyidima y sancta guerra)”이라 주장했다는 사실이다(Las Casas 2001, 54). 이처럼, Las Casas는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전쟁을 정당한 전쟁(guerra justa)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은, 원주민을 학살하고 노예화시킨 부당한 전쟁(guerra injusta)이었다. 이어 Las Casas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도시와 관련된, 자신의 30개 구상안(Las Casas 2001, 133-151)을 인디아 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

멕시코 식민시기(1522-1650)

테노치티틀란을 멸망(1521년)시킨 이후, 코르테스는 자신이 정복한 지역의 사법권을 포함하는 총사령관 직위(Capitán General y Justicia Mayor)를 받았다. 그러나 1526년에 면직되고 레시덴시아(residencia) 심사를 받으면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걸었다. 당시 스페인에는 인디아 자문위원회가 신설(1524)되고, 누에바 에스파냐에는 두 차례의 아우디엔시아 시기를 거쳐 부

왕청이 멕시코 시에 설립(1535)되었다. 정복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식민시기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종교개혁의 열풍으로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고, 흑색 전설이 서유럽국가로 확산되며 스페인이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때였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스페인에서는 원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복 전쟁의 정당성을 두고 논쟁이 일어났다. 당시 Vitoria는 자신의 저서 『인디아 *De Indis*』에서, 교황은 정복과 복음을 강요할 권능이 없으며, 이를 왕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원주민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인권을 갖고 있고, 자신의 땅과 재산의 주인이라 주장했다.¹² 이처럼, Vitoria는 교황의 1493년 교서를 전면 부정하고, 무력을 앞세운 정복과 복음화를 비판했다. 1537년에는 교황 파블로 3세가 교서(Veritas ipsa)를 통해 원주민의 자유권을 인정하고, 노예로 만드는 것을 금지했다.¹³ 틀라스칼라의 도미니코 교단 소속의 주교(Julián Garcés)가 교황에게 보낸 편지가 교서 공포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Vitoria와 Las Casas의 헌신적인 노력은 1542년의 신법(Leyes Nuevas) 제정으로 이어졌다. 원주민의 법적 지위가 스페인 왕의 신민(21조)임을 강조하고, 전쟁과 반란을 포함해 어떤 방식으로든 원주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을 금지했다(3조).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복의 정당성과 관련된 논쟁은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Las Casa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스페인 궁전에는 새로운 분위기(antiencomendero, proindigenista)가 형성되었다(Nicolau 1994, XLV-XLVI). 결국, 카를로스 5세는 바야돌릿 논쟁(1550-1551)을 허락해야 했다.

펠리페 2세 시기인 1571년에는 멕시코 시에 종교재판소가 설치되어 원주민들의 이단행위를 체계적으로 처벌하기 시작했다. ‘1573년 칙령(Ordenanzas)’은 모든 종류의 새로운 정복활동을 금지했다.¹⁵ 그러나 당시는 정복활동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고, 부왕청을 중심으로 식민체제가 안정

12 “Francisco de Vitoria,” https://es.wikipedia.org/wiki/Francisco_de_Vitoria

13 “Sublimis Deus de 1537,” <https://www.papalencyclicals.net/paul03/p3subli.htm>

14 “Leyes Nuevas,” https://es.wikipedia.org/wiki/Leyes_Nuevas

15 “Ordenanzas de descubrimiento y población dadas por Felipe II en 1573,” https://historicas.unam.mx/publicaciones/publicadigital/libros/014/014_03_09_ordenanzas.pdf

화된 시기였다. 이후 특별히 관심을 끌만한 법이 제정되지 않다가, 1680년에 인디아 법(Leyes de Indias)이 등장했다.¹⁶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법들(Leyes de Burgos, Leyes Nuevas)을 재정리한 것에 불과했다.

제 1기(1522-1550)

누에바 에스파냐의 식민체제는 제 2차 아우디엔시아 시기(1530-1535)에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활동한 대표적인 연대기 작가는 4명(Las Casas, Olmos, Motolinía, Sahagún)으로 압축될 수 있다. 에스파냐의 섬의 식민 초기부터 활동한 Las Casas는 도미니크 교단 소속으로 에스파냐의 섬과 스페인에서 주로 활동했다. 반면에, 다른 3명은 프란체스코 교단 소속이었고, 멕시코 시와 인근 도시에서 활동했다. 당시 두 교단은 전교 방식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영역 다툼을 벌였다. 특히, 프란체스코 교단은 정복활동을 전교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주장했고(Nicolau 1994, XLIX-L), 세례의식을 간소화하며 도미니크 교단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Las Casas는 스페인 사람들의 다양한 약탈과 악행을 지역별로 분류해 낱알이 고발했다. 그리고 에스파냐의 섬과 스페인을 오가며 신학·법적인 논쟁을 벌이며 원주민 보호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반면에, 멕시코 시의 연대기 작가들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물론, 초기에는 Las Casas처럼 당시 원주민들의 실상을 기록하며 동정심도 드러냈다. 1524년부터 멕시코 시에서 활동을 시작한 Motolinía(Toribio de Benavente, 1482-1569)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우디엔시아 시기와 부왕청 초기에 가난한 원주민들이 공물을 납부하기 위해 자식과 땅을 팔기도 했고, 도망을 쳐서 원주민 공동체가 황폐해졌다(Motolinía 1994, 61-62; 66). Motolinía(1994, 145)는 이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스페인 식민자들의 탐욕에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개종한 원주민들이 기독교 교리를 착실히 준수하는 것을 칭찬하고,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그들의 재능에 감탄하기도 했다(Motolinía 1994, 128-132; 137-144). 더 나아가 Las Casas처럼, 식민자들의 약탈과 학대로부터 원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했다. Nicolau(1994, XIII)에 따르면, 아우디엔시아에 쫓기는 카시케(cacique)를 보호하고, 강제

16 “Leyes de Indias,” https://es.wikipedia.org/wiki/Leyes_de_Indias

노역을 시키는 스페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하지 말라는 강론까지 감행하며 Motolinía는 엔코멘테로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사실, 원주민에 대한 동정심은 Cabeza의 기록에서도 발견된다. Cabeza(1998, 183)는 원주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에 반대했고, 원주민도 스페인 사람과 동일한 인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주민 보호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법령 제정을 통해 실행으로 옮긴 인물은, 도미니크 교단 소속의 일부 사제들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다. 그리고 Las Casas의 기록을 중심으로, 이후 일부 연대기는 스페인 사람들의 잔학한 행위를 세상에 알리며 스페인과 유럽 내에 흑색전설이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스페인 왕실과 식민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었고, 누에바 에스파냐에서 연대기 집필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와 검열을 거쳐야만 했다.

이 시기에 멕시코 시에서는 스페인 왕실의 칙령에 의거해, 부왕청과 프란체스코 교단을 중심으로 원주민과 관련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Andrés de Olmos(1485-1571)는 1533년부터 원주민의 전통 종교의식을 비롯해, 신화와 역사 등을 조사했다. 명목적인 대의명분은, 개종한 원주민들이 은밀히 행하는 이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초조사였다. 당시 Olmos(1990, 67-69)는 원주민들의 다양한 종교의식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상숭배와 이단 행위로 규정했고, 인신공양 문제를 부각했다. Olmos의 보고서(*Tratado de hechicerías y sortilegios*)는 당시 원주민들의 다양한 이교도적 행위를 분류하고 규정하는 기본 틀이었다. 더 나아가, 원주민들을 타락한 미개 종족으로 규정하고, 정복의 정당성을 구축하는 기초 근거가 되었다. 이 시기부터 연대기의 다른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원주민들의 참혹한 상황에 동정심을 느꼈고, 엔코멘테로들로부터 원주민들을 보호하려 애썼던 Motolinía도 Olmos의 경우와 다르지 않았다. 먼저, Motolinía(1994, 71-74)는 전교활동을 비롯해, 원주민들의 우상숭배를 근절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그리고 메쉬카에게 가장 큰 축제인 14월 축제(Panquetzaliztli)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인신공양을 집중 부각했다(Motolinía 1994, 16-20; 41-59). 더 나아가, 원주민들이 믿던 미신과 주술 행위까지도 연구했다(Motolinía 1994, 33-35). 마지막으로, Motolinía(1994, 145)는 원주민들이 이런 미신과 주술을 신봉하게 된 원인이 악마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Motolinía의 보고서는 이후에, 원주민 구대륙 기원설과

연계되어 원주민의 신학·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정복의 정당성을 구축하는 주요 증거와 논거로 활용되었다.

Motolinía(1994, 11-12)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De admirandis in Natura*)와 지리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최초 원주민이 카르타고 사람이라 판단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종교의식과 풍습, 행실 등을 바탕으로 모로(moro)와 유대인으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기록했다. Motolinía가 제시한 원주민 구대륙 기원설은, 원주민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에 악마의 유혹에 빠져 타락했다는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낳은 출발점이었다.

Motolinía는 테노치티틀란 정복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원주민들의 참상을 신학적으로 해석했다. 먼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추가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누에바 에스파냐에 도착하기 이전에, 테노치티틀란의 멸망을 예시하는 예언과 전조가 있었다는 것이다(Motolinía 1994, 6).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Motolinía는, 정복시기와 식민 초기에 원주민들이 겪은 많은 재난과 고통을 하느님의 응징이라는 새로운 해석도 내놓았다. 먼저, Motolinía(1994, 15-22)는 천연두를 비롯해 테노치티틀란 정복 시의 대학살, 식민 초기의 과중한 노역과 레파르티미엔토 실시로 인한 원주민들의 다양한 폐해(약탈, 노예화, 사망 등)를 총 10개의 재난(plaga)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런 재난은 타락한 원주민들을 하느님이 응징한 것이라는 신학적인 해석을 했다. 물론, Motolinía의 기초 논거는 원주민 구대륙 기원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아메리카 정복은 악마의 유혹에 빠져 타락한 원주민들을 응징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신의 예정된 섭리였다. 이처럼, Motolinía는 원주민들의 참혹한 실상에 대해서도 신학적인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며 정복의 정당성을 구축했다.

이처럼 1530년대부터 프란체스코 교단을 중심으로 집필된 연대기들은, 원주민의 기원을 구대륙 기원설과 연계시키고, 다양한 종교의식과 생활 풍습(주술, 미신 등)을 바탕으로 원주민을 타락한 종족으로 변질시켰다. 그리고 아메리카 정복과 스페인의 지배를 신의 응징과 섭리로 정당화했다. 이 시기 연대기들은 이후에, 바야돌릿 논쟁의 한 주역이었던 세폴베다가 원주민을 태생적인 노예로 규정하고, 정복 전쟁과 엔코멘테로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요 자료와 논거로 활용했다.

제 2기(1551-1600)

제 2기는 부왕청을 중심으로 누에바 에스파냐의 식민체제가 안착되고, 연대기 작가들의 출신이 다양해지며 집필 활동이 절정에 올랐던 시기이다. 이 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보통 Sahagún(1499 o 1500-1590)과 Diego Durán(1537-1588)을 꼽는다.¹⁷ 하지만 프란체스코 교단 소속의 Jerónimo de Mendieta(1545-1604)와 Diego de Landa(524-1570)의 활동도 적지 않았고, Bernal Díaz del Castillo(1496-1584)도 과테말라에서 테노치티틀란 정복사를 재정리하고 있었다. 에스파냐의 섬과 멕시코 시에서 오이도르(oidor)였던 Alonso de Zorita(1512-1585)도 있었다. 관심을 끄는 것은, 메스티조 출신의 연대기 작가들이 처음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3인(Tezozómoc, Muños, Pomar)은 3개 도시국가(Tenochtitlán, Tlaxcala, Texcoco)의 왕족 후손이었고, 틀라텔롤코 학교 출신이었다. 이들은 Sahagún의 자료 수집과 집필을 도우며 연대기 편찬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출신 도시 국가의 연대기를 작성했다. 이처럼, 제 2기에는 연대기 작가의 출신(사제, 관리, 메스티조)이 다양해지고, 연대기의 주제와 내용 또한 크게 변화했다.

아메리카와 원주민

이 시기에 출간된 연대기에는 누에바 에스파냐의 지리와 기후, 그리고 다양한 동·식물 등을 소개하는 공식보고서 형식의 서술 형태가 일부 남아 있다. 먼저, Sahagún(1499, 621-710)은 누에바 에스파냐의 지형과 기후를 비롯해, 동식물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반면에, 네사우알코틀 왕의 외손자, Pomar(Juan Bautista de Pomar, 1535-1601)는 테스코코 지역의 동·식물에 대해 펠리페 2세에게 보고(1582년)했다(Pomar 1993, 210-217). Landa(1494, 85-88)는 유카탄의 지형과 동·식물을 공식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했다. 이 연대기들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콜럼버스의 경우처럼 자연의 풍요로움을 강조하며 감탄하거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과장된 서술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대신에, 식민지 아메리카의 모습을 차분하고 객관적인 서술 형태를

17 Sahagún은 같은 교단의 선임자들(Olmos, Motolinía)에 비해 조금 늦게 멕시코에 도착(1529)했지만 함께 활동을 했다. 하지만 자료수집과 연대기 작성 시기(1548년부터)가 뒤늦고, 출판이 1582년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Sahagún을 제 2기의 연대기 작가로 분류했다.

통해 미화 없이 드러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정복 과정과 식민 초기에 발생한 원주민들에 대한 약탈과 학살, 그 참상을 기록한 연대기를 멕시코 시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연대기 집필에 대한 식민 당국의 사전 검열과 통제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이다. Iguíniz(1994, XII)에 따르면, 프란체스코 교단 내에서 집필된 연대기들을 사전 검열했던, Mendieta조차도 자신이 저술한 저서(*Historia eclesiástica indiana*)의 출판 허가를 받아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원주민의 실상은 흥미롭게도 멕시코 시의 오이도르였던 Zorita의 보고서(*Los señores de la Nueva España*, 1553년 작성)에서 찾을 수 있다. 식민 당국의 다양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서술된 이 보고서는, 식민 초기의 레파르티미엔토와 엔코미엔다 체제 하에서 원주민들이 겪었던 수탈과 학대, 그리고 노동 착취에 대해 건조하게 기록했다(Zorita 1993, 129-205). 한 예를 들면, 과중한 공물을 낼 수 없었던 원주민들은 땅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노예로 팔았다. 공물을 납부하지 못한 원주민들은 도망치거나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당시 원주민의 수가 크게 감소했다(Zorita 1993, 137). 하지만 Zorita는 원주민에 대한 동정심을 표출하거나 옹호하지 않았고, 스페인 왕실의 질문에 단순 명료하게 답하는 것으로 그쳤다.

Pomar도 테스코코 원주민의 실상을 기록했다. 기아와 노역으로 원주민들이 사망했고, 1576-1580년 사이에는 전염병이 크게 돌아 테스코코 원주민의 2/3가 사망했다(Pomar 1993, 205-206). 이 내용은, 메스티조 출신의 연대기 작가가 원주민의 실상과 관련해 서술한 거의 유일한 기록이다. 그러나 원주민들에 대한 동정심을 드러내거나 옹호하지는 않았다.

당시 원주민들의 처참한 실상을 생생하게 기록한 인물은, 유카탄의 메리다(Mérida)에서 활동했던 Landa였다. 그는 레파르티미엔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스페인 정복자들의 잔학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그의 보고서(*Relación de las cosas de Yucatán*, 1566년 작성)에 따르면, 스페인 정복자들은 코추아(Cochua)와 체투말(Chetumal)에서 반란을 일으킨 원주민들의 신체 일부(코, 팔, 다리, 여성의 가슴 등)를 자르고, 다리에 족쇄를 채워 산채로 호수에 던졌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창으로 찔려 죽었다(Landa 1994, 107). Landa는 유카탄에서 원주민들의 우상숭배를 근절하기 위해 무자비한

고문과 처벌을 행해 악명을 떨쳤던 사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 과정의 잔혹한 참상을 Las Casas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Motolinía의 경우처럼, 이런 참상을 신의 예정된 응징으로 합리화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Landa가 원주민들의 참상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그의 저술 활동이 스페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Landa(1994, 109-110)는 원주민들을 보호하려는 사제들과, 원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던 엔코멘테로들 간의 갈등과 마찰까지도 상세히 기록하며 식민 초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기독교 전교와 관련해, 당시까지도 원주민들의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테노치티틀란이 멸망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정복되지 않은 곳에서는 원주민들이 과거 전통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다. 그리고 개종을 한 원주민들조차도 기독교를 진실로 받아들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Zorita 1993, 19). 이런 상황은 1554년부터 멕시코 시에서 근무를 시작한 Mendieta의 보고서(*Vidas franciscana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Mendieta(1994, 33)에 따르면, 당시 누에바 에스파냐는 우상숭배를 행하는 원주민들로 넘쳐났다.

이 시기에 Sahagún과 Durán은 원주민 구대륙 기원설의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먼저, Sahagún(1985, 610)은 아메리카 최초의 원주민을 구대륙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들이 구대륙 어디 출신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Sahagún은 기상천외한 상상을 했다. 원주민 구대륙 연계설을, 『쿠아우티틀란 연대기 *Anales de Cuauhtitlán*』에 등장하는 치치메카 기원설(Feliciano(ed.) 1992, 3-4)과 이어 붙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무리를 이끌고 아메리카에 도착한 지도자들(amoxoaque)은 400명의 므스코아(mixcoa)와 동일시되고, 구대륙에서 온 무리는 치치메카(chichimeca)가 되었다. Sahagún은, 원주민 구대륙 기원설을 원주민 신화와 이어붙인 최초의 연대기 학자였다.

반면에, 도미니크 교단 소속의 Durán은 최초의 원주민이 유대인이라 주장했다. 원주민들의 처신과 위선적인 행실, 그리고 삶의 방식과 종교의식(우상숭배, 인신공양, 식인행위, 미신 등)이 유대인과 유사하며, 과거 이스라엘의 10개 부족이 저지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Durán 1993, 53; 59). Durán의 주장과 유사한 다른 연대기는 Landa의 기록이다. 유카탄 원주민 노인들의 말에 근거해, 원주민의 기원은 유대인이며, 마젤란 해협을 건너

은 이후 전 아메리카로 퍼졌다고 주장했다(Landa 1994, 92). 이처럼 제 2기에 들어서면서 원주민의 기원을 유대인과 연계시키고, 원주민의 이교도적인 행위와 타락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주류를 형성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해주는 주요 근거는, Sahagún과 Durán이 집필한 연구서였다. 당시 이들은 원주민의 전통신과 종교의식을 비롯해, 원주민들의 주술과 미신까지도 방대하게 연구했다. Landa(1994, 110) 또한, 유카탄 원주민들이 술주정뱅이이며 여러 악습(우상숭배, 이혼, 노예제도, 인신공양 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Sahagún과 Durán, 그리고 Landa가 주장한 원주민 구대륙 기원설은 원주민들의 신학·법적 지위를 새롭게 규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특히, Sahagún과 Durán의 연구서는 구대륙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악마의 유혹에 빠져 미신과 주술, 우상숭배와 인신공양을 저지르는 종족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주요 근거였다. 동시에, 스페인의 정복 활동을 타락한 원주민의 영혼을 구원하는 성스러운 전쟁으로 미화하며 정당성을 부여한 근거이기도 했다.

테노초티틀란 정복사

원주민 구대륙 기원설에 이어, 제 2기 연대기 작가들이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테노초티틀란 정복사였다. 이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4명(Sahagún, Durán, Muñoz, Tezozómoc)으로 압축된다. 먼저, Sahagún(1985, 454-455; 723-724)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누에바 에스파냐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했다는 8개의 전조를 기록했다. 자연 현상을 비롯해, 메쉬카 전통신의 몰락과 스페인 사람의 등장을 암시하는 8개 전조를 통해 Sahagún은 테노초티틀란의 멸망과 스페인의 지배를 신화적인 순리로 둔갑시켰다.

틀라스칼라 출신의 메스티조, Muñoz(Diego Muñoz Camargo, 1529-1599) 또한, Sahagún이 기록한 8개의 전조를 동일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틀라스칼라에서 발생했다는 2개 전조(일출 전에 동쪽에서 화염이 1516년에 발생, 회오리바람이 일 년 이상 발생)를 추가했다(Muñoz 2012, 89-92). 스페인 정복자들의 도착과 이어질 혼돈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Muñoz는 10개의 전조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했다. 원주민들이 악마의 유혹에 빠져 타락해 있었고, 이를 불쌍히 여긴 하느님이 자신의 귀환을 미리 알리는 계시였다는 것이다(Muñoz 2012, 89).

Sahagún과 Muñoz 이외에, 전조를 기록한 연대기 학자는 두 명(Durán, Tezozómoc)이 더 있었다. 먼저, Durán(1995, 560-568)에 따르면, 혜성이 출현하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겁을 먹은 목테수마 왕은 주술사를 찾아 해결책을 찾으려 했고, 여의치 않자 산속 동굴로 피신하려 했다. 그리고 Durán은 테노치티틀란의 멸망을 암시하는, 노인과 노파들의 꿈도 상세히 언급했다. 그들의 꿈에 따르면, 우이실로포츠틀리 신전이 화재로 전소되고, 우이실로포츠틀리 신상이 땅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홍수가 왕궁과 신전을 덮쳤고, 겁에 질린 왕족과 귀족들이 산으로 피신했다(Durán 1995, 570-571). Sahagún이 기록한 전조 중 일부가, 원주민 노인과 노파들의 꿈 이야기로 바뀌어져 있지만 내용은 엇비슷하다.

그런데 Durán(1995, 552-559)은 당시까지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찰코(Chalco) 바위 사건’을 기록했다. 인신공양 원형석판(temlalcatl)으로 가공하기 위해 찰코에 있는 바위를 테노치티틀란으로 굴러오는 도중에, 테노치티틀란의 멸망과 참상을 예고하며 가는 것을 바위가 거부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목테수마 왕의 외손자, Tezozómoc(1878, 662-666)도 ‘찰코 바위 사건’을 거의 동일하게 기록했다. Durán이 언급한, 노인과 노파들의 꿈 이야기도 유사하게 기록했다(Tezozómoc 1878, 682-685). Durán과 Tezozómoc 간에 깊은 연계성이 드러난다.

정복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있었다는 전조는 Landa도 기록했다. 유카탄 원주민의 말에 따르면, Francisco de Montejo(1479-1553)가 유카탄에 도착하기 수년전부터,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할 것이며 메쉬카의 지배가 끝날 것이라는 전조와 예언이 퍼져 있었다. 그리고 이를 예언했다는 칠란(Chilan)의 이름(Ah Cambal)까지도 Landa는 덧붙였다(Landa 1994, 101).

연대기 작가들이 기록한 전조 현상은, 당시 원주민들 사이에 떠 돌던 이야기로 그들의 생각과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료이다. 그런데 연대기 작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자신의 의도에 맞게 재구성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진위여부를 떠나 이런 전조들을, 당시 연대기 학자들이 테노치티틀란 정복사를 왜곡하는 기초 근거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르테스의 도착을 케살코아틀 귀환신화와 연계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먼저, Sahagún은 코르테스를 귀환하는 케살코아틀과 동일시했다. 그래서 목테수마 왕이, 울루아(Ulúa)에 도착한 코르테스에게 푸짐한 선물을 보

냈다고 기록했다(Sahagún 1985, 455: 725-727). 그리고 목테수마 왕이 코르테스를 귀환한 신처럼 대우했고, 자신의 왕위를 순순히 위임했다고 기록했다(Sahagún 1985, 775). Durán 또한, 유사하게 기록했다. 올루아에 도착한 코르테스 일행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목테수마 왕은 외교사절들에게 이들이 케살코아틀인지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자신이 보낸 음식을 이들이 먹는다면 케살코아틀이 분명하니, 자신과 자신의 조상이 누려온 권좌를 되돌려 주겠다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고 기록했다(Durán 1995, 577).

Sahagún과 Durán이 보여준 이런 서술 형태는 코르테스의 기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코르테스의 기록에 따르면, 목테수마 왕은 케살코아틀 신화를 언급하고, 코르테스를 예전에 되돌아 간 왕의 대리인으로 여기는 듯한 말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권좌를 코르테스에게 위임하는 듯한 애매한 말도 했다(Cortes 1992, 52). 하지만 당시 상황은, 스페인 정복대의 군사력에 압도되어 평화적인 예속을 선언한 모습에 더 가까워 보인다. 당시 코르테스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디아스의 기록을 보면, 당시 상황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 Díaz(1991, 243)가 케살코아틀 신화는 언급했지만, 그다지 의미를 두어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노치티틀란 멸망 이후, 과테말라에서 정복사를 재정리(1575년 완료)할 당시, 디아스가 이 부분을 중요하지 않게 기록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 케살코아틀 귀환신화가 테노치티틀란 정복 이후에 코르테스와 연계되며 크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케살코아틀 귀환신화와 연계된 Sahagún과 Durán의 서술 형태는 목테수마 왕의 신화적 정통성을 상당 부분 왜곡시켰다.

Sahagún과 Durán의 정복사 왜곡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정복자들이 테노치티틀란으로 오고 있는 사이에 목테수마 왕이 보여주었다는 기이한 행동들을 상세히 기록하며, 목테수마 왕을 주술과 미신에 빠져있는 미개하고 유약한 왕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이다. Sahagún(1985, 728-731)에 따르면, 올루아로 보냈던 외교사절이 돌아와 상황을 보고하자, 목테수마 왕은 주술사를 보내 스페인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주술을 걸었고, 효과가 없자 공포에 휩싸여 동굴로 숨으려 했다.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공포에 떨었고, 케살코아틀 신전에 가서 인신공양까지 치렀다(Sahagún 1985, 765-768). Durán(1995, 576; 593-596) 또한, Sahagún처럼 목테수마 왕을 주술과 꿈에 집착하고, 공포에 사로잡힌 유약한 왕으로 기록했다.

그런데 Sahagún과 Durán이 보여준 이런 유형의 서술 형태를, 목테수마 왕의 외손자 Tezozómoc(1878, 686-701)도 동일하게 반복했다. Tezozómoc의 기록은 Sahagún과 Durán의 주장에 큰 힘을 실어주며 신빙성을 높였다. 반면에, 틀라스칼라 출신의 메스티조, Muñoz는 다르게 기록했다. 썸포알라에 파견된 외교사절의 보고를 통해, 목테수마 왕은 스페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며, 인간적인 것을 좋아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했다(Muñoz 2012, 93).

Sahagún과 Durán, 그리고 Muñoz와 Tezozómoc이 기록한 다양한 전조와, 목테수마 왕의 주술적이며 유약한 행동들은 현재 그 진위여부를 가리기 어렵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 연대기 작가들이 이를 활용해 테노츠티틀란의 멸망과 스페인의 정복을 합리화하고, 그 책임을 목테수마 왕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점이다. 이처럼 제 2기의 연대기 작가들은 테노츠티틀란의 멸망과 정복의 정당성을 단계 별로 체계화하는 선봉에 서 있었다.

따라서 테노츠티틀란 정복에 대한 이 시기 연대기 작가들의 해석은, 원주민 구대륙 기원설과 케살코아틀 귀환신화를 바탕으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Durán(1995, 55)에 따르면, 테노츠티틀란 정복은 신의 뜻이었고, 구약에 제시된 섭리가 현실에서 이행된 사건이었다. 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와 악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이 응징한 것과 동일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원주민들이 겪은 모든 참상은 신의 응징이었고, 기독교 전파로 인해 원주민들은 구원을 받았다. Tezozómoc도 유사하게 해석했다. 우이실로포츠틀리를 숭배하며 원주민들의 영혼이 타락했고, 하느님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했다(Tezozómoc 1992, 11-13).

유카탄의 Landa 또한, 구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원주민의 상황을 유대인과 비교하며 정복을 합리화했다. 무엇보다도 Landa(1994, 218)는, 정복 이후에 누에바 에스파냐가 변화한 모습들을 열거하며 정복을 합리화했다. 먼저, 스페인 사람들 덕분에 발전된 문명과 다양한 도구를 비롯해, 동·식물들이 아메리카에 유입되었다. 특히, 말과 소는 원주민들의 힘든 노동을 경감시켰다.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들어왔고, 원주민들이 정의로우며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Landa(1994, 113)는 카시케들이 스페인의 새로운 체제에 만족하고, 스페인 왕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기록했다.

제 3기(1601-1650)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연대기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멕시코 식민체제가 부왕청을 중심으로 견고해졌고, 정복 이후 많은 시간이 흘러 연대기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기 때문이다. 당시까지도 연대기 집필의 전통을 기독교 교단 내에서 이어나간 유일한 인물은, 프란체스코 교단 소속의 Torquemada(1557-1624)였다. 그러나 그의 저서 『인디아 왕국 *Monarquía indiana*』은, 기존 연대기들의 내용을 비교·검토하며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종합하는 말기적인 특성을 드러냈다. 예를 들면, 아메리카 원주민이 인도 사람과 비교해 피부색과 종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인디오라 부르는 문제점을 지적했다(Torquemada 1975-1979, 33). 그리고 원주민의 기원이 유대인이라 주장했던 이전 연대기 학자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에 근거해 원주민이 페니키아나 카르타고 사람일 가능성을 제시했다(Torquemada 1975-1979, 43-46). 정복사와 관련해서도 Sahagún과 Durán이 언급한 전조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하느님이 자신의 귀환을 알리는 자비로 해석했다(Torquemada 1975-1979, 317-323). 새로운 내용이나 해석을 토르케마다의 기록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사실, Torquemada(1975-1979, 48) 자신도 이런 한계를 솔직히 고백했다. 이로서 1530년대부터 시작된 연대기 집필의 열풍이 기독교 교단 내에서는 사그라졌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생각지 않은 곳에서 불어왔다. 그 중심에는, 식민체제의 관리로 자리 잡거나 지역 토호로 성장하며 조금씩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메스티조 출신의 연대기 작가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은 익스틀릴소치틀(Fernando de Alva Ixtlilxóchitl, 1568-1648, 이하 익스틀릴소치틀)과 치말파인(Chimalpahin Cuauhtlehuanitzin, 1579-1645?, 이하 치말파인)이었다. 먼저, 익스틀릴소치틀은, 테스코코 왕족(에르난도 익스틀릴소치틀)의 외증손자였다. 반면에, 치말파인은 아메카메카(Amecameca)의 왕족 출신이었다.

익스틀릴소치틀은 5편의 연대기를 집필하며 원주민 신화와 역사 부문을 새롭게 부각시켰다. 먼저, 태양신화를 바탕으로 세상창조와 원주민의 기원을 서술했다(Ixtlilxóchitl 1985b, 7-9). 물론, Ixtlilxóchitl(1985b, 200)은 구대

록과 연계된 원주민 기원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시에 원주민의 세상창조신화를 서술한 것은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었다. 기독교 창세기와 충돌하면서 식민 당국의 통제로, Olmos 이후 연대기에서 자취를 감춘 주제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Chimalpahin(1991, 1-157)은 쿨우아(culhua) 역사를 기록했다.¹⁸

이처럼 익스틀릴소치틀과 치말파인은 오랫동안 은폐되어 있던 원주민 신화와 역사를 복원하고, 출신 도시국가의 역사를 서술하며 모계 혈통에 대한 자긍심을 보여주었다. 물론, 한계도 드러냈다. 당시 원주민의 실상을 기록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시도는 엄두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복 이전의 전조와 정복사 또한, 이전 연대기들의 내용을 에둘러 반복했다. 한 예를 들면, 코르테스가 테노치티틀란으로 오고 있을 당시 묵테수마 왕은 공포에 떨었고, 케살코아틀과 그의 후손들이 다시 통치하기 위해 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익스틀릴소치틀은 기록했다(Ixtlilxóchitl 1985b, 200).

그러나 익스틀릴소치틀은 정복사와 관련해 큰 기여를 했다. 테노치티틀란 정복과 그 이후에 자신의 외증조부가 맡았던 역할과 공적을 상세히 기록하는 과정에서, 코르테스와 디아스가 기록하지 못하거나 건너 뛴 부분들을 새롭게 추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대기 말미에 익스틀릴소치틀은 자신의 외증조부가 당시 많은 군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문이 쇠락해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Ixtlilxóchitl 1985a, 515).

당시 익스틀릴소치틀과 그의 친인척들은 아콜우아칸(Acolhuacán)에서 스페인 왕실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영지 유지, 행정과 사법권 소유, 연금 등)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익스틀릴소치틀은 외증조부의 공훈을 식민 당국으로부터 다시 인정받아, 누리고 있던 혜택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상황은 치말파인 또한 유사했다. 자신의 혈통을 식민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아, 아메카메카에서의 전통 기득권을 되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후세의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다른 문제점도 발생했다. 코르테스와 동맹을 맺었던 원주민 도시국가와 원주민들의 다양한 역할이 익스틀릴소치틀의 연대기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면서, 이들이 개별적인 이익만을 추구한 외세지향적인 집단이라는 낙인이

18 원주민 전통 신화와 역사 등과 관련해서는 필자의 기존 논문 참조.

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익스틀릴소치틀과 치말파인의 연대기는 원주민들의 삶과 유리되어 있었고, 그들의 사상과 행동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의 모계 혈통에 대한 자긍심과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원주민 신화와 역사가 재정립될 수 없었다는 엄연한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

연대기 문학은 탐험과 정복시기를 비롯해, 스페인의 식민체제가 들어선 초기까지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이 시기는 원주민의 전통적인 종교·정치·사회 체제가 급격히 몰락하고, 아메리카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때였다. 본 연구는 당시 연대기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아메리카와 원주민의 실태를 비롯해, 정복사와 관련된 당시의 시각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했다.

제1시기(정복 시기: 1492-1521)의 콜럼버스는 에스파놀라 섬과 그 주변 지역을, 유럽 사람들의 꿈과 환상이 투사된 이상향으로 미화하고, 많은 황금과 재화가 풍부한 지역으로 상상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새로운 식민사업의 대상지에 불과했고, 원주민은 노예에 적합한 순종적인 열등 종족이었다. 콜럼버스의 1차 항해 이후, 에스파놀라 섬과 인근 지역은 기독교 전파라는 대의명분 하에 정복과 약탈의 대상이었고, 원주민 또한 노동력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스페인 왕실은 허울뿐인 법령을 통해, 원주민이 스페인 국왕의 신민이며 자유인이라는 현실과 먼 내용만 반복했다. 당시 연대기는 이런 현실을 외부에 고발하고, 원주민 보호를 위한 유일한 도구이며 통로였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원주민 지위와 관련된 신학·법적 논의가 제기되었다.

코르테스 또한, 테노치티틀란을 환상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지 않았다. 약탈과 식민사업을 통해 수익을 남겨야 할 새로운 정복지였을 뿐이다. 원주민은 노동력 착취의 대상이거나, 노예로 팔아 넘겨도 되는 열등 종족에 불과했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정복 전쟁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2시기(멕시코 식민시기: 1522-1650)는 종교 개혁과 흑색 전설의 확대로 스페인 왕실이 곤란에 빠져 있던 시기였다. 이와 맞물려, 스페인에서는 원주민의 신학·법적 지위를 비롯해, 정복 전쟁의 정당성을 두고 논쟁이 일어

다. 그러나 멕시코 시에서는 제1기(1522-1550)부터 부왕청과 프란체스코 교단을 중심으로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Olmos와 Motolinía는 원주민의 전통 종교의식을 비롯해, 신화와 역사 등을 포함하는 실태 조사를 했다. 이들의 보고서는 원주민의 다양한 이교도적 행위를 분류하는 기본 틀이 되었고, 원주민을 미개 종족으로 규정하며 정복의 정당성을 구축하는 기초 사료로 둔갑했다. 특히, Motolinía가 주장한 원주민 구대륙 기원설은, 원주민을 악마의 유혹에 빠진 타락한 종족으로 변질시킨 출발점이었다. 따라서 정복은 예정된 신의 섭리였고, 원주민이 겪은 당시의 참혹한 고통은 신의 응징으로 해석되는 길이 열렸다. 이 시기에 작성된 연대기들은 이후에, 바야돌릿 논쟁의 한 주역이었던 세폴베다가 논쟁의 주요 자료와 논거로 활용했다.

제2기(1551-1600)에는 스페인에서 바야돌릿 논쟁이 있었고, 원주민의 신학·법적 지위와, 스페인의 정복과 지배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그러나 멕시코 시에서의 상황은 판판이었다. 먼저, 정복 과정과 식민 초기에 발생한 원주민에 대한 약탈과 학살 등을 고발하는 연대기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 연대기 집필에 대한 식민 당국의 사전 검열과 통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기술된 누에바 에스파냐의 모습은 황금과 재화가 풍요로운 호기심의 공간이 아니라, 식민지 그 자체의 현실적인 모습이었다.

이 시기에 Sahagún과 Durán은, 원주민 구대륙 기원설을 바탕으로 원주민의 기원과 신학·법적 지위를 체계적으로 재규정했다. 무엇보다도 테노치티틀란 정복사와 관련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당시 4명(Sahagún, Durán, Muñoz, Tezozómoc)의 연대기 작가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누에바 에스파냐에 도착하기 이전에 다양한 전조와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이를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재구성해, 테노치티틀란의 멸망과 스페인의 지배를 신화·역사적인 순리로 변질시켰다. 그리고 코르테스의 도착을, 케살코아틀 귀환신화와 조합된 원주민 구대륙 기원설과 연계시켰다. 그리고 목테수마 왕은 유약하고, 주술과 미신에 빠져있는 미개한 왕으로 변질시켰다. 따라서 스페인의 테노치티틀란 정복은 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와 악행을 저지른 원주민들을 하느님이 응징한 것이며, 구약에 예지된 섭리가 실행된 성스런 전쟁이었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은 구원을 얻었고 문명화되었다는 논리가 자리 잡았다.

이 시기에 연대기 작가의 출신(사제, 관리, 메스티조 등)이 다양해지고, 연대기의 내용도 풍부해졌다. 하지만 그 내용은, 기독교적인 시각과 식민 당국의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스페인 식 교육을 받은 메스티조 출신의 연대기 학자들도 등장했지만, 이들은 기독교 교단 중심의 논조에 동참했고, 원주민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대변하지 못했다.

제3기(1601-1650)에 들어서면서 1530년대부터 시작된 연대기 집필의 열풍은 토르케마다를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단 내에서 사그라졌다. 반면에, 메스티조 출신의 익스틀릴소치틀과 치말파인이 등장해 태양창조신화를 비롯해, 원주민의 기원과 역사를 새롭게 복원했다. 특히, 익스틀릴소치틀은 테노츠티틀란 정복사 부문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들의 연대기 집필 목적에, 스페인 왕실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얻어내려는 개인적인 의도도 내재해 있어서 후세 연구자들로부터 가혹한 비난을 받았다.

참고문헌

- Alva Ixtlilxóchitl, Fernando de(1985a), *Obras históricas I*, México: UNAM.
_____(1985b), *Obras históricas II*, México: UNAM.
- Alvarado Tezozómoc, Fernando(1878), *Crónica mexicana*, México: Ibeneo Paz.
_____(1992), *Crónica mexicáyotl*, México: UNAM.
- “Breve Inter Caetera de 1493,”
<http://www.artic.ua.es/biblioteca/u85/documentos/1572.pdf>.
- Cabeza de Vaca, Álvar N.(1998), *Naufragios y Comentarios*, México: Porrúa.
- “Capitulaciones de Santa Fe,” https://capitulacionessantafeoficial.es/?page_id=377
- Columbus, Christopher(2004), *Diario de a bordo*, (translated by Lee Jong-Hun), Seoul: Seohemoongip.
- Cortés, Hernán(1992), *Cartas de Relacion*, México: Porrúa.
- Cuahtlehuauhtzin, Chimalpain(1991), *Memorial breve acerca e la fundación de la ciudad de Chulhuacan*, México: UNAM.
- Cugajo, Martín(2001), “Introducción,” *Brevísima relación de la destrucción de las Indias*, Madrid: Mestas, pp. 5-10.
- de Las Casas, Bartolome(2001), *Brevísima relación de la destrucción de las Indias*, Madrid: Mestas.
- Díaz del Castillo, Bernal(1991), *Historia verdadera de la conquista de la Nueva España*, México: Alianza.
- Durán, Diego(1995), *Historia de las Indias de Nueva España e Islas de Tierra Firme I, II*, México: 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 “El sistema de repartimientos y encomiendas durante el reinado,”
<https://1library.co/article/sistema-repartimientos-encomiendas-reinado.yng3wgm1>
- Feliciano Velázquez, Primo(ed.)(1992), “Anales de Cuauhtitlan,” *Códice Chimalpopoca*, México: UNAM., pp. 3-68.
- Francisco de Vitoria, https://es.wikipedia.org/wiki/Francisco_de_Vitoria
- Iguíniz, Juan Bautista(1994), “Prólogo,” *Vidas franciscanas*, México: UNAM, pp. V-XXVI.
- Landa, Diego de(1994), *Relación de las cosas de Yucatán*, México: Cien de México.
- “Leyes de Indias,” https://es.wikipedia.org/wiki/Leyes_de_Indias
- “Leyes Nuevas,” https://es.wikipedia.org/wiki/Leyes_Nuevas
- Mendieta, Jerónimo de(1994), *Vidas franciscanas*, México: UNAM.
- Motolín, Toribio Benavente(1994), *Relaciones de la Nueva España*. México: UNAM.
(2001), *Historia de los indios de la Nueva España*, México: Porrúa.

- Muños Camargo, Diego(2012), *Historia de Tlaxcala*, Barcelona: Red ediciones S.L.
- Nicolau d'Olwer, Luis(1994), "Intruducción y selección," *Relaciones de la Nueva España*, México: UNAM, pp. V-LIII.
- Olmos, Andrés de(1990), *Tratado de Hechicerías y sortilegios 1553*, México: UNAM.
- "Ordenanzas de descubrimiento y población dadas por Felipe II en 1573,"
https://historicas.unam.mx/publicaciones/publicadigital/libros/014/014_03_09_ordenanzas.pdf
- Polo, Marco(2000), *Le Divisament dou monde*, (translated by Kim Ho-Dong), Seoul: Sagyejel.
- Pomar, Juan Bautista de(1993), "Relacion de Juan Bautista de Pomar(tezcoco, 1582)," *Poesía náhuatl*(ed. Angel Ma. Garibay K.), México: UNAM, pp. 149-219.
- "Real Provisión Isabel la Católica,"
<https://www.historia.com/magazine/20-junio-1500-mediante-una-real-provison-prohibe-la-esclavitud/>
- "Requerimiento,"
<https://www.worldhistory.org/trans/es/1-20977/el-requerimiento-espanol/>
- Sahagún, Bernardino de(1985), *Historia general de las Cosas de Nueva España*, México: Porrúa.
- "Sublimis Deus de 1537," <https://www.papalencyclicals.net/paul03/p3subli.htm>
- Torquemada, Juan de(1975-1979), *Monarquía indiana*, México: UNAM.
- Zorita, Alonso de(1993), *Los señores de la Nueva España*, México: UNAM.

Article Received: 2023. 11. 25

Revised: 2023. 12. 09

Accepted: 2023. 12. 15

『라틴아메리카연구』(AJLAS) 편집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 학술지 편집규정(이하 본 규정이라고 칭함) 이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공정한 심사를 도모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본 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기능) 본 규정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국영문혼용학술지 『라틴아메리카연구』(*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규칙을 정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 제4조 (설치) 본 학회의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제5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이사를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제6조 (임무)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 심사, 발행 횟수 및 시기 등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제7조 (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학문분야별 다양성과 지역적 형평성 그리고 국제적인 지명도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장이 임명한다.
- 제8조 (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 (개최)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사이버 편집위원회도 이에 준한다.

제3장 투 고

- 제10조 (투고자의 자격)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본 학회의 회원
 - (2) 본 학회의 회원과 공동의 저자
 - (3) 기타 본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 (요령)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고자 투고하는 논문은 투고요령을 따라야 하며 이는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심 사

- 제12조 (심사보고서)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고자 하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결과는 별도로 정한 심사보고서를 이용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의 선정) 본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회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시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해당분야의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를 고정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투고논문 주제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논문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성실히 심사하고, 심사과정에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심사위원의 수) 한편의 논문에 심사위원의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익명성)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익명으로 한다.

- (1)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집 위원들에게 논문의 저자는 익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작성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논문의 작성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제17조 (심사결과의 처리)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별표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결과를 처리한다.

제18조 (심사비의 납부)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발 행

제19조 (발행시기) 본 학회지는 2020년부터 연 3회 간행한다. 발간일은 2020년에는 2, 6, 10월의 말일에, 2021년부터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게재료)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기 타

제21조 (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라틴아메리카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제7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3일 개정, 발효되었다.

제2조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발의 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 개정, 발효되었다.

별표 1: 심사결과의 처리기준표

A(90-100): 게재 (편집상의 수정, 보완 포함)

B(80-89) : 수정 후 게재

C(0-79) : 전면수정 후 다음 호 재심

D : 게재불가

심 사 평			심사결과 처리기준
제1심사자	제2심사자	제3심사자	
A	A	A	(1) 편집상의 수정, 보완 후 게재
A	A	B	(2)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보고서 확인 후 게재
A	A	C	
A	B	C	(3)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보고서 확인 후 게재
B	B	A	
B	B	B	
B	B	C	(4)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보고서 심의 후 게재 혹은 추가수정 요구 or 다음호 재심 or 제4심사자 심사의뢰 ※ 제4심사자 심사의뢰 시 판정이 A나 B이면 수정보고서 심사 후 게재 혹은 추가수정 요구
A	C	C	(5) 다음호 재심
B	C	C	
C	C	C	

※ 다음호 재심 판정을 두 번 받은 논문은 게재불가(D)로 처리하여 추후 투고를 받지 않는다.

※ 다음호에 재 투고된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자 수를 1인-3인으로 정한다. 통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 심사의 경우: A or B

2인 심사의 경우: AA or AB or BB (AC or BC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인 심사의 경우: 위 표에 따라 심사 프로세스를 다시 진행한다.

※ 3인의 심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게재불가(D)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사안에 따라 (4)나 (5)에 준해 처리하거나 최종 게재불가(D) 판정을 내린다.

최종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추후 투고를 받지 않는다.

※ (4)의 심사결과에서 당해 호 논문 수록을 위한 제4심사자 심사의뢰는 학술지 발간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라틴아메리카연구』(AJLAS)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라틴아메리카연구』와 관련하여 모든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그 해당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투고자들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의무를 명시하여 투고자들의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라틴아메리카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정기학술대회를 포함한 학회 주관의 모든 학술행사와 출판물에 제출되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연구윤리 개요)

- (1) 연구자는 각자 연구윤리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 (2) 연구윤리의 범위는 연구활동,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출판 등을 포괄한다.

제4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본 학술지에서 규정하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 (1) 학문적 독창성 침해: 타인의 연구업적(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표절 혹은 침삭하여 위조 및 변조하는 경우
- (2) 학문적 객관성 침해: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인용 혹은 사용되는 각종 문헌의 출처 및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가공, 변조함으로써 학문적 객관성을 침해하는 경우
- (3)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자 소속과 직위의 허위 기재,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자에 대한 저자 자격 부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연구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 (4) 중복투고 및 자기표절: 동일 연구자가 타 학술지 혹은 단행본 등의 연구물 혹은 논문의 일부를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중복투고하는 행위
- (5) 기타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시,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제보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표절 행위가 드러날 경우 『라틴아메리카연구』 편집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투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 기능을 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편집위원이 연구윤리 위반행위 의혹 당사자인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배제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이나 전문성 제고 필요성을 감안하여 학회 임

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제보)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 (1) 누구든지 구두, 서면, 전화, 우편 및 전자우편, 연구소 홈페이지 제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편집위원회에 위반행위 제보를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2) 제보 접수는 실명 제보인 경우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는 그 제보를 접수한다.

제7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심의 및 소명)

- (1)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2주일 안에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기된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객관적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 (3) 제보자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가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연구위반 행위 의혹 당사자에게 서면을 통해서 또는 연구윤리위원회 출석을 통해서 1차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 (5)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6)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참여자 모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비밀에 부쳐야 한다.
- (7)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피조사자에게 알리고,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최종 부여한다.
- (8)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확정하는 후, 이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9) 연구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증거, 소명자료, 참석자 현황은 기록으로 남긴다.

제8조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연구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투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연구위반 당사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 (2) 학술지 투고논문과 관련된 연구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논문투고를 향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제한한다.

- (3) 논문게재 이후에 연구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홈페이지와 회원 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라틴아메리카연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 (4)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관리 지침에 따라 재단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 (1) 『라틴아메리카연구』의 연구윤리 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최초 제정, 발효되었다.
- (2) 현 연구윤리 규정은 2020년 10월 10일 개정되었다.
- (3) 본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라틴아메리카연구』(ALAS) 투고요령

1.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에서 발간하는 『라틴아메리카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관한 지역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는 전문학술지이며 2011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입니다.
2. 본 학회는 회원과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전문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 주실 원고는 언어에 상관없이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합니다.
3. 게재 신청을 하실 논문의 연구 분야나 제목은 제한이 없으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논문을 보내실 때는 원고작성 요령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셔서 e-mail(lasak@naver.com)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에는 소장양식의 논문투고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라틴아메리카연구』는 연 3회 발간(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되며 원고마감일자 없이 수시로 논문을 접수합니다. 논문게재는 원칙적으로 투고일자 순서로 되며, 늦게 투고되는 논문은 학술지 발간계획에 따라 다음호로 게재를 미룰 수 있습니다.
6. 논문게재가 확정되었을 경우 학회는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합니다.
7. 학회지 기고에 관한 제반 문의사항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고송달의 경우 궂봉투에 반드시 학회지 원고게재 신청이라고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접수 이메일: lasak@naver.com

『라틴아메리카연구』(AJLAS) 원고작성요령

『라틴아메리카연구』에는 라틴아메리카와 관련된 모든 주제의 논문을 투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을 통해 출판된 논문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논문작성언어는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모두 가능합니다. 논문 길이는 10,000 단어 이내와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준 분량 초과시 편집위원회는 분량 축소를 요구하거나 게재를 다음호로 미룰 수 있습니다. 논문 작성은 아래한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용해주시시오. 그림, 표, 지도, 그래프 등은 투고자의 의도를 존중하되 출판시의 제 문제를 고려하여 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연구』는 또한 최근의 학술적 동향을 신속하게 소개하기 위하여 노트(Note)와 리뷰 에세이(Review Essay) 섹션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섹션에 투고된 글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게재됩니다. 분량은 원고지 기준 40매 이상으로 최근 주요 이슈, 연구동향, 주목할 만한 연구서를 소개하시면 됩니다. 단, 주제나 게재 가능 여부는 편집위원회와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작성 요령>

투고원고는 이전 학술지를 참고하여 제목, 성명 및 소속, Abstract, Keywords, 본문, (부록), 참고문헌의 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투고논문은 반려합니다.

1. 제 목

학술경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경우 제목 맨 뒤에 *표를 하시고 각주에 경비지원 내용과 과제번호를 밝힌다.

예) 이 논문은 2001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02-A00255).

2. 성명 및 소속

성명 및 소속은 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한국어로,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외국어로 표기한다. 소속 앞에는 단독 혹은 공동저작 사항을 표시한다. 맨 뒤에 *표를 하고(학술비 지원논문의 경우 **) 각주에 저자의 영문 소개를 덧붙인다. 외국어 이름을 표기할 때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쓰며, 이름 사이에는 하이픈("-")을 사용하고,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투고자의 e-mail 주소는 각주 저자소개 뒤에 쓴다. 공동저작의 경우 주 저자를 앞에 기타 저자를 주 저자 뒤에 쓴다.

예) 홍길동

단독/서울대학교*

* Kil-Dong Hong is a HK research professor of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kdh@snu.ac.kr).

3. Abstract

초록은 200단어로 영어로 작성한다.

4. 키워드

키워드는 5개 내외로 영어와 국문으로 작성한다.

예) Keywords: Political chaos, Ladino, Mayan aborigines, Obvention and contribution, Speaking cross / 정치적 혼돈, 라디노, 마야원주민, 종교적 세금과 부역, 말하는 십자가

5. 본문 주석: 약주 사용

-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될 경우 괄호 안에 연도만 표시. 저자의 이름이 한 글일 경우 저자의 성을 영문으로 함께 표기.

예) 홍길동은(Hong 1999) 세계화의 당위성을 강력히 지지한다.

Drake(1966)는 이 조약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한 바 있다.

- 2) 저자의 이름을 본문에 언급하지 않고 인용한 경우는 성과 연도 표시
예) 세계화의 폐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Fuentes 1979).

- 3) 인용 페이지를 밝힐 경우에는 ‘,’ 뒤에 페이지 표시

예) 리오 회의에서도 세계화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Hong 1983, 22-25).

- 4) 인용 책 혹은 논문의 저자가 둘일 경우에는 가운데 ‘and’로 구분.

예) 리오 회의에서도 세계화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Lagos and Fuentes 1983, 22).

- 5) 저자가 세 명 이상일 때는 ‘et al.’을 사용.

예) (Alessandri et al. 1971, 217-221)

- 6) 인용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로 구분

예) (Lacan 1974, 45; Derrida 1977, 22-23)

- 7) 참고문헌에 동일인이 같은 해에 쓴 저작이 다수 포함되어 인용을 할 때 연도 표기만으로 구별이 되지 않을 경우 알파벳 소문자 사용.

예) (Lacan 1974a, 45; Lacan 1974b, 22-23)

- 8) 재인용 방법

예) Lacan의 말을 Derrida 책에서 재인용할 경우: (Derrida 1974, 45, 재인용)

6. 표와 그림

- 1) 각각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로 표기하며 표 1.은 내용의 위에 그림 1.은 내용의 아래에 위치시킨다.

- 2) 표와 그림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부분을 a, b 등으로 표기한다.

7. 참고문헌

- 1) 참고문헌은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가급적 본문에 인용된 것만 적는다.
- 2) 저자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 3) 동일 저자의 출판물은 오래된 것부터 연대순으로 배열한다. 같은 연도에 여러 편의 저술이 있을 경우 1999a, 1999b, 1999c 등으로 분류한다. 이때도 먼저 나온 것을 1999a로 삼는다. 동일저자의 출판물 중 단일저작과 공동저작이 있을 경우 전자를 후자에 앞서 배열한다.

- 4) 한국어 참고문헌과 논문 및 인터넷 자료도 영어로 표기하여 외국어 자료와 함께 정리한다.

예) Hong, Kil-Dong(2010), "Value of National Holidays in Mexico," *Latin American Affairs*, Vol. 1, No. 2, pp. 1-33.

영문 참고문헌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한국어의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괄호 속에 영문 번역을 병기한다.

예) Hong, Kil-Dong(2010), "Mexico Kukkeongilui Gachi(Value of National Holidays in Mexico)," *Jungnammi Yeongu(Latin American Affairs)*, Vol. 1, No. 2, pp. 1-33.

- 5) 단행본 - 저자(연도), 제목, 출판 장소: 출판사 명

예) Von Mises, L.(1983), *Nation-State and Economy: Contributions to the Politics and History of Our Time*, Leland B. Yeager(tra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Strunck, W. Jr., and E. B. White(1979), *The Elements of Time*, 3rd ed., New York: Macmillan.

- 6) 저널 논문 - 저자(연도), 제목, 저널 이름, 권(Vol.), 호(No.), 페이지

예) Lipset, S. Ni(1983), "Radicalism or Reformism: The Sources of Argentine Working-Class Politic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77, No. 2, pp. 1-18.

- * ‘권’과 ‘호’ 표기법에 유의: 첫 글자는 대문자, 철자에 유의, 로마자 사용하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

- ** 계절, 달, 날짜 등을 명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No.와 페이지 사이에 쓴다.

예) Lipset, S. Ni(1983), "Radicalism or Reformism: The Sources of Argentine Working-Class Politic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77, No. 2, March, pp. 1-18.

- 7) 단행본에 삽입된 논문 - 저자(연도), 제목, 편자, 제목, 출판 장소: 출판사, 페이지

예) Weber, M.(1984), "Legitimacy, Politics, and the State," in William Connolly(ed.), *Legitimacy and the Stat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32-62.

- 8)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문헌으로 올릴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를 가장 뒤에 쓰고 마침표는 찍지 않는다. 인터넷 논문이라도 발간 연도를 아는 경우에는 저자 뒤에 연도를 밝힌다.

예) Ortega, Daniel(2001), “La histoirra inconclusa,” <http://www.danielortega.cl>

*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주석을 염두에 둘 것.

8. 외국어 표기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우리말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에 준할 수 있다.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Submissions and Review Process

Contributions to AJLAS are invited from all parts of the world. Articles may be written in English, Spanish, Portuguese, or Korean and they will be published in the original language. Each contributor will receive, free of charge, ten off-prints of the article and a copy of the issue of the Journal in which it appears. Manuscripts must be original research; AJLAS will not consider papers currently under review at other journals or that duplicate or overlap with parts of a book or larger works that have been submitted or published elsewhere. If there is doubt about whether the manuscript is acceptable, authors should discuss this issue in a cover letter to the managing editor. Review essays are also considered. Submissions are accepted on a rolling basis. Publication dates are April 30, August 31, and December 31.

Instructions for Contributors

1. All contributions and editorial correspondence should be submitted to the journal: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Homepage: <http://www.ajlas.org>

Attn: Dr. Gyoung-Mo, Gu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public of Korea
Email: lasak@naver.com

2. Formatting of Manuscripts:

- Length: Manuscripts should not be longer than 10,000 words, including text, tables, figures, title page, and references.
- Style and Layout: Font size should be 'Garamond' throughout the work: text 10.5 point, footnotes 8.5 point.

- The entire paper should be double-spaced; please do not submit double-sided copies. All pages should be numbered sequentially.
 - Manuscripts should be ordered as follows: title page, text, abstract, keywords, appendices, references, tables, figure captions, figure pages.
 - Titles, subtitles, and text subheadings should be chosen for succinctness and interest. The title page should also contain the name, academic rank, institutional affili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address, telephone, e-mail) for all authors. In the case of multiple authors, the title page should indicate which author will receive correspondence.
 - Submission Form: All submissions should include this manuscript submission form, available in Word or PDF format. An abstract (200 words) should be included with the submission form.
3. The electronic version of the manuscript should be submitted directly to the managing editor. Please submit properly-formatted electronic manuscripts (a single file containing all parts of the paper) in Microsoft Word.
4. References and Citations:
- In text, quotations must correspond exactly with the original in wording, spelling, and punctuation. Short quotations within the text should be noted by quotation marks; longer quotations or extracts should be indented from the left margin and require no quotations marks. Changes and additions to quotations should be identified by bracketing; ellipses [...] should be used to identify omissions; emphasis added should also be indicated. Embedded citations should be used, hence please do not use footnotes for simple citations. All citations should be specified in the text in the following manner:
- (a) If the author is named in the text, cite by year of publication:
 ... Drake (1966) has suggested ...
 - (b) If the author is not named in the text, cite by last name, and year of publication:
 ... it has been noted (Fuentes 1979) that ...
 - (c) If necessary, pagination should follow the years of publication separated by a comma
 ... it is argued (Lagos 1983, 22) that by ...

- (d) Dual authors should be joined by 'and' multiple authors should be indicated by 'et al.':
 ... other approaches (Snyder and Diesing 1977, 392) may assume (Alessandri et al. 1971, 217-221).
- (e) If an author has multiple references for any single publications year, indicate specific words by the use of lower case letters and separated by semicolons
 ... the one hand (Lacan 1974a, 45; Lacan 1974b, 22) ...
- (f) Series of references should be enclosed within parentheses and separated by semicolons; items should be ordered chronologically, by year of publication, and alphabetically within any year:
 ... proponents of the position (Russett 1981; George 1982; Holsti 1983; Starr 1983) and many ...

The reference section should begin on a new page following the text and any appendices. Works should be listed alphabetically by author, followed by a section listed alphabetically by institution - or title of any material not attributed to any specific author(s). References should conform to the following format:

- (a) References to books should list author(s), year, title, place of publication, and publisher:
 ... Von Misies, L.(1983), *Nation-State and Economy: Contributions to the Politics and History of Our Time*, Leland B. Yeager(tra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Strunk, W. Jr. and E. B. White(1979), *The Elements of Time*, 3rd ed., New York: Macmillan.
- (b) References to journal articles should list author(s), year, title of article, journal name, volume, number(s) and inclusive pages:
 ... Lipset, S. Ni(1983), "Radicalism or Reformism: The Sources of Argentine Working-class Politic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77, No. 2, pp. 1-18.
- (c) References to works in edited volumes should list author(s), year, essay title, volume editor(s), volume title,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 and inclusive pages:
 ... Weber, M.(1984), "Legitimacy, Politics and the State," in William Connolly(ed.), *Legitimacy and the Stat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32-62.
- (d) References to monographs in a series should list author(s), year, title, series

title, place of publication, and publisher:

... Fromkin, M.(1986), *The Limits of Recognition*, *Sanger Series on Law and International Society*, New Haven: Sanger Publishers.

Page proofs will be supplied to the first author of a paper, but only errors in the type setting may be corrected at this stage. Any substantial alterations will be charged to the author(s). Consequently, the author(s) should ensure that the paper is submitted in final form. Proofs should be corrected and returned within seven days of receipt.

Manuscript Formatting Information

<http://www.ajlas.org/>

Review Process

1. Initial Review: Upon receipt of the manuscript, the managing editor or other area specialist will make an initial assessment of the article and ensure that all required information for the submission process has been included. If any information is missing, the reviewer will contact the author.
2. Full Review: After the initial review is completed, an electronic version of the manuscript will be sent out to three reviewers. The authors will receive the reviewer's comments and have an opportunity to make corrections and resubmit.
3. Final Review and Publication: After authors revise and resubmit, the manuscript will undergo a final review prior to publication. The time from submission to final review and publication may be as little as two-three months to as long as a year. Publication dates are April 30, August 31 and December 31. Authors will receive ten off-prints and a copy of the journal in which the article appears.
4. Rejection: This may occur during either the full review or after the final review and publication. Authors will be notified as quickly as possible if their manuscript is rejected so that they may seek publication elsewhere.

Code of Research Ethic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is to establish ethical standards to be adopted by all contributors and required for publication in the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hereinafter “AJLAS”), published by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hereinafter “the Association”). The Code of Research Ethics defines what constitutes a case of misconduct and specifies by category different types of research ethics violations. In doing so, the Code of Research Ethics seeks to provide ethical principles and guidance regarding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all authors, contributors, and members of our Association.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The Code of Research Ethics applies to all articles submitted to and published in AJLAS, as well as all manuscripts submitted for academic events and conferences organized by the Association.

Article 3 (General Guidelines for the Code of Research Ethics)

- (1) All authors, researchers, and contributors are expected to follow the Code of Research Ethics.
- (2) The Code of Research Ethics applies to all research activities at all stages, including the publication process and the distribution of funding for members of AJLAS and the Association.

Article 4 (Violations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AJLAS regards the following activities as violations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 (1) Plagiarism: Misappropriation of an original author’s ideas, intrinsic content, or research results without the acknowledgment or pre-arranged permission.
- (2) Fabrication and Fraud: Falsification, invention, or manipulation of qualifications, data, sources, results, or citations directly or indirectly used in research.
- (3) Authorship Disputes: Providing false information about a researcher’s affiliation or academic position, granting authorship to individuals who did not contribute to the content or results of the research, or

the failure to grant authorship of a manuscript to individuals who contributed to the content or results of the research, or who made relevant contributions, without justifiable reason.

- (4) Duplicate Submission and Self-plagiarism: Submission of manuscripts describing research results or elements that are essentially the same as those described in another journal or primary publication.
- (5) Other Violations: Any other reports of misconduct judged by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of AJLAS as noticeable misconduct.

Article 5 (Composition of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 (1) The members of the editorial board of AJLAS shall serve on the journal's Research Ethics Committee.
- (2) Individuals with conflicts of interest related to any investigation shall be excluded from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 (3)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may consult or involve a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executive or an external expert in its decision making, dependent on the severity or nature of any violation.

Article 6 (Reporting Violations)

Research ethics violations may be reported in the following ways:

- (1)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may receive reports of misconduct by any available means, such as in writing, by phone, by mail, by email, or through the LASA website. It is acceptable for a proxy to submit a report of ethics violations.
- (2) Reports of misconduct should be made by an informant using his/her real name. Anonymous allegations of misconduct may not be considered. However, if specific information and substantiated evidence related to a claim of misconduct are submitted, anonymous reports will be accepted.

Article 7 (Investigative Process and Vindication)

Research ethics violations may be reported in the following ways:

1.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will convene and initiate an investigation within two weeks of any report of violations being filed.
2.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is obligated to gather sufficient evidence of specific misconduct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report.
3. Under no circumstances shall any pers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person(s) who report violations be published. The committee shoul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the informant from negative repercussions or possible external pressures.

4. The person(s) concerned will be informed of the allegation in writing or by meeting with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in person. The committee shall ensure that the person(s) concerned are given an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opinions, objections, and arguments.
5.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will keep confidential the identity/ies of the person(s) concerned and ensure that the person(s) concerned experience no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until the suspected misconduct has been verified.
6. All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including reports, deliberations, decisions, and suggested measures, shall be kept confidential. Individuals who take part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investigation shall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during the execution of the investigation or related tasks.
7.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shall notify the person(s) concerned of both the content and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before the final decision is made. All parties and persons related to the allegation will be given sufficient opportunity to respond.
8. The committee shall notify the informant and the person(s) concerned after a decision regarding the investigation has been made by vote. For a vote to be executed successfully, more than two-thirds of the currently registered members and a majority vote of the members in attendance are required.
9. The results of the ethics violation investigation must be reported to the board of the Association, and all records, including relevant documentation, evidence, and lists of individuals involved, shall be provided.

Article 8 (Measures after Verification) If it is determined by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that there is an actual violation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disciplinary measures will be taken based on the severity of violation. These are as the following:

- (1) The authors' institutions and sponsors will be notified of the violation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 (2) The authors will be prohibited from submitting manuscripts to any publication related to the Association and to AJLAS for three to five years.
- (3) Published papers will be removed from AJLAS and from the Association's digital archive and members will be informed of the reasons for this decision.
- (4)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will be reported to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ccording to that foundation's management guidelines for scholarly journals.

Addendum

1. This Code of Research Ethics took effect on October 1, 2008, when it was first established.
2. This Code of Research Ethics was revised on October 10, 2020.
3.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Code of Research Ethics may be discussed and decided by the editorial board.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Information regarding the Submission of Manuscript

About the author:

1. Name:
2. Title and institution:
3. E-mail address:
4. Telephone number:

About the manuscript:

1. Title:
2. Five Keywords:
3. Abstract (200 words):

Submission date:

- * I certify that the manuscript represents original and valid work and that neither this manuscript nor one with substantially similar content under my authorship has been published or is being considered for publication elsewhere. If requested, I will provide the data or will cooperate fully in obtaining and providing the data on which the manuscript is based for examination by the editors or their assignees.
- ** For papers with more than 1 author, I agree to allow the corresponding author to serve as the primary correspondent with the editorial office, to review the edited typescript and proof.
- *** Contributor's Qualification: All contributors must have at least a master's degree in order to submit a manuscript.
- **** More information about the formatting and submission of manuscripts is available at: <http://www.ajlas.org>

The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AJLAS)

The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AJLAS) is an academic journal for discussion and debate on the subjects of Latin American affairs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between Asian and Latin American Societies. The AJLAS has been published by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LASAK) since 1988. Published four times a year in February, May, August and November, AJLAS seeks to stimulate and disseminate research and scholarship in a broad sense of Latin American Studies. The scope of the AJLAS covers all area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cluding economics,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philosophy, history, sociology, geography, anthropology and literature. Articles with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are especially welcome.

1986년 창립된 이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는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학회지 발간을 비롯한 학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왔다.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그에 따른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현안과제를 수행하며 학문의 사회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실문제의 접근을 꾸준히 시도한다.(예, 2000년도 국제학술대회 개최 “21st century challenge to Latin America and new perspectives”)

둘째, 라틴아메리카연구의 학제적 연구 풍토 조성 및 강화에 힘쓴다. 특히 현 단계 학문 특성에 맞는 학제적 연구 풍토를 진작시키는 한편 지역연구의 핵심과제인 비교연구를 촉진한다.(2004-2006년 학술진흥재단 프로젝트 “문화적 저항과 새로운 연대: 민주화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셋째,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한국 라틴아메리카연구의 국제적 활동을 도모하고 학회의 세계적 위상을 진작시킨다.(예, 2007년 ‘범아시아오세아니아 라틴아메리카학회(CELAO)’ 행사 주관)

넷째,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의 다양화 및 다변화를 추구한다. 연구인력의 분업화와 연구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위해 각종 연구분과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공동연구의 기반을 조성한다.(예, “인문사회분과”, “정치외교분과”, “경제경영분과”의 전공분야별 분과 세미나 운영)

이와 같이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는 국내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유일한 전국적 학술단체이자,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문화, 문학, 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인문사회 학문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전문가집단이다.

학 회 안 내	
학회 연회비 납부	우리은행 1002-563-092001 (예금주: 전주람) • 연회비: - 정 회 원 5만원 - 종신회원 50만원 - 대학원생 3만원
논문 게재료 납부	하나은행 393-910457-92707 (예금주: 이순주) • 게재료: - 전임/연구비논문 30만원 - 비전임 10만원
학술지 논문 투고처 및 출판관련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20호관 310호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우편번호 44610) 전화: 052-259-2766 E-mail: lasak@naver.com Homepage: http://www.ajlas.org
학회 총무이사	조영현, 정상희, 강정원, 전주람 교수 대표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우편번호 46234) 전화: 051-509-5824 E-mail: lasakorea@gmail.com
학회홈페이지 학술지 아카이브	https://lasakorea.co.kr/ http://www.ajlas.org

『라틴아메리카연구』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이순주(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정치)

■ 편집위원

강경희(제주대 정치외교학과, 정치)

김영석(계명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경제)

노용석(부경대 국제지역학부, 인류)

박구병(아주대 사학과, 역사)

오삼교(위덕대 경찰행정학과, 정치-국제관계)

우석균(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중남미 문화-문학)

이미정(한국외국어대 중남미연구소, 경제지리)

임태균(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사회)

최해성(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국제관계사)

하상섭(한국외국어대 중남미연구소, 국제정치경제)

Gian Luca Gardini(School of Business, Economics and Society,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Gioconda Herrera(Departamento de Sociología y Estudios de Género, FLACSO Ecuador)

Guillermo Salas-Carreño(Departamento Académico de Ciencias Sociales- Sección Antropologí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Jie Guo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Jonathan Brown (Department of History,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Junyoung Veronica Kim (Department of Hispanic Languages & Literatures, Univ. of Pittsburgh)

Nobuaki Hamaguchi (Research Institute for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Kobe)

Su-Jin Lim(Facultad de Ciencias Políticas y Sociales, University of Colima)

■ 편집이사

구경모(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김희순(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Bradley Tatar(Division of General Studies,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편집간사

김주은(고려대 서어서문학과)

필자소개(집필순)

정호윤	국립부경대학교
Leonardo Gatica Arreola	Universidad de Guadalajara
Patricia Murrieta-Cummings	Universidad de Guadalajara
권봉철	Autonomous University
이종득	덕성여자대학교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지 제36권 3호

라틴아메리카연구(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023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광재성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전화: 031-201-2385

편집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20호관 310호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우편번호 44610)
전화: 052-259-2766
E-mail: lasak@naver.com
Homepage: <http://www.ajlas.org>

발행처 스마일기획
08839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12길 18
전화 02-874-1911
E-mail: smilework@naver.com

www.eaerweb.org

Call for Papers for the East Asian Economic Review

With great pleasure, the *East Asian Economic Review* is welcoming submissions.

AIMS and SCOPE

The *East Asian Economic Review* is an economic journal, for the promotion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s. Published as a quarterly by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 Korean government-funded economic think-tank, the Journal is global in perspective and covers both theory and empirical research.

The Journal aims to facilitate greater understanding of all issues pertinent to diverse economies of East Asia through publication of rigorous analyses by renowned experts in the field. The EAER connects policy and theory, providing empirical analyses and practical policy suggestions for the economies in the region.

TOPICS COVERED

The *East Asian Economic Review* brings together articles from many different realms of economics at both regional and global levels. Issues relevant to East Asia's diverse economy are the major focuses. Specific areas of interes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Trade and Investment Issues • Economic Integration • APEC
- ASEAN • ASEM • International Finance • Liber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EAER Abstracting and Indexing Services

The *East Asian Economic Review* is indexed and abstracted in EconLit, e-JEL, JEL on CD, OCLC WorldCat, ProQuest, Google Scholar, ECONIS, EconBiz, EBSCO, British Library, SSRN, RePEc,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ESCI), Directory of Open Access Scholarly Resource (ROAD), DOAJ and registered to Ulrichsweb, ITS : MARC, CrossRef, ORCID, SHERPA/ReMEQ, Korea Citation Index, Think-Asia, Microsoft Academic, Dow Jones Factiva, Dimensions, 1finder, Scilit, Lens, Lexis Advance and OpenAIRE.

NOTE FOR AUTHORS

SUBMISSION GUIDELINE:

Refer to our website www.eaerweb.org and Click "Submission" menu at the top of the main page.

SUBMISSION DEADLINE:

The Journal is published every 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 of each year and submissions are accepted for review on an ongoing basis.

REVIEW PROCESS:

We have introduced a "fast-track" system, which takes four to five weeks on average from submission to the first round review in order to provide quick and authoritative decisions to the authors. In general, the Journal's manuscript decision process includes submission, editorial decision on whether the paper should be reviewed, peer review, decisions after review, revision, acceptance in principle, final submission and acceptance, proofs, advance online publication, and print publication.

For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submission,
Contact EAER Editorial Office:
[30147] 3rd Floor, Building C,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Korea
Tel: 82-44-414-1213 FAX: 82-44-414-1044
Email: eaer@kiep.go.kr
Website: www.eaerweb.org

AWARD FOR EAER

The *East Asian Economic Review* Award is given annually to articles that have made exemplary contributions to advance the public as well as academic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economics. Every article published in the Journal is given an honorarium of KRW 2,500,000; and annual nominations for the outstanding and noteworthy articles include KRW 5,000,000 prize and a detailed nomination statement describing how the selected papers have contributed to the knowledge of international economics.